

2013년 8월
박사학위 논문

조성기의 기독교 소설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여 옥

조성기의 기독교 소설 연구

A Study on Cho, Seong Gi's Christian Novels

2013년 8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여 옥

조성기의 기독교 소설 연구

지도교수 김 형 중

이 논문을 현대문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여 옥

장여옥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전남대학교 교수	<u>이관모</u>	(인) 
위원	광신대학교 교수	<u>곽경숙</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혜영</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오문석</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형중</u>	(인) 

2013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ii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사	4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7
II. 한국 기독교 문학과 조성기	22
1. 기독교 문학의 개념과 양상	22
2. 1970~80년대 한국 기독교 문학과 조성기 문학	29
III. 기독교와 성장소설	38
1. ‘중생’의 교리와 성장의 서사	39
2. ‘성결’의 교리와 성장의 서사	61
3. ‘신유’의 교리와 성장의 서사	78
IV. 기독교와 세태소설	90
1. 한국 기독교 세태 묘사	91
2. 한국 정치 세태 묘사	106

V. 기독교 성장·세대 소설로서의 <에덴의 불칼>	116
1. 조성기 문학과 종교적 성장소설	116
2. 조성기 문학과 종교적 세대소설	118
VI. 결론	121
<참고문헌>	123

<ABSTRACT>

A Study on Cho, Seong Gi's Christian Novels

Jang, Yeo Ok

Advisor : Prof. Kim, Hyoung Joong,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projection methods of theological doctrines in religious in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growth novel on texts considered to have great deals of meaning as Christian novels in works of Cho, Seong Gi. And, next, in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social condition novel, the political condition in Korean society and the condition of Korean Christianity in his works are searched and analyzed. The meaning according to religious growth novels is found to propose symptomatic answers on various theological issues that the Korean modern Christianity has been and will be confronted. Also, in the narration of growth novels, social and political incidents (from 4.19 to 5.18) and religious conditions (doctrines and behaviors of various religions and religious orders) are illustrated. Literally speaking, Cho, Seong Gi's novels can be classified as 'Christian growth novels' as well as 'Christian social condition novels'. This study aims to increase of the understanding on the overall literatures of Cho, Seong Gi.

First, to confirm Cho, Seong Gi's posi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 literatu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Christian literature and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Christian literature' are checked. Korean Christian literature shows changes in three large phases. In the first, Korean Christian literature took the role of enlightening literature (from the time of enlightenment to 1920s). In the second, Korean Christian literature shows the trend that the bible and the

Christianity are utilized as literature subjects, but employed only as in the level of inserted or descriptive tools while failed to be incarnated correctly. Works created in this era (1930s ~ 70s) shows characteristics considering the presence of god in the level of shamanistic presence in the mixture of the traditional shamanism culture and the Christian culture. In the third, the era when the Christianity is settled above the culture of shamanism, the indigenous religion, the Christianity which has been stayed in the level off material is shown to reach to the theological and metaphysical work creation asking the nature of God. In this era, the Christian literature shows the trend to fictionalize motives of bibles in the daily area. Based on the Christianity, works are structured with the method ether focusing on the human existence and the private religious life or showing the intention to follow the nature of the Christianity. Also, the Korean society is under the era when various social issues such as the instability of social structure, the increase of social pathology and the collapse of the community are raising. Such social atmosphere causes rising of the people theology and the people literary theory. The formation period is relevant to the third phase.

However, even in several flows in the third phase, Cho, Seong Gi's literature is exception. He shows a world of works covering multiple flows. His works in 1980s gained with such result directly face issues of the society and the race with motives of the bible and search for alternatives. And, based on the changing reality of society, his works show examples of the social religion literature by combining the writer's awareness on the literature's role for the era and the situation and the self-consciousness on the nature of the Christianity.

Cho, Seong Gi's works are religious growth novels having the autobiographic uniqueness and religious experience novels entirely reflecting the religious doctrine the writer experienced. This study reviews how Wesley's doctrines (Regeneration, Sanctification, Healing) are described. With the description of regeneration (salvation), the intellectual salvation and the behavioral salvation are identified.

Therefore, it is shown that the intellectual savior employs the direct quote

through the sermon and the bible as the media of salvation and the behavioral savior takes the indirect testimony and the confessional format through experience. In Cho, Seong Gi's literatures, courses of the sanctification and the healing after the regeneration are also symbolized in complex forms so that the work analysis is performed following Wesley's four-fold gospel.

From the aspect of social condition novel, "Fire Sword of Eden" is analyzed. The novel is separated in two large categories including the religious condition and the political condition in Korea of the era. A characteristic of Cho, Seong Gi's novels is on that works show the aspect of religious social condition novel with the appearance of social conditional novelistic illustration in the description of the religious growth. And, this can be called an overlapping structure of the growth novel and the social condition novel because the course of growth entirely becomes the course of the social condition's description. The analysis shows that many religious denominations in Korea of the era and major political incidents in the modern Korean history act as important backgrounds and media in the development of description.

After all, "Fire Sword of Eden" is a religious growth novel and a religious social condition novel in an exceptional large scale in the Korean literature history. And, an overall approach to Cho, Seong Gi's literature becomes possible only when the characteristics from the both is eliminated. Cho, Seong Gi is a writer searching for open causes allowing readers' own determinations on the fundamental absurdity that derived from community while the writer is escaping from the biased world and considering the motive of the bible as the original form of his own literatures, but searching for the issue of the human existence in the process and being based on the theological nature. Considering the situation that researches on Cho, Seong Gi's literature have been fragmented and partial until now,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found here. However, this study has also many limits. First of all, this study requires the comparative research with works of other writers having the Christianity for their subjects. Since this study aims the overall understanding on Cho, Seong Gi's Christian literatures, the limit remains as being relatively insufficient for the comparative research with other writers and Cho, Seong Gi's position in the entire Korean Christian literature history.

I. 서론

1. 연구 목적

한국 현대 소설사에서 기독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은 실로 다양한 양상과 넓은 층위를 보여준다. 시기적으로는 개화기 신소설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 문학 백년의 역사와 나란한 변모 과정을 겪어 왔다. 그 주제 면에 있어서도 신앙인인 작가가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쓴 작품으로부터 종교와 인간의 문제를 형이상학적인 시각에서 탐구한 작품과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작가가 한국 기독교의 세태와 왜곡상을 고발하기 위해 쓴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¹⁾

기존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한국 기독교의 거의 한 세기²⁾에 걸친 다양한 변모 양상과 층위들을 시기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한다. 그들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고난(암흑)기’와 ‘성장(각성, 활동)기’를 거쳐 현재는 ‘침체(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한국 기독교가 가장 암울한 처지에 있었던 고난기는 일제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독립운동이나 계몽운동 속에서 발전한 한국의 기독교는 당연히 일제로부터 주어지는 갖은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굴하지 않는 신앙 정신으로 설명할 도리 외에는 없을 듯하다.³⁾ 반면, 1965년에서 1985년까지 20여 년 동안은 한국 기독교가 그 외적 성장에 있어 가장 왕성했던 시기로 꼽힌다.⁴⁾ 그러나 그 규모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1985년 이후 한국 기독교는 일종의 정체기를 맞이하게 된다.⁵⁾ 이처럼 100년에 걸친 한국의 기독교

1) 김명석, 「현대 기독교소설의 세 양상」, 『문학과 종교 제2권』, 문학과 종교학회, 1997, 37쪽.

2) 근대 초창기 성서의 한글 번역과 찬송가 편찬사업은 1882년에 시작되어 1910년에 완결을 보았다. 이에 따른 성서 보급은 기독교사상의 토대를 형성하는 대중의 의식에 영향을 끼쳤다. 이인복, 「韓國小說에 受容된 基督教思想研究 (1)」, 『월간문학』, 1987. 1. 282쪽.

3)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기독교문사, 1992, 24~146쪽 참조.

4) 이원규, 「한국종교 성장의 사회적 배경」, 『한국 교회와 사회』, 나단, 1989, 94~96쪽 참조. _____, 「한국 기독교의 사회변동적 기능」, 『한국사회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한울, 2000, 36~39쪽 참조.

5) 한신대학교 신학연구소, 『한국 개신교와 한국 현대의 사회 문제적 변동』, 한울아카데미, 2003, 91쪽.

의 역사를 개관해 볼 때, 외적 시련기에는 내적으로 종교가 해내야 할 역할을 묵묵히 담당해낸 반면, 외적 성장기 이후 그와 같은 역할이 침체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아니러니하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조성기⁶⁾의 기독교 소설들은 위의 세 단계들 중 성장기를 배경으로 한다. 그는 기독교 신학보다는 변혁 이념이 한국 문학에 있어 거의 완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던 1980년대 상황에서, 기독교 문학 작가로서 이상적인 작품들을 우리 문학사에 제출한다. 그의 작품들은 작가의 개인적 체험에서 형성된 기독교적 세계관을 순수한 형태로, 그러나 소설적 개연성을 잃지 않으면서 형상화하고 있다.

우선 조성기의 작품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자전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다는 점이다. 김현은 “한 작가의 개인적 체험을 규제하는 것은 유년기의 정신적 외상이며, 그의 인식론적 방해물과 싸우는 과정에서 그것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것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작가의 세계관이 생겨난다”⁷⁾고 말한 바 있다. 조성기의 문학은 이에 대한 예증으로 모자람이 없는데,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문학적 감수성은 순전히 개인적 체험 속에서 종교와의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런 이유로 인위적이거나 사변적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다. 특히 몇몇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삶과 작가인 조성기 자신의 이력이 거의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을 요한다.⁸⁾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외상을 겪게 되는데, 아버지가 5·16 군사 쿠데타가 터진 후, 부산 초등 교원노조 위원장의 자리에서 파면을 당했던 사건이 그것이다. 아버지의 파면은 어린 조성기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견고한 성채와도 같았던 아버지가 처참하게 허물어지는 광경은 작가 자신은 물론 온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의 불씨가 되었다.

유년기의 이와 같은 상처가 작가에게 외상적인 것이었음은, 대표작 『에덴의 불칼 제1부, 갈대바다 저편』 첫 장, 첫 단락이 “…… 5학년 때 4·19

6) 조성기는 1951년 경남 고성에서 출생하였으며,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萬華鏡」으로 등단하였다. 1985년 『라하트 하헤렘』으로 제9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였으며, 1986 『야훼의 밤』으로 제4회 기독교문화상을 수상하였고, 1991년 『우리 시대의 소설가』로 제 15회 이상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7) 김현, 「무엇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가」, 『한국 문학의 위상』, 문학과 지성사, 1996, 56쪽.

8) 이동하, 「신앙인의 길, 자유인의 길」, 『작가세계』, 세계사, 29집, 1996년 여름, 64쪽.

가 터졌고 6학년 때 5·16이 터졌지만”⁹⁾으로 시작한다는 점만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정치적 격변과 가난의 기억이 그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성기의 많은 작품에서 변주될 원초적 경험으로 추측되는 이와 같은 유년기 체험은 그의 기독교주의가 단순히 수입되었거나 계몽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외상적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고뇌와 번민의 산물임을 입증한다.

게다가 조성기의 작품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존적 결단을 종교와 관련시키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시대의 아픔에 대한 깊이 있는 추구에까지 이른다. 그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가치와 초월적이며 신적인 가치 사이에서 무한히 갈등하는 인간 존재를 즐겨 소설화한다. 작가 조성기는 심화된 내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 양자를 두루 다룸으로써 기독교적 세계관을 작품 속에 형상화한 보기 드문 작가였다. 그는 루엘 하우의 표현을 빌려 “종교의 주제는 결코 종교가 아니라 생활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작품 또한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일 뿐이다.”¹⁰⁾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작품들은 T.S.엘리어트가 『종교와 문학』¹¹⁾에서 말한바 ‘무의식적인 기독교’ 작품이자 시대와 생활을 포기하지 않은 기독교 문학의 모범을 보인 예라 할 만하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한국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대변해 주는 문학적 성과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기독교의 구원관은 초월적인 신과의 대결 속에서 인간의 불완전하고 모순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투영한다. 세속적으로나 실존적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현대 한국의 기독교가 부딪쳐 왔고 또 부딪히게 될 여러 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징후적인 답변들을 제안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주인공의 그러한 갈등 극복 과정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사건들(4.19에서 5.18까지), 그리고 종교적인 세태들(여러 종교와 종파들의 교리와 행태)이 일종의 입사식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조성기의 소설은 ‘기독교 성장 소설’이자 동시에 ‘기독교 세태소설’이란 범주로 묶어 별반 무리가 없다.

9) 조성기, 『에덴의 불칼 제1부, 갈대바다 저편』, 민음사, 1992, 5쪽.

10) 조성기, 「변명으로서의 소설론-비평과 비평의 거리」, 『열한권의 창작노트』, 창, 1991, 266쪽.

11) 토마스 스텐스 엘리어트, 최종수역, 『종교와 문학』, 박영사, 1974, 98~103쪽 참조.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는 조성기¹²⁾의 기독교 문학이 가진 위상과 특수성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먼저 기독교 교리가 그의 성장서사에 구현되고 있는 양상을 고찰해 보고, 이어서 그의 소설의 또다른 특성으로 보이는 세태소설적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사

한국 기독교 문학에 있어 가장 선구적인 업적은 이광수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¹³⁾에서 ‘야소교회는 암흑하던 조선에 신문명의 서광을 전하여 준 최초의 은인이며 겸하여 최대한 은인’이라고 제시하면서 기독교가 조선에 미친 영향을 여덟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신구약 성경과 찬송가의 번역이야말로 조선 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은 그릇이 되는데 일조했으며,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일항에는 신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라 하여 초기 신문학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한국문학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처음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한국문학사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김영덕의 「한국 근

12) 조성기 작가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다녔지만 목사 안수를 받기보다는 전도사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그가 출석하는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산울교회’의 기본방향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산울교회는 사도들의 전통 신앙에 입각한 복음주의 교회로서 성경의 기적과 부활 재림들을 상징적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자유주의적 신학을 경계합니다.

2) 산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인칭 고백을 통하여 서로 나누는 교제를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산울교회에 참여하시려면 이러한 교회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고 그런 점에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3)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영적 소원과 그 외 여러 소원들을 간구한 시편의 일인칭 기도를 배워 교우들 간의 대화식 기도에 활용함으로써 더욱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고자 합니다. …… 중략

9) 청소년 선교와 대학선교에 힘쓰는 가운데 청년들을 세우는 역사가 있도록 영적 배경(환경)을 이루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시대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상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www.sanul.or.kr, ‘교회소개’ 참조.

13) 이광수,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 『청춘』 9호, 1917.7, 7쪽. 재인용.

대적 문학배경과 기독교」¹⁴⁾를 들 수 있다. 그는 1882년 이래 개신교의 선교활동이 우리 선인들의 정신생활을 혁신시켰으며 근대적 사회의 성격을 갖추게 하였고, 성서의 번역에서 비롯한 국문 사용은 근대정신의 자각을 가져와 한국근대 문학의 터전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그가 제시한 근대문학의 기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란의 여지가 남지만, 한국문학사에 끼친 개신교의 영향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서는 그 의의를 무시하기 힘들다.

기독교와 한국문학사의 관계성을 논하던 초기 연구에 이어진 ‘기독교 문학론’ 자체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한국에서의 기독교와 문학의 상관관계, 종교와 문학의 일반이론 등을 문학론의 장으로 끌어들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전영택은 『기독교사상』 창간호에 실린 「기독교 문학론」¹⁵⁾에서 ‘종교와 문학’은 사람의 본연의 생활에서 나온 것이니 만큼 종교문학인 기독교문학도 사람의 가장 궁극적 문제 가운데 하나임을 말하고, 인간의 강한 자기 추구하고 이상 및 영원의 추구라는 두 가지 생활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과 싸움을 진지하게 취급하는 것이 종교문학의 영지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전제에 입각하여 전영택은 기독교문학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협의의 기독교문학과 광의의 기독교문학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협의의 기독교문학은 창작활동에 있어 신앙이 뿌리깊이 움직이고 있으며 전폭적으로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참 종교문학을 말한다. 반면 광의의 기독교문학이란 순수하게 기독교문학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작품 전체에 넘쳐 흐르는 향기로 보아서 기독교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작품들을 말한다. 이렇게 기독교 문학의 범주를 넓게 잡을 경우 초월과 구속의 경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라면 모두 기독교 문학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전영택의 이러한 논의는 기독교문학론의 획기적인 시발점이 된다. 기독교문학의 본격적인 장을 전영택의 논의들이 열어놓은 것이다.

기독교가 한국 현대소설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시도한 글로 백철의 「한국의 현대소설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¹⁶⁾을 들 수

14) 김영덕, 「한국 근대적 문학배경과 기독교」, 『이화여대 80주년 기념논문집』, 이화여대 출판부, 1966.

15) 전영택, 「기독교 문학론」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제1권, 제1호, 1957. 8. 66~71쪽 참조.

있다. 그는 우리 현대문학이 기독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생성된 것이란 사실을 밝힌다. 기독교 사상이 우리 문학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춘원 이광수의 작품 『무정』, 『재생』, 『흙』, 『사랑』 등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광수의 작품들에서는 기독교적 영향아래 박애, 사랑, 자기희생 같은 기독교 정신이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강조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한편으로 작품의 주제를 다소 작위적으로 기독교 사상에 얽어매는 환원론적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는 한계를 내보이기도 한다.

명계웅의 「한국 기독교문학의 모색」¹⁷⁾은 기독교문학의 침체와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척된 논의를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그 원인은 기독교문학 자체의 개념설정 미흡과 기독교인으로서 작가의식의 부재이다. 덧붙여서 전문적인 기독교 비평문학이 없다는 사실도 그러한 현상의 원인이라한 것이 그의 판단이다. 기독교문학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작품 속에서 얻게 되는 정서감을 독자의 내심 속에 의미 깊게 재형성해주고 기독교문학의 지향점을 아울러 제시해내야 할 비평작업이 없다는 점이 그가 보기에는 한국 기독교문학의 정립 과정에 있어 심히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한국 기독교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기는 하되, 그러한 방향성이 구체적인 작품의 분석을 통해 주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추상적 논리의 한계를 보여준다.

김병익은 「한국소설과 한국기독교」¹⁸⁾에서 한국 기독교소설이 현대사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왜곡된 채로 수용된 기독교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한국 소설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핌으로써 기독교 자체의 인식과 수용의 구조가 어떤 관계에 놓였는지를 살핀다. 아울러 그는 민족적으로는 암울했으며 교회사적으로는 가장 고난기였던 1930년대의 작품들과 사회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부흥기를 맞는 1970년대의 작품들을 비교하여 그 수용 자세와 변모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이 글에서 김병익은 우선 1930년대 염상섭의 『삼대』와 김동리의 『무녀도』, 『사반의 십자가』, 그리고 1970년대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과 백도기의 『청동의 뱀』을 비교 분석하여 기독

16) 백 철, 「한국의 현대소설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중앙대 논문집 제4집』, 1959, 33쪽.

17) 명계웅, 「한국 기독교문학의 모색」, 『현대문학』 16권 6호, 1970, 31쪽.

18) 김병익, 「한국소설과 한국기독교」,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79.

_____, 「기독교의 수용과 그 변모 - 한국소설을 통해 본」, 『신학사상』 제11집, 1975, 12.

교문학의 가능성을 차분히 밝혀간다. 그에 따르면 초창기에는 기독교가 정치적 활동의 대상으로 혹은 샤머니즘의 왜곡된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적인 배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기독교가 점차로 그 종교적 본질에 육박하는 삶의 태도로 바람직하게 변모함을 밝힌다. 즉 한국 기독교가 그 외형화와 사회적 신분화를 극복하여 참된 신앙의 획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엘리엇가 말한 ‘계획적이거나 도전적이라기보다 차라리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학’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기독교 작품이라는 견해를 따르는데, 그것은 곧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계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당하게 구성하는 데 성공한 작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를 소재로 다루었다는 점을 취하여 그것이 기독교문학일 수 없고,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거기서 보여줄 수 있어야 기독교 문학이 된다는 것이다. 그의 논의는 기독교 문학의 범주와 가능성 여부를 작품 내적 진실 또는 문학적 형상화의 완성도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온당한 견해라 할 수 있다.

조신권의 『한국문학과 기독교』¹⁹⁾는 기독교가 우리 문학사에 남긴 의의와 개화기 시가나 소설에 끼친 영향을 실증적이면서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구교(천주교)가 한국문학사에 준 영향을 『홍길동전』으로 입증하고, 『聖山明鏡』이라는 개화기 소설을 들어 기독교가 우리 문학사에 미친 의미를 살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김주연²⁰⁾은 기독교의 문제를 한국의 문학과 관련하여 쓴 단평들 외에도 기독교와 관련한 문학일반론과 장르적 고찰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문학사적 고찰 또한 수행한 바 있다. 유사하게 최종수²¹⁾는 기독교문학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기독교문학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학과 기독교가 서로 배치되는 사례들을 먼저 살피고, 이어서 기독교 문학의 발전을 위해 기독교 문인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추출한다. 그에 따르면 성경이야말로 위대한 문학 작품이며 따라서 문학과 기독교는 결코 대척되지 않는데, 기독교 문인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작가로서의 진실한 인격, 신앙 및 예술적 언어구사력 등이다. 그러나 그의 논의에는 기독교

19) 조신권, 『한국문학과 기독교』,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20) 김주연 편저, 『현대 문학과 기독교』, 문학과 지성사, 1984.

김주연, 「한국현대시와 기독교」, 『기독교사상』, 1984.9월호

21) 최종수, 「신앙과 문학」, 『문학과 종교의 대화』, 성광문화사, 1987.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눈에 띈다.

홍문표²²⁾는 기독교 문학의 기초적 이해와 근본 개념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기독교 시’와 ‘기독교 소설’에 대한 상세한 각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기독교 문학에 대한 논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단편적인 원론에 머물렀다. 그런데 『기독교 문학의 이론』은 체계적인 기독교 문학의 기초이론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동하²³⁾는 복음서와 소설 사이의 거리문제,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의 문제들을 연구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의 소설이 종교의 세계와 어떤 양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그 관련 양상이 갖는 의미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이상에서 ‘기독교 문학의 일반론’에 해당하는 기존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연구 유형으로 기독교 문학과 관련된 개별 작가와 작품론들을 들 수 있다. 이 중 작품론은 기독교 사상이 수용된 작품들을 분석하여, 올바른 기독교 소설의 지향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은 연구들이 해당된다. 이 연구들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양분할 때, 전반기²⁴⁾에 해당하는 작품론들로는 이광수의 『무정』·『재생』, 김동인의 『이 잔을』, 전영택의 『한 마리 양』, 박영준의 『종각』, 김동리의 『무녀도』·『사반의 십자가』, 황순원의 『움직이는 城』 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후반기²⁵⁾에는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백도기의 『청동의 뱀』, 이청준의 『낮은 데로 임하소서』·『벌레 이야기』, 김성일의 『땅 끝에서 오다』, 이승우의 『에리직톤의 초상』, 조성기의 『야훼의 밤』 등이 주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여기에 속하는 연구들이 주로 한 두 작품의 논의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상 작가의 경우도 주로 이광수, 전영택, 김동인, 김동리, 황순원, 이청준, 김성일, 조성기 등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 문학과 관련된 학위논문들²⁶⁾ 역시 중요한 하나

22) 홍문표, 『기독교 문학의 이론』, 창조문화사, 2005.

23) 이동하, 『한국 소설과 기독교』, 국학자료원, 2003.

_____, 『한국 현대소설과 종교의 관련 양상』, 푸른사상사, 2005.

24) 김병익, 「한국소설과 기독교」, 『월간 대화』 제79호, 1977, 7.

한승욱, 「기독교와 소설문학」,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김봉균, 『한국 현대소설과 기독교 정신』, 민지사, 1997.

이동하, 『염상섭 문학의 재조명』, 새미, 1998.

25) 강요열, 「한국 현대 기독교 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1991.

김봉균, 「한국 소설의 기독교의식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1995.

임영천, 『한국 현대소설과 기독교 정신 - 다성성의 시학을 바탕으로』, 국학자료원, 1998.

의 연구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논문들은 대부분 한국문학에 있어서 기독교 문학의 형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문학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 한국 기독교 문학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개화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가급적 빠짐없이 살펴본 결과 ‘기독교 문학’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주 활발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사를 종합해 볼 때 아쉽게 여겨지는 문제점들 또한 없지 않은데, 이를 항목화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기독교 문학’에 대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문적인 연구 실적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 문학’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제대로 된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둘째로 대부분의 연구가 기독교 문학의 일반론에 머물고 있거나 한정된 작품과 작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작가나 작품의 경우 반복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셋째로 ‘기독교 문학 비평’에서 비평의 영역을 담당하는 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기독교인으로서 학자나 문인들이 비평적 자의식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로 ‘기독교 문학’에 관한 연구가 ‘한국 교회사’와 분리되어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작품이 속해 있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틀 내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성경의 원리를 기준으로 하여 작품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한국 현대사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와 별도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연구 주제임에 틀림없다.

26) 안혁수, 「한국기독교 문학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1971.
김옥순, 「한국 현대문학의 기독교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1982.
기진오, 「한국 기독교 문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1984.
황양수, 「한국 기독교 문학의 형성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1988.
박현철, 「한국 기독교 소설의 변이 양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1991.
정승희, 「한국 기독교 소설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2000.
김 창, 「한국 현대소설과 기독교 정신」,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2001.
김병학, 「한국 개화기 문학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2004.

다섯째로 엄밀하게 신학적 교리에 입각한 ‘기독교 문학’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대개 기독교 일반론 차원에서 머문 논의들이 많아서, 신학적 교리를 구체적으로 작품에 적용하여 분석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특히 위의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문제점에 착안하여 조성기의 1980년대 기독교 소설 『에덴의 불칼 1~7』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우선 신학적 교리에 입각한 성장서사를 폭넓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기독교적 성장소설이라는 범주만으로는 조성기의 작품 세계 전반을 모두 조망하기 힘들다는 난점이 있다. 그의 소설은 ‘기독교적 세태소설’의 특성 또한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후반부는 세태소설로서의 조성기 문학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세태소설’이란 비평용어는 1938년 동아일보에 발표된 임화의 평론 「세태소설론」에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용어 사용과 무관하게 그 개념적 특성은 1936년 조선일보에 발표한 최재서의 평론 「〈川邊風景〉과 〈날개〉에 관하여」에서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 “『川邊風景』은 都會의 一角에 움푹이 있고 있는 世態人情을 그렸고”²⁷⁾라고 구절이 그것이다. 박태원의 『천변 풍경』은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천변사람들의 인정을 그렸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세태소설’이 엄밀하게 문학용어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임화의 “세태묘사의 소설이란 직접적으로 內省의 소설과 對蹠되는 것으로”²⁸⁾라는 지적에서 시작하고 있다. 임화는 당시 발표되는 소설들의 매력이 부족한 원인을 ‘사상성’의 감퇴로 파악하고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문학적 특색으로 박태원의 『천변 풍경』, 채만식의 『탁류』, 홍명희의 『林巨正』, 현덕의 『남생이』 등을 예로 들었다.

작자 자신의 자태를 그렇게 똑똑히 내놓지 않고 단지 묘사되는 현실 그것을 통하여 독자에게 현실의 지저분함을 능히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묘사되는 현실이란 실로 하나의 정신적 가치를 갖는 것이며 세태소설이란 순전히 소설의 이런 측면에만 작자가 자기를 의탁하려는 문학이다. ²⁹⁾

27) 최재서, 「리얼리즘의 확대화 심화」,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98쪽. 재인용.

28) 임화, 이광희편집, 「세태소설론」, 『문학의 논리』, 서음출판사, 1989, 206쪽.

29) 임화, 이광희편집, 위의 책, 211쪽.

여기에서 임화는 세태소설이 산문적인 문학형식으로 인과성이 없는 개별 상황의 나열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묘사하는 작품의 배후에는 작자정신이 존재하며 묘사에는 반드시 묘사 이상의 묘사하는 의식이 잠재해야 된다는 지적은 그대로 세태소설에 대한 비판이지만 역으로 말해 그가 세태소설이라는 용어를 어떤 범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객관적이고 나열적인 현실 묘사가 바로 그것이다.

위와 같은 임화의 평론은 세태소설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과 형식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남천은 세태소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풍속 세태소설을 사회의 총체적 모습을 드러내는 데 가장 적합한 형식의 장편소설이라고 주장한다. 산문적인 소형식으로는, 사회적 관계의 본질에서 이탈됨 없이 작가의 세계관을 개진하는 데에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³⁰⁾이다.

풍속이란 사회적 습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습성, 습속은 사회의 생산기구에 의한 인간생활의 각종 양식에 의해 종국적으로 결정되므로, 이 풍속은 한편으로 ‘제도’, 한편으로는 ‘제도 습득감’을 의미하게 되어, 결국 풍속이란 경제현상도 정치현상도 문화현상도 아닌 사회의 물질적 구조 위에 있는 체계단의 일관된 하나의 공통적인 사회현상을 말하는 통전적 개념으로 이는 발자크에게서 영향 받은 것이었다. ³¹⁾

이처럼 김남천은 소설정신이 ‘편력’이나 ‘산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시정(市井)세계를 거쳐서 문학의 정신을 살려내는데 있으며, 더 나아가 시정 세계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주장한다. 그는 한 사회의 반영으로서의 문학, 특히 소설은 풍속의 이면에 존재하는 생산관계를 포괄한다고 함으로써 세태소설의 발전적 전개를 제시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세태소설에 대하여 임화는 소설의 전형적 주인공과 직선적 플롯의 결여를 사상성의 부재로 인식한 반면, 김남천은 ‘모럴의 확립’, ‘세태와 풍속’, ‘세태, 풍속 묘사 기타’ 등으로 전체성의 제시와 다양성을 아우르면서

30) 김재남, 『김남천 문학론』, 태학사, 1991, 104쪽.

31) 김재남, 김남천은 발자크가 그의 연인 앙스카 부인에게 보낸 서한의 일절, ‘풍속연구는 일체의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간의 마음의 역사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사회의 역사에 우선 근거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관찰문학소론(4), 『인문평론』, 1940, 4. 14쪽참조.) 위의 책 103쪽.

장편소설 논의를 촉발시켰다.

세대소설에 대한 현재의 주요 연구들은 대개가 작가 박태원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는 실정이다. 30년대 후반기에 평단에 등장한 세대소설이란 말이 당시 소설의 흐름을 집약하는 용어였기 때문이다. 현재도 30년대 후반기 소설을 언급하는 연구에서는 빼놓을 수 없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세대 소설’이다. 한편, 다른 시대의 문학과 관련하여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1950~60년대의 문학연구에서는 주로 전후소설 작가 손창섭³²⁾의 작품을 거론할 경우 사용된다. ‘모털의 상실과 이성의 문제’, ‘자본주의하 돈에 대한 개념’ 같은 수식어들이 그 예이다. 또한 최근의 작품으로는 작가 박완서³³⁾의 소설들이 세대소설의 범주하에서 연구되고 있기도 하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부조리와 불균형’, ‘결혼의 모순과 물신주의’, ‘성 관념의 타락’ 같은 말들이 그의 작품을 세대소설의 범주에서 논할 때 즐겨 사용되고 있다.

어쨌든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할 때 세대소설이란 세대의 반영물이요, 세대의 객관적이고 나열적인 묘사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때의 세대는 물론 사회의 어느 한 부분에 고정되지 않고 정치·경제·문화·종교 등 다양한 부분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곧 자신의 사상과 감정적 상태를 숨긴 채, 사회의 이러저러한 세태를 객관적으로 묘사해낸 작품들이 곧 세대소설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세대소설은 작가가 소설 속에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전통적 소설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설에서는 플롯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과 사상 등을 드러내게 하지만 세대소설에서는 묘사되는 현실 그 자체가 작가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함축해 보인다. 이때 세태의 단면들은 가감 없이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볼 때, 조성기의 기독교 작품을 두고 ‘세대소설’이라는 용어를 사

-
- 32) 조은정, 「손창섭 후기소설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2.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12.
문성국, 「손창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인간관계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2012.
박배식, 「손창섭의 세대소설분석 - <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회113』, 국어국문학회, 1995.
- 33) 최유정, 「박완서 세대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이은하, 「박완서 소설의 갈등 발생 요인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5.
김나정, 「장편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3.
공화순, 「박완서 소설 연구 : 전쟁, 세대, 가족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11.

용하는 데에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 곳곳에서 한국 현대사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작가의 논평 없이 제시되고 있고, 또 주인공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체험들이 직간접적으로 한국 종교계의 이러저러한 세태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들은 정치적, 종교적 세태에 대한 사실적 묘사로서 세태소설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기의 작품에 대한 세태소설적인 연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다. 그의 작품들을 “세태소설”로 구분³⁴⁾할 뿐, 그 개념에 따라 면밀한 작품분석을 수행한 예가 없는 것이다.

그간 작가 조성기의 기독교 작품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권영민³⁵⁾은 「존재의 인식에서 현실비판까지」에서 소설 『야훼의 밤』이 한 개인의 성장과정으로 표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작가의 경험적 자아의 형상이 한데 어울려져 소설적 감동을 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소설의 특징은 완결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간적인 문제를 향해 열려 있는 소설로서 성서적 이야기의 모티프를 바닥에 깔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남호³⁶⁾는 「70년대 젊음의 성장 체험」에서 이 작품이 일반적 의미의 성장소설과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첫째, 자서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해 소설적 변용이 희미하다. 둘째, 이 성장소설은 종교의 문제에까지 큰 관심을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대체로 삶의 근원적 방향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이고, 게다가 종교가 방향의 대상이 아니라 기존 질서로 채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성장소설과는 크게 다르다. 셋째, 주인공이 겪는 갈등이나 방향의 체계성이 약하므로 성숙의 단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 의미의 성장소설은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천착하기 때

34) 이남호, 「70년대 젊음의 성장 체험 - 조성기의 <야훼의 밤>」, 『문학의 위족2 - 소설론』, 민음사, 1990, 265쪽. “독자의 관심에 따라 성장소설, 종교소설, 상황소설”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영천, 「종말적 구원의 의미 - 조성기의 <라하트 하헤렙>」, 『새가정 384』, 새가정사, 1988, 120쪽. “평범한 생활체험에서 기독교적 의미를 얻어진 상황소설”,이요, “자전소설”로서 구분을 언급하고 있다.

35) 권영민, 「조성기론-존재의 인식에서 현실비판까지」, 『한국현대 작가연구』, 문학사상사, 1991, 453~461쪽 참조.

36) 이남호, 위의 책, 264-274쪽 참조.

성장소설이란, 어떤 주인공이 다양한 경험과 정신적 위기를 거치며 성숙하여 마침내 자기 동일성과 세계 안에서 자기 역할의 인식에까지 이르는 발달과정을 다루는 소설이다. 곧 미성숙한 개인이 세계에 대하여 눈뜨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서구문학에서는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 토마스 만의 『마의 산』, 서머셋 모옴의 『인간의 굴레』 등이 대표적인 성장소설로 꼽힌다.

문에 시대상황의 사회적 문제는 거의 무시되는 데 반하여, 조성기의 소설은 시대상황과의 연계성을 항상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독자의 관심에 따라서 성장소설, 종교소설, 상황소설 그 어떤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철하³⁷⁾는 「신: 초월에서 세속적 진실로-최근 세 종교소설의 가능성」에서 조성기 소설의 의미를 통과 제의적 작가의식의 싸움을 통해 추적한다. 그가 부딪친 본질적 고뇌로서의 종교와, 그가 통과한 젊음과 마음의 열병들이 작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행태에 관한 사회사적 기록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하³⁸⁾는 「신앙인의 길, 자유인의 길」에서 작가 조성기의 작품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자전의 면모를 느끼게 한다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의미를 밝힌다. 그의 작품이 개인적이고 세부적인 차원에서 작가의 삶과 내적으로 긴밀하게 통하는 어떤 ‘현실-허구 복합체’적 인간의 기록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특징으로 첫째, 작품이 완결되어 있지 않으며 열린 구조를 갖고 있다. 둘째, 통일성 혹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셋째, 자기미화를 철저히 배격하는 작가의 정직성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재선³⁹⁾은 「단핍과 열림의 상상력」에서 작가의 『가시둥지』는 감옥에서의 삶에 대한 수기적인 성격과 함께 그의 작품세계가 흔히 그렇듯이 종교적인 신앙 간증과 고백의 성격이 융합되어 있다고 말한다. 작품 전반이 감옥편에 해당한다면 후반은 기독교 신앙편이라고 할 수 있음이 그 근거가 된다. 그런 점에서 다분히 문학을 종교와 대체시키고 있는 듯한 종교 안전책 지향의 후반은 문학의 영역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임영천⁴⁰⁾은 「한계 상황의 극복과 개인의 인격 성장」에서 작품 『가시둥지』의 주인공이 아무리 가시둥지(교도소)에 갇혀 있는 몸이라고 하더라도

37) 신철하, 「신: 초월에서 세속적 진실로-최근 세 종교소설의 가능성」, 『푸른 대지의 희망』, 세계사, 1995, 258-286쪽 참조.

38) 이동하, 「신앙인의 길, 자유인의 길」, 『작가세계』, 세계사, 29집, 1996년 여름. 61-75쪽 참조.

39) 이재선, 「단핍과 열림의 상상력」, 『한국현대 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141-197쪽.

40) 임영천, 「한계 상황의 극복과 개인의 인격 성장」, 『새가정』, 새가정사, 376호, 1988.1, 126-131쪽.

도 그가 일단 진리(말씀)에 접하고, 그것을 신앙하는 이상 그 진리⁴¹⁾가 그로 하여금 자유하게 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한다. 진리에 의해 그가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그 가시등지조차도 그를 구속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교도소 담장 안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비상(날아다님)은 누가 막을 수 없다. 아울러 이 작품은 신앙고백과 전도의 목적으로 씌어진 것이 결코 아니면서도 두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 연구사를 살펴본 결과 본고에서 다룬 조성기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 텍스트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독자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를 수행한 논문은 지금까지 한 편도 없는 실정이다. 『한국 현대소설의 기독교 수용양상』, 『198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담론 양상』, 『성서모티프의 소설화 양상 연구』 등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조성기의 작품 한 두 편을 다른 기독교 소설들과 함께 대상으로 삼아 비교삼아 논의하고 있는⁴²⁾ 것이 현실이다. 즉 ‘한국 현대 기독교소설’을 연구하는 일환으로 송기봉, 강요열, 황효숙, 기애도, 천명은, 이기중 등이 조성기의 소설 중 한 두 편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천명은의 「성서모티프와 소설화 양상」은 구체적인 작품 분석보다는 성서 모티프들의 소설화 양상에 따른 작품들의 유형화에 목적을 둔다. 그에 따른 모티프의 형상화 방식으로 직유·은유·인유·상징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성기의 작품은 『야훼의 밤』의 주인공이 은총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종을 찾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유사하게, 이기중은 「작가의 성화에 관한 연구 - 김현승, 조성기의 경우」에서 조성기 작가의 삶과 문학을 4기에 걸쳐 구분한다. 제1기는 문학가로 부르신 기간이며, 제2기는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를 공급하신 기간, 제3기는 영육을 부흥하신

41) 요한복음 8: 31-32절,

42) 송기봉, 「한국 현대소설의 기독교 수용양상 : 전영택, 백도기, 조성기소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강요열, 「한국 현대 기독교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황효숙, 「한국 현대 기독교소설 연구 1960-19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08.

기애도, 「198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담론 양상」,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2009.

천명은, 「성서모티프와 소설화 양상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1.

이기중, 「작가의 성화에 관한 연구, 김현, 조성기의 경우」, 백석대학교 석사논문, 2008.

기간이다. 그리고 제4기는 목회사역으로 인도하신 기간이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작가 자신이 창작활동을 통해서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조성기 문학의 단계별 분류 작업 외에 구체적인 작품 분석은 현격히 미비하다.

연구자가 아닌 현장 평론가들의 분석 역시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조성기 작품을 거론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정은 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결국 조성기의 전체 작품 세계와 주요한 텍스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조성기의 문학세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미진한 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조성기의 작품들이 ‘기독교 소설’로서 작가의 체험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소설에 가까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학’의 범주 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고 있다.

둘째로 조성기의 문학에서 기독교 교리는 창작의 구성 원리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을 ‘신앙 간증과 고백적’인 구조를 벗어나 신학적 차원에서 연구한 사례가 많지 않다.

셋째로 조성기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소시민들의 다양한 층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 종종 무시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작품의 형식이나 구조를 살펴보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마는데, 이유는 그의 작품 전체를 두루 아우르는 연구가 아닌 한두 편에 대한 연구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로 조성기 작품은 한국 기독교의 세태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세태를 역사적 사실성 위에서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임화나 김남천 등이 말한 세태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을 세태소설이란 범주로 분류한 예만 있을 뿐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한 예는 없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성기 소설들 중 기독교 소설로서의 의의가 다분하다고 생각되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우선 신학적 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텍스트에서 관철되고 형상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상 그의 작품 세계는 ‘중생’, ‘성결’, ‘신유’의 교리로 설명 가능한 성장서사들이 자주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기독교 문학 일반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조성기의 기독교 문학에 고유한 특징으로 보인다. 본고
가 작품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게 될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그의 작
품에는 종교적 성장소설과 맞물린 세태소설적 측면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
여 그의 작품을 한국 사회의 정치적 세대 및 한국 기독교의 세대와 관련하
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조성기는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만화경」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한다. 다음해 군대에 입대한 그는 군중병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때의 체험을 소설화한 작품이 『라하트 하헤렙』이다. 1985년 『라하트 하
헤렙』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다. 1986년 7월에 『길갈』을 발표하
고 그로부터 두 달 후에 『하비루의 노래』를 발표한다. 와중에 1983년
『소설문학』지 공모 입상작인 『자유의 종』을 대폭 손질하여 『갈대바
다 저편』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하기도 한다. 이상 『갈대바다 저편』,
『길갈』, 『하비루의 노래』 세 편이 모여 『야훼의 밤』 3부작을 이룬다.
거기에 2년 후에 씌어진 『회색 신학교』가 더해지면서 『야훼의 밤』은
총 4부작의 대하소설로 완성된다. 이어 그는 그의 주요 기독교 소설들인 『
가시둥지』와 『베데스다』 등을 발표하고 『우리 시대의 소설가』(1991
년)로 제15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한다. 이후 그는 동양고전의 세계와 성
(性)의 문제 등으로 관심의 영역을 넓히면서 작품 영역⁴³⁾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 작품들 중 1980년대에 씌어진 4편⁴⁴⁾의 기독교 소설들(『

43) 조성기는 네 편의 기독교작품 이후 1988년 우리시대의 정치상황, 사회상황을 다루는 『왕
과 개』를 출간한다, 1989년에는 『천년 동안의 고독』을 출간하는데 이것은 『삼국유사』의
소설화 작업의 신기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작가의 문학적 관심 방향에 '서양에서 동양으로
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에는 초나라 시인 굴원을 소설의 중심인물로 부각시키는
『굴원의 노래』를 창작한다. 그는 『우리시대의 ……』라는 제목으로 이어지고 있는 연작의
형태에서 현실을 포괄하는 힘을 찾고자 한다. 「우리시대의 무당」·「우리시대의 범정」·「우
리시대의 사랑」등으로 이어져온 연작들은 파편화된 현실, 황폐해지고 있는 우리시대의 면모
를 총체적으로 조감하고자 하는 포괄성을 갖고 있다. 양진오, 「신과 인간 사이에서 생성된
문학세계」, 『작가세계』, 1996 여름호, 30~31쪽 참조, 권영민, 「조성기론-존재의 인식에서
현실비판까지」, 『한국 현대 작가연구』, 문학과 사상사, 1991, 459쪽 참조.

라하트하헤렙』, 『야훼의 밤』 4부작, 『베데스다』, 『가시등지』)을 하나의 연작 작품으로 완결한 『에덴의 불칼 1~7』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연작 7부작 『에덴의 불칼』의 원텍스트에 해당하는 『야훼의 밤 1~4』, 『베데스다』, 『가시등지』, 『라하트 하헤렙』을 참고할 것이다. 연작으로 묶이기 전, 이들 작품에서 작가는 “작가의 말”을 통해 작품의 독해 방향을 친절히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90년대 초부터 그의 작품 경향에 일정 정도 변화를 보인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1980년대에 발표된 그의 작품들에 주된 논의들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성기 문학에서 이 네 편의 작품들이 연결된 『에덴의 불칼』⁴⁵⁾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작품들이고 한국 기독교문학사에서도 수작에 들 만한 작품들이다. 본고가 다른 작품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러나 논의에 필요할 경우 작가의 대담과 평론, 그리고 수필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도 함께 거론하게 될 것이다.

본고의 서술 순서는 아래와 같다.

Ⅱ장에서는 한국 기독교 문학의 전개와 흐름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독교 문학의 개념’과 ‘기독교 문학의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곧 ‘기독교 문학’이란 작품의 소재나 주제를 기준에 의해 구별 가능한 것에 대한 명칭으로 이해하며, ‘문학’이라는 상위개념 아래에 존재하는 하위개념을 부르는 명칭임을 살펴본다. 따라서 1950년대에 전영택이 처음으로 거론한 ‘기독교 문학’의 개념을 통하여 ‘무의식적인 기독교 문학’이 이상적인 이론임을 고찰한다. 이러한 기독교 문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기독교 문학의 양상을 고찰 할 것이다. 여기에서 기독교 문학을 크게 3기로 구분 지으며, 이 속에서 1970~80년대 한국 기독교 문학과 조성기 문학의 중요성을 살핀다. 더불어 일반적인 세태소설과 달리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작품화된 세태소설로서의 『에덴의 불칼』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다.

Ⅲ장에서는 『에덴의 불칼』이 넓은 의미에서 한 주체가 온전한 신앙을

44) 조성기는 자신이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공동체의 교회를 소개하는 곳에서 “자신의 중요한 기독교 작품으로 『야훼의 밤』, 『가시등지』, 『베데스다』 등의 작품이 있다.”라고 가시화하고 있다. <http://www.sanul.or.kr>

45) 『에덴의 불칼1~7』을 2장에서부터는 작품 전권을 제시할 때는 『에덴의 불칼』로 표기하며, 1권에서 7권에 이르는 작품은 「갈대바다 저편」, 「라하트 하헤렙」, 「길갈」, 「하비루의 노래」, 「회색신학교」, 「베데스다」, 「가시등지」로 표기한다. 본론에서도 작품의 첫 부분과, 각주의 부분에서도 첫 부분만 『에덴의 불칼』을 표기하도록 한다.

터득해 가는 과정에 대해 다룬 성장소설임을 설명하고, 그 성장의 서사를 기독교 복음의 교리들 중 중생, 성결, 신유의 원리에 따라 해석할 것이다.

1절에서는 조성기 소설의 기독교적 창작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 복음의 ‘중생’이 작가의 창작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장서사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주로 다루게 될 작품은 『에덴의 불칼 제1부, 갈대바다 저편』으로, 이 제목에서 상징하고 있는 모티프를 통하여 주인공의 삶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메시지를 추출한다. 아울러 『에덴의 불칼 제4부, 하비루의 노래』를 대상으로 다양한 하층민(민중)들이 구원에 이르는 서사 과정과 작품 『에덴의 불칼 제7부, 가시등지』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공간 속 죄인의 구원 양상이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방식을 탐구해 본다. 작가의 구원 과정과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구원 과정을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중생’에 대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살피는 것이 이 절의 내용이다. 그리고 주인공의 내면에 기독교의 구원론이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구원의 통로가 되는 기독교 교리의 서사적 전달 방식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2절에서는 기독교 성장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또 조성기의 작품 세계에서도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는 ‘성결’의 가치에 대해 분석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들의 삶을 기독교의 내재적 시선으로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그의 기독교문학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초월적 신과 현실적 인간의 치열한 갈등 구조들을 신학 이론으로 조명해 볼 것이다. 먼저는 작품의 주인공이 ‘성결’의 과정 가운데 끝없이 갈등하는 양태를 살핀다. 특히 성결의 삶을 실천하는 목회(신학생, 군중, 공동체의 지도자)자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다루게 될 작품은 『야훼의 밤 제5부, 회색신학교』로서 신학생인 주인공이 성결한 삶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이외에도 작품 『에덴의 불칼 제2부, 라하트 하헤렘』, 『에덴의 불칼 제3부, 길갈』에서 나타나는 신앙적 갈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요약하자면 이 절에서는 주인공의 ‘성결’에 대한 성장서사가 갈등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핀다.

3절에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신유’의 복음과 관련하여 조성기의 작품을 살핀다. 인류에게는 개

인의 차원이든지 공동체의 차원이든지,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작가의 작품 『에덴의 불칼 제6부, 베데스다』는 주인공의 정신질환을 치유키 위한 여정과 사회의 병리적 현상들에 대한 치유책이 형상화되고 있다. 신유의 신학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작품 『에덴의 불칼 제1부, 갈대바다 저편』을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이 구원의 체험으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유’에 의해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작품 『에덴의 불칼 제7부, 가시둥지』의 주인공이 성화의 과정으로 점진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신유’의 교리로 건강을 회복하며,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서사과정을 고찰한다.

IV장에서는 조성기 작품을 한국 기독교의 양상과 한국 정치의 역사적 사실성의 묘사적 구조를 세태소설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1절에서는 조성기 소설에 나타난 한국 기독교의 양상을 살핀다. 주인공 성민이 만나는 가족, 동료, 여인 등을 통하여 작가가 기록한 여호와의 증인, 순복음 교회, 무교회주의 등의 교리와 사상을 통하여 한국 종교의 세태를 살펴본다. 이러한 종교의 세태 묘사를 통하여 이상적인 교회로 등장하는 무교회와 주인공이 다니는 선교단체를 살핀다. 또한 성민이 다른 종교, 즉 장자와 노자의 사상을 신학과 비교 분석하기도 하고 한국의 신흥종교들에 대해 고뇌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70년대 한국기독교를 부흥성장하게 하였던 현신애 권사와 조용기 목사에 대한 작가의 묘사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2절에서는 조성기 소설에 나타난 한국의 정치적 세태를 살핀다. 조성기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으로 4·19혁명에서 5·18민주화 운동까지를 두루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1961년 5·16에서 1979년 10·26일까지를 작품의 시대적 배경으로 담고 있는 『에덴의 불칼 제6부, 베데스다』를 통해 한국사회의 혼란기를 종교적 관점에서 읽어보며, 『에덴의 불칼 제7부, 가시둥지』를 통해서 작품의 특수한 공간적 배경도 살핀다.

V장에서는 기독교 성장·세태 소설로서의 『에덴의 불칼』을 전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조성기 문학의 특성을 살핀다.

1절에서는 기독교 성장소설의 전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조성기의 작품에서 중생, 성결, 신유의 신학적 교리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조성기의 기독교

교 문학이 한국 기독교 문학의 일반적인 형식이나 주제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곧 기독교 성장소설로서의 조성기 문학의 특수성을 고찰한다.

2절에서는 기독교 세태소설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성기의 문학이 역사와 시대를 세태소설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작품들이 1970~80년대의 한국기독교의 양상과 한국 정치의 세태를 반영하는 작품임을 요약할 것이다.

Ⅱ. 한국기독교 문학과 조성기

1. 기독교 문학의 개념과 양상

‘기독교 문학’이란 작품의 주제나 소재를 기준에 의해 구별 가능한 일군의 작품에 대한 비평적 명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이라는 상위개념 아래에 존재하는 ‘기독교적 요소를 형상화한 문학’을 묶어 말하는 하위개념을 ‘기독교문학’이란 명칭으로 부를 수 있다는 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 형태의 문학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적인 사상을 드러낸 것으로서 기독교라는 역사적, 이념적, 윤리적 기반과 문학이라는 감각적, 체험적, 형상적 양식이 하나의 작품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⁴⁶⁾을 ‘기독교 문학’이라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문학’을 처음 한국에서 거론한 이는 1950년대의 전영택을 최초로 들 수 있다.

‘기독교 문학’은 1950년대에 문학적 비평용어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파생된 ‘기독교 문학’ 개념에 대한 이상적인 정의로,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학’, 그리고 ‘호교론적 기독교 문학’을 들 수 있다. T.S.엘리어트는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학’ 작품이야말로 시대와 생활을 포기하지 않은 기독교 문학의 모범이라고 본다. 이는 기독교 의식의 내면화와 관련되는데, 기독교의 교리가 표면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작품 속에 내면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엘리어트의 요지다. 그는 이런 기준에 따라 ‘종교 문학’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기도 한다. 첫째는 문자로 기록된 기독교 문헌 전부를 종교 문학의 범주로 본 것으로 광의의 종교문학이라 부를 수 있는 범주이다. 둘째는 시의 모든 주제를 종교적 정신에 입각하여 다루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제한된 부분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로, 그는 이 역시 넓은 의미의 ‘종교 문학’ 테두리에 포함시킨다. 셋째는 종교의 대의를 전파하는 데 성심껏 노력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문학 작품을 지칭한다. 그는 이를 호교론적인 기독교 문학이라 부른다.

물론 그가 보기에 최상의 기독교 문학은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학을 지칭한다.⁴⁷⁾ 반면 ‘호교론적인 기독교 문학’은 문학으로서 가장 바람직

46) 유성호, 「한국 현대문학과 종교적 상상력」, 『문학과 종교』 제8권 2, 문학과 종교학회, 2003. 18쪽.

47) 토마스 스텐스, 엘리어트. 최중수 역, 『문예비평론』, 박영사, 1974, 98~103쪽 참조.

스럽지 못한 기독교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기독교 문학’을 통하여 문학적 형상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기독교의 신앙과 이념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곧 그것은 기독교를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학을 사용하는 폐쇄적인 문학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본고에서는 엘리엇가 말한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학을 ‘기독교 문학’에 대한 넓은 정의로 받아들인다. 우선은 논리적으로 가장 합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정의가 특히 기독교 문학의 범주를 폐쇄적인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열린 개념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고의 논의 대상인 조성기의 작품이야말로 그와 같은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학의 모범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기독교 문학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기독교 문학의 양상을 고찰 한다.

기독교의 선교활동⁴⁸⁾과 성서 번역은 한국의 신문학과 근대 문학 초창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근대 초창기 성서의 한글 번역과 찬송가 편찬사업⁴⁹⁾은 1882년에 시작되어 1910년에 완결을 보았다. 이에 따른 성서 보급은 기독교사상의 토대를 형성하는 대중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

48) 한국 근대화의 실질적인 실현은 新敎를 통하여 서구 문물이 이 땅에 전달되면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1883년 韓美通商修好條約이 체결되면서, 알렌(의료선교사), H.G.언더우드(1885), W.B. 스크랜톤 부부(1885), H.G.아펜셀러 부부(1885), 헤론 등이 서울에 들어왔다.

그리하여 스크랜톤은 施病院을 개설하고, 아펜셀러는 培材學堂(1885)을 스크랜톤 부인은 梨花學堂(1885), 언더우드는 敎新學校(1886)와 貞信女學校(1886) 및 延禧專門學校(1886)를 창설하였다. 조신권, 「韓國 近代文學 形成期와 基督教」, 『신학지남』, 신학지남사, 제43권, 1976. 3. 103쪽.

49) 김병철, 『韓國近代翻譯文學史』, 을유문화사, 1975.

김영덕, 「한국 근대적 문학배경과 기독교」, 『이화여대 80주년 기념논문집』, 이화여대 출판부, 1966.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89.

나동광, 「성서와 한글문학」, 『기독교와 한국문학』, 신지서원, 1998.

성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816년에 漢文本이 들어왔고,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한문 성서가 들어왔지만,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 것은 1882년에 간행된 국문판 성서이다. 이것은 만주 우장에서 영국 선교사 로스(John Ross)목사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목사 및 그 조수들인 이용찬, 김진기, 백홍준 등과 함께 1876년에서부터 순 한국어 번역에 착수하여 1880년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하였고 그것을 1882년에 출판하였다. 그 후 1887년에는 신약전서가 전부 번역되었다. 1910년에는 구약전서가 번역되어 이 해에 新舊約전부가 한국어판으로 출판되었다. 이에 따른 성서의 보급은 1911년 신·구약 합본이 발행된 첫해에만도 8,000부가 매진되었고, 선교보급용 한글성경 발췌본은 100만부나 배포되었다고 한다. 박안진, 『한국 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73.

다.⁵⁰⁾ 이후 기독교사상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기반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문학사의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

그러나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기독교가 자유롭게 포교되기 까지 거의 200년에 이르는 사옥(邪獄)의 연속⁵¹⁾ 시기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문헌상으로 볼 때 기독교(천주교)와 최초의 접촉을 가진 이는 17세기 초, 당시로서는 이단적이며 급진적 지식인이었던 허균⁵²⁾이다. 그는 1610년 외교사절로 연경(燕京)에 가서 ‘계12장(偈十二章)’(12종류의 기도문)을 가져왔다, 비슷한 시기에 이수광은 3차례에 걸친 중국사행을 통하여 얻은 견문을 토대로, 그의 저서 「지봉유설」에 마테오 릿치의 「천주실의」 등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초기 실학과 학자들인 이익, 안정복은 서적을 통해 서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독실한 신앙인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천주교)는 19세기 말 개신교 선교와 성서 번역으로 한국 근대문학의 이후 발전을 위한 터전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 초 근대적 기독교사상 속에서 형성된 문학작품은 실명을 알 수 없는 저자의 「몽조(夢潮)」⁵³⁾와 안국선의 정치소설 「금수회의록(禽獸會議錄)」⁵⁴⁾, 그리고 이광수의 계몽소설 「무정(無情)」 등을 들 수 있다. 이

50) 이인복, 「韓國小說에 受容된 基督教思想研究 (1)」, 『월간문학』, 1987. 1. 282쪽.

51) 4차례(1801년 辛酉邪獄, :이승훈과 정약중 중국인 주문모신부(외국인 성직자 최초로 순교) 등을 참수, 1839년 己亥邪獄: 앵베르주교, 모방, 샤스탕신부(서양 성직자 최초 순교)참수. 1846년 丙午邪獄 :한국인 최초의 신부 김대건 처형됨. 1866년 丙寅邪獄 : 남종삼, 홍봉주 및 벨누 등 9명의 불란서 선교사를 처형함.)에 걸쳐 連人員 2만명 이상이 순교하면서도 신자수는 점증하였다. 이인복, 위의 책. 277쪽 참조. 한국기독교사 연구회, 위의 책, 360~362쪽 참조.

52) 이상보, 「허균과 기독교」, 『한국문학전집 I』 새시대 문학사, 1972, 353쪽.

황양수는 조선의 기독교 문학은 허균의 「홍길동전」이 그 발아기의 정점을 이룬다며, 한국 기독교 문학의 연원과 형성과정을 제시한다. 황양수, 『한국기독교 문학의 형성연구』, 기예문관, 1989.

53) 『몽조』는 1907년 7월 4일부터 皇城新聞에 24회에 걸쳐 발표된 작품이다. 한국문학사에 기독교사상이 반영된 최초의 작품으로 이재선은 <한국개화기 소설연구>(일조각, 1972)에서 밝히고 있다. 이 작품의 저자는 槃阿라는 필명이 전할 뿐 아직까지 실명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품 『몽조』는 기독교사상을 반영한 신소설로서 비교적 근대 소설의 체제를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복음 해설조의 설교투 문체에 주인공이 쉽게 기독교에 경도되는 것은 다분히 작위적이나, 당대 기독교가 급격히 한국 사회에 전파되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개화란 곧 기독교의 전파와 동일한 의미였던 것이다.

54) 『금수회의록』 「폐회」부분에 ‘예수씨’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예수를 신격화 할 때에는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안국선은 기독교사상의 육화적 교리(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의 육화라는 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을 회개하면 구원을

와 같은 초기 성과물들에서 중요한 것은 서구의 기독교가 민족주의와 강력하게 결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광수는 기독교 사상을 우리문학에 반영하기 시작한 선각자로 볼 수 있다. 그는 작품 『무정』⁵⁵⁾뿐만 아니라 저널 비평의 형식을 통하여 한국문학과 기독교에 관하여 선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 특히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⁵⁶⁾에서 초기 신문학에 끼친 기독교 문헌의 문학적 공헌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한국문학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처음으로 언급한 글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광수에 이어 기독교사상이 신문학 작품에 꽤 깊은 수준에서 내면화된 것은 전영택의 작품들에서이다. 그의 작품에 반영된 사상과 방법⁵⁷⁾은 이광수의 경우와는 확실한 차이를 드러낸다. 기독교적이고 계몽적인 주제 의식의 생경한 노출을 자제하고 자연스러운 서사를 통해 이를 전달하고 있는 전영택의 작품들은 신문학사의 빠른 발전과 새로운 문예사조의 수입, 그리고 정교한 기법들의 출현 등의 현상과 관련하여 생겨난 사실들의 반영⁵⁸⁾이기도 할 것이다.

받을 수 있다는 구원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금수회의록』은 안국선이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우화적 형식으로 풍자하여 쓴 소설이다. 작품 속 ‘서언’과 ‘폐회’ 부분은 특별히 작가 안국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선각자였음을 입증한다.

55) 김병익, 「韓國小說과 韓國基督教」,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79, 32쪽 참조, 백철, 김상선, 「한국현대 작품에 반영된 기독교 정신」,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제3권 제5호, 1959.5. 14~15쪽 참조

백철, 「춘원 문학과 기독교」,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제8권 제3호, 1964.3. 48쪽 참조.

명계용, 「기독교 문학의 형성과정」,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제14권 제7호, 1970. 7. 156쪽 참조.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1917년1월1일 ~ 6월4일)될 당시에는 화제만큼이나 논란도 컸다. ‘부도덕한 작품’이라는 중장년 독자층의 비난을 반박하는 연설회가 열리기도 했다. 유럽은 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증추원에 「무정」의 연재를 중단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새로운 시대사조를 반영해 청년남녀의 신연애관과 이에 따른 변민과 갈등을 옮겨놓은 장편이 박선희, 「동아일보 속의 근대 100 景」,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2010.2.5.

이인복, 앞의 책, 289쪽 참조.

56) 이광수,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 『청춘』 9호, 1917.7. 7쪽. 재인용.

57) 전영택의 작품은 기독교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선행시키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자연스러움을 지니고 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의 성격 또한 대부분 소박한 평민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들의 순박성은 작가의 평민적 생리의 반영이기도 하겠지만, 한편 의식적인 인간성의 추구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영택의 종교성은 본질적으로 평민의식과 자연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우규, 「한국기독교 작가론(상)」,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제4권, 제1호, 1960.1. 54쪽.

58) 백철, 김상선, 위의 책, 18쪽 참조.

식민지 시대 정신사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다른 작가들로는 단연 염상섭과 김동리를 들 수 있다. 염상섭은 「삼대」⁵⁹⁾를 통해 식민지 시대의 부조리한 민족 현실을 파헤친다. 특히 그가 기독교를 소재로 들어와 현실적 허구와 패배를 묘사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동리의 「무녀도」⁶⁰⁾는 기독교가 전래의 토속 신앙인 샤머니즘과 충돌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의 문학관에 대한 흥미 있는 종교적 해석을 보여준다. 이 두 작품은 기독교가 이 땅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잘못 이해되고 있으며, 어떤 허구화 작업을 통해 그 자체의 본래적인 실상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시사해 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⁶¹⁾

식민지 시대를 경과한 후 맞은 1950~60년대 한국의 문학적 현상은 두 가지 대립과 갈등으로 집약되어 있었다. 즉 이념과 상징, 참여와 순수, 내용과 기교, 시민의식과 소시민의식 등의 이항적인 대립이 그것으로, 전쟁의 상흔과 현실 비판의식, 역사의식 등이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잡는 것이 이 시기이다. 이러한 문학적 현실에서 기독교 문학이란 용어는 여전히 생경⁶²⁾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곧 기독교 문학과 사상을 오래 외래사조로 치부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학 이후의 시와 소설에서 기독교 정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작업은 일정 정도 결실을 맺었는데, 그 결과 ‘기독교 시’(혹은 신앙시)와 ‘기독교 소설’⁶³⁾이란 규정이 새로이 자리를 잡고 양자가 어울려 ‘기독교 문학’이란 울타리를 형성했다.

특히 60년대 이후부터는 기독교 문학에 대한 논의들이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기독교사상》은 1957년 창간호⁶⁴⁾에서부터 <기

59) 염상섭의 「삼대」는 1931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60) 김동리의 「무녀도」는 1936년 <중앙> 5월호에 발표된 소설이다.

61) 김병익, 앞의 책, 34~35쪽 참조.

62) 최규창, 「한국 기독교 문학의 형성과 구체화」, 『기독교 사상』, 대한기독교 서회, 350호 1988.2.34쪽.

63) 김우규는 『기독교 사상』에 1959년 11월호부터 3회에 걸쳐 발표한 “한국 기독교 작가론”에서 본격적인 “기독교 소설론”을 규정하였다.

64) 창간호가 발표된 이 후, 1959년 5월호는 「기독교와 현대문학」을 특집으로 꾸미고 백철과 김상선 「한국 현대작품에 반영된 기독교 정신」, 김영수 「사막과 선인장 - 한국의 기독교 시 이론」, 홍현실 「현대 문학에 저류하는 종교정신과 모랄」, 주태익 「기독교 연극을 제창함」, 임영빈 「한국 기독교 문학이란」 등을 등재함.

<기독교 문학>이란 논의를 일반잡지인 『동서문학』의 경우 1987년12월호에서 「엔도우 슈사쿠의 기독교문학」에 대한 특집을 꾸미고, 그를 ‘순수와 대중문학을 넘나드는 카톨릭작가’로 지칭했다. 『월간문학』도 1987년11월호에서 이운용의 「자연의 의미와 기독교 시」란 제목으로 박두진의 초기시를 분석하고, 1988년 1월호에서는 신규호의 「목월시의 기독교적 기

독교 문학>에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적 상황에 즉자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기독교 문학’ 그 자체의 이론적 정립에 몰두하였다. 전영택은 창간호에서 “종교와 문학은 사람의 본연의 생활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종교문학인 기독교 문학은 사람의 가장 궁극적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⁶⁵⁾라고 「기독교 문학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참으로 획기적인 발언이라 할 만하다.

김우규는 1959년 《기독교사상》지의 「기독교 소설론」에서 기독교 소설이란 용어의 범주를 ‘신학적 비평과 문학적 비평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인정되는 작품’을 기준점⁶⁶⁾으로 삼아 논의한다. ‘신학적 비평’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리스도교적 테마를 취급한 작품’을 일컬음이고, ‘문학적 비평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작품자체가 일종의 문학적 매개를 통해서만 종교적 목적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한국에서의 기독교 문학에 대한 논의로서는 이전의 논의들에 비교해 한 단계 도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유구한 전통을 가진 서구의 기독교 문학 논의와 비교해 볼 때 그렇다. 서구 현대 문학사에서 기독교문학의 범주 정립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L.라이킨은 기독교문학에 관한 한 대표적인 논저로 꼽히는 『상상의 승리 : 기독교문학 입문서』⁶⁷⁾에서 기독교문학의 개념·독자·비평·문학성 등에 관한 입장을 폭넓게 제시한 후,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학적 형식이라고 하며, 미학이나 작가의 상상력 모두 성경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우규의 논의가 서양의 기독교 문학론에 근접한 것임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기독교 문학 논자인 임영천은 「기독교문학 논의의 관점에 대하여」⁶⁸⁾에서 ‘기독교문학’은 “외부 세계(자연), 독자, 작가, 작품 자체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그 자격(성립)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 이 모든

결」이란 평론을 게재하였다. ‘현대문학’속에 새로운 체계를 세우고 있는 <기독교 문학>이라는 맥락이다. 최규창, 위의 책, 33~35쪽 참조

65) 전영택, 「기독교 문학론」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제1권, 제1호, 1957. 8. 66쪽.

66) 김우규, 위의 책, 53쪽.

67) 최종수역, L.라이킨, 『상상의 승리 : 기독교문학 입문』, 성광문화사, 1982.

68) <외부 세계>를 “모방론 또는 반영론”, <독자>를 “효용론 또는 실용론”, <작가>를 “표현론”, <작품>을 “객관론”으로 규정하면서 기독교 문학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임영천, 「기독교 문학 논의의 관점에 대하여」, 『기독교문학과 현대 평론』, 국학자료원, 2002, 98~108쪽 참조.

것들이 서로 얽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기독교문학 작품을 이루기 때문에 항목 하나하나를 엄격히 분리해 판단하기보다는 종합적 관점에 의해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하리라”고 함으로써 기독교 문학과 관련된 논의를 보다 확대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기독교문학의 형성과정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⁶⁹⁾들이 작가 중심으로 있어 왔다.⁷⁰⁾ 그리고 최근에는 기독교 문학론에 관한 저술⁷¹⁾들 또한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할 때 한국 기독교 문학의 역사적 변모 양상은 크게 3기⁷²⁾로 구분 할 수 있다.

제1기는 개화기부터 1920년대까지로 이 시기 ‘기독교 문학’은 성경의 부분적인 활용을 주로 하였으며, 자주독립에 대한 지식의 각성으로 독자들에게는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심어주는 ‘계몽적인 문학’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2기는 193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로서 이 시기 ‘기독교 문학’은 주로 소재론적인 차원에서 접근되는 경향을 보인다. 성경과 기독교를 문학적 소재로 활용하기는 했으나 제대로 육화되지는 못한 채 삽입적이거나 묘사적인 도구 수준에서 차용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이 시기 기독교 문학의 특징이다. 특징적인 것은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이 전통적인 샤머니즘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습합 속에서 신의 존재를 아직 샤머니즘적인 존재 수준에서 사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69) 대부분의 글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소설가로는 이광수, 전영택, 김동인, 염상섭, 김동리, 김팔봉, 황순원, 이문열, 이승우, 백도기, 윤홍길, 조성기 등을 들 수 있다.

70) 홍문표, 「기독교문학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 『기독교문학과 현대 평론』, 국학자료원, 2002, 64쪽 참조.

71) 김영수, 『기독교와 문학』, 신원출판사, 1977.

김희보, 『한국문학과 기독교』, 현대사상사, 1975.

조신권, 『성서문학의 이해』,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8.

이인복, 『한국문학과 기독교사상』, 우신사, 1987.

임영천, 『기독교와 문학의 세계』, 대한기독교서회, 1991.

_____, 『한국 현대문학과 기독교』, 태학사, 1995.

최종수, 『문학과 종교와의 대화』, 성광문화사, 1987.

72)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독교 문학’의 논의를 고찰할 때, 시대적 구분을 크게 3부분에서 5부분으로 분류한다. 최은주는 논문 『한국 기독교 소설 연구』에서 시대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민족의 현실 반영시기(개화기~1920년), 타세계관과의 갈등시기(1930년~1960년), 기독교적 구원제시 시기(1970년~현재까지)로서 시대를 구분한다. 본고는 여기의 논의에서 5부분의 구별보다는 3부분의 분류가 변별성을 확연히 드러내므로, 시대를 3기로 정리하였다.

제3기는 197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로 기독교가 토착종교인 샤머니즘 문화 위에 정착되는 시기이다. 소재 차원에 머물렀던 기독교가 신의 본질을 묻는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작품의 창작에 이르게 된 것이 이 시기이다.

이상 한국 기독교 문학을 사적으로 개관함으로써 조성기의 기독교 문학은 1970~8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제3기의 문학적 특성을 고찰 할 수 있다. 그는 기독교 문학을 통하여 인간실존에 대한 부조리와 종교 실존의 문제를 형상화하며, 무엇보다도 시대사적 배경을 통하여 한국 교회사와 한국 정치적 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의 구조를 설정한다.

2. 1970~80년대 한국 기독교 문학과 조성기 문학

조성기는 한국 기독교 문학사의 제3기(1970년대에서 오늘까지)에 속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70년대에 경제적, 정치적, 종교(기독교)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다. 급격한 근대화애 따른 사회구조의 불안정, 사회 병리현상의 증대, 공동체의 붕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된 시기가 이때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개방적인 신학자들로 하여금 민중 신학⁷³⁾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게 만들었다. 당연히 70년대의 한국 기독교는 한국 문학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친다.

1970년대 한국 문학의 주류는 민족문학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960년대 순수 참여론이나 전통론이 갖는 도식적인 논리를 넘어서면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민족문학론⁷⁴⁾은 80년대 들어오면서 민중문학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민중문학론은 민족문학론 속에서 문학의 창작 주체가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는가의 논의들로까지 이어진다. 이에 민중문학은 문학적 이

73) '민중 신학'은 그 형성배경을 한국사 1970~80년대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민중들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기존체제의 교회로 인해 왜곡되고 변질된 성서의 이해를 우리 토양의 잣대로 새롭게 해석함을 통해 이 땅의 민중에게 구체적 복음을 제시하고자 한 신학 조류이다. 장여옥, 『권정생 동화 연구-민중 신학적 관점에서』,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08, 5쪽.

74)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4, 221쪽.

'민중문학론'은 그 역사적 실체가 식민지 체험 속에서 반봉건, 반식민지의 민중적 의식의 문화적 표출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통위에서 민중적 의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민족 생존권의 수호와 함께 민중의 각성된 인식과 실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특유의 능동성을 지녀야한다. 민족문학론의 방법은 리얼리즘과 제3세계 문학론 문학적 실천주체로서의 민중론의 확대이다.

념으로서의 민중의식과 그 실천주체로서의 민중의 존재를 문제 삼는 데서 출발한다.⁷⁵⁾

한국 문학이 큰 변화를 겪던 1970~80년대에 기독교의 사회적 참여는 민중 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다시 인간 실존의 문제를 거론하는 입장과 교회의 양적 성장에 기반을 둔 전통 신학적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이 두 입장은 기독교 문학에 있어서도 두 가지의 양상을 배태한다. 먼저는 인간 실존에 주목한 기독교 작품들로서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1973), 백도기의 『청동의 뱀』(1974), 서기원의 『조선백자 마리아 상』(1979), 이문열 『사람의 아들』(1979), 정을병의 『달려라 바리새인』(1981), 이승우의 『에릭직톤의 초상』(1981)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전통 신학적인 입장에서 씌어진 작품들로는 정연희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1983), 김성일의 『땅 끝에서 오다』(1983), 『땅 끝으로 가다』(1984),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1985)등을 꼽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로 성경의 모티프를 소설화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일상의 영역에 성경적 의미를 투사하여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주요한 경향이다. 아울러 이 흐름의 작품들은 인간 실존과 개인적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따르려는 의식을 보여주며, 기독교를 배경으로 작품을 구조화한다.

이 두 갈래 흐름 사이에서 조성기의 문학은 예외적인데, 그는 양자를 두루 아우르는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로 얻어진 그의 1980년대 작품들은 성경의 모티프로 개인과 사회와 민족의 문제를 직시하며 그 속에서 대안을 찾아간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현실에 입각하여 시대와 상황에 대한 문학의 역할을 자각한 작가의식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결합해 사회적 종교 문학의 모범을 보인다.

이 시기 대부분의 기독교 문학 작가들은 인간 실존의 문제와 초월적인 신 양자 사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작품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성기는 편향적인 세계를 탈피하여 성경의 모티프를 자신의 문학적 원형으로 간주하되, 그 속에서 인간실존의 문제를 찾고 신학적인 본질에 근거하여 공동체에서 파생되는 근본적인 부조리함을 독자로 하여금 판단토록 하는 열린 사유를 모색한 작가였다.

75) 허인영, 「1980년대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식」, 『도술어문학』, 도술어문학회, 1997, 183쪽.

본고는 우선 조성기의 기독교 문학 작품의 창작방법과 그의 창작배경 및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 이해에 있어 작가의 삶을 먼저 살피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문학 작품은 그것을 생산한 인물의 삶과 분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바르트처럼 언어가 말하지 작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며, 문학텍스트 안에 포함된 전체 의미역(域)을 깨달으려면 작가 중심적 방법론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⁷⁶⁾하는 이도 있다지만, 조성기처럼 실제 삶과 작품세계간의 연관성이 강한 작가에게 저 말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조성기의 작품 세계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강하게 영향 받고 있어서 소설의 창작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신앙과 관련된 전기적 사실들을 더듬어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조성기의 작품 세계가 기독교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는 하나 종교와 문학이 매개 없이 동일화될 수 없다는 사실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문학의 창작유형과 종교의 창작유형은 다르다는 점이 미리 전제되어야 한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호교론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므로 다분히 독단적이고 연역적인 성질을 띤다. 따라서 그럴수록 종교적 작가는 이념적 교리나 신학적 범주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창작해야 하는데, 이를 클릭스버그는 ‘신학과 미학의 긴장’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종교적 교리의 주장들과 감각적 표현의 주장들 사이에는 관심의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예술 사이에는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⁷⁷⁾

이처럼 작가의 종교적 사상은 그것이 잘 다루어질 경우 문학작품 내에서 창조적 긴장의 원천이 된다. 조성기의 경우가 그러한데, 그의 작품에서 기독교적 사상은 종교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문학적인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그의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기독교 신앙과의 관련성을 살피는 일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으로 보이는데, 아래는 그러한 작업의 단초가 될 만한 작가의 발언이다.

76)알.웹스터, 라종혁 역, 『문학 이론 연구 입문』, 동인, 1999. 39~41쪽 요약.

77)차알스.클릭스버거, 최종수역 『문학과 종교』, 성광문화사, 1981, 258쪽.

나에게는 인간 실존에 관한 끊임없는 의문들이 뒤따랐다. 초등학교 오학년 때인가 나는 꿈속에서 내가 죽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 ‘그럼 지금 존재하는 나는 무엇이며, 이 땅에서 사라진 후의 나는 무엇인가’ ……

이와 같이 강렬한 표현 욕구와 실존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들이 내가 문학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는 셈이다.⁷⁸⁾

작가는 실존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네가 어디 있느냐”하는 질문이 인간에 대한 신의 첫 질문으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준 충격으로 인해 문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작가는 대학 1학년 때에 어느 선교단체 겨울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창세기 3장 9절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 시기 “아직 신앙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은 “성경의 충족성”, 즉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containeth)”는 깨달음에 해당하는데, 웨슬레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므로 그 내용에 실족함이 없다 (infallible)⁷⁹⁾. 작가는 이어서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에 그의 영이 반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실존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은 결국 신이 던지고 있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의 반영이 아닌가 하고 어렵פות이 생각하게 되었다. …… 어디에 있어야 진정으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도 아르키메데스처럼, 「유레카!」 하고 외치고 싶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예카」⁸⁰⁾에서 「유레카」로 옮겨 온 셈이었다. ⁸¹⁾

78) 조성기, 「문학이 내 마음을 두드렸다」,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열하당, 2004, 244쪽.

79) 조종남, 앞의 책, 64~65쪽 참조.

80) 조성기, 「늘 다가오는 질문」,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 문학사상사, 1990. 헬라어 「유레카」는 「내가 깨달았다」는 뜻이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벌거벗은 채로 뛰쳐나가며, 「유레카!」라고 외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 얼마나 그 단어가 유명했던지 미국에는 유레카 대학이라는 데가 있다.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그 유레카 대학을 나왔다고 들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아예카」는 「내가 어디 있느냐」는 뜻이다. …… 여호와라는 신이 인간에게 최초로 던지는 질문으로 되어있다. …… 인간이 신의 명령을 어기고 신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었을 때 신이 에덴동산으로 와, 「아예카」하고 인간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17-18쪽.

81) 조성기, 앞의 책, 19-20쪽.

조성기는 “창세기 3장 9절⁸²⁾은 내 작품의 중요한 모티프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 작품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 이 질문은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로 파고들어 온다.”라고 하면서 이 질문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메아리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쾌락에 축축이 젖어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다. 내내 그를 따라 다니던 ‘아예카’라는 질문은 막다른 골목의 벽처럼 어김없이 그를 가로막으며, 피할 구석이 없도록 만들었다. 오직 앞드릴 공간밖에 없었다. 그런 그에게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은 구원과도 같은 것이었다.

작가는 칼 융이 강조해서 말한 ‘렐리기오’의 상태로 돌아와 한숨을 쉬면서 그가 들어갔던 골목길을 돌아보고 자신의 유치함과 가소로움을 똑똑히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 렐리기오는 종교에 해당하는 라틴어로서 그 원뜻은 ‘다시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 어원에 따르자면 종교라는 것은 ‘다시 생각하는 삶’의 태도로서, 곧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작가에게 신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그에게 다시 생각해 보도록 요청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는 그야말로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이다.

작가는 신이 자신에게 던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화두로 삼아 작품 『에덴의 불칼』에서 종교 실존적 문제와 인간 실존에 대한 부조리를 독자에게 드러내어주며, 기독교의 세태는 물론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조성기의 작품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사를 중심으로 기독교 문학적 담론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곧 그의 문학은 인간의 실존에서 초월적인 신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조성기가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성기는 ‘기독교문학’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소재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주제 및 담론의 확장이라는 성과들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기독교 소설사에서 1980년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문학 작가로서 커다란 문학사적 의의라 할 만하다. 기에도는 『198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담론 양상』이란 논문에서 1960~1970년대 발표된 기독교 소설들의 주제가 성경적 모티프를 수용한 문학적 상상력에 의존하거나 교회안의 샤머니즘, 지도자들의 위선과 부패의 고발, 개인 신앙의 실존적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1980년대 소설은 사회적 억압이 극심했던 정치상황과 산업사회의 그늘,

82)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교회 내적갈등과 주변부의 문제로까지 영역을 확대시켰다고 말한다. 그 결과 개인의 신앙에 작용하는 사회적 배경과, 교회 내부의 문제, 기독교와 연결된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상들에 집중하게 되었다⁸³⁾ 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그가 예로 든 것이 조성기의 80년대 대표작 「베데스다」와 「가시둥지」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기독교문학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조성기는 작품 「하비루의 노래」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1차원적인 현상들을 성찰하면서 이를 3차원적인 현상으로 이끌어 간다. 곧 기독교적 본질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과정(중생, 구원)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중생의 서사교리’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작가는 기독교적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주변의 사회적(역사에 기록될 사실로) 상황을 배경으로 묘사하는 독특함을 보여 준다.⁸⁴⁾

조성기의 『에덴의 불칼』이 보여주는 기독교 소설로서의 특수성은 신학적 교리로서 웨슬레⁸⁵⁾의 사중복음 중 ‘중생’(구원)과 ‘성결’ 그리고 ‘신유’

83) 기에도, 앞의 논문, 202쪽.

84) 조성기의 작품은 1980년대를 대표하고 있다. 그에 따라 80년대의 기독교소설로 작가를 분석하는 연구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하비루의 노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었다.

85) “웨슬레 신학의 형성 배경” : 기독교 교리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2백여 년을 경과하는 동안 보다 큰 발전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속화되고 곡해되거나 제한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웨슬레의 신학이 형성되던 18세기의 영국 또한 종교적으로 몹시 부패한 상태에 있었다. 정치가나 학자들은 종교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냉소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중적인 스포츠는 야만적이었으며, 문학은 저속하였고, 철학은 이성의 유희처럼 되어 버렸다. 상업은 타락하여 인간들마저 매매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흑인노예를 판매하기도 했다. 음주와 향락으로 거리에는 창녀가 우글거렸다고도 한다. 감옥은 만원이었고, 부패는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성직이 뇌물에 의해 매매되는 경우도 비밀비재했다. 그리하여 옥스퍼드의 감독인 세카(Thomas Secker)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자란 웨슬레의 어릴 적 신앙은 부모의 영향을 받은 영국 알미니안주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자랐으며, 청년시절에는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 토마스 아켄피스(Thomas à Kempis), 윌리엄 로(William Law)의 저서와 성서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1738년 5월 24일 울더스게이트에서 회심(回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이후 전도자-부흥운동가이자 메도디스트회의 조직과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회심사건은 그가 자신의 독특한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의 기존 신학이 모라비안 교도들 속에 있는 신앙이상주의와의 충돌을 일으켰던 것이다. 웨슬레는 청의 후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신자는 성화도 성장한다고 믿었다. 또한 청의 받는 순간 인간은 가장 깊은 곳까지 완전히 성화되어

의 교리를 의식적으로 작품의 중심에 놓고 있다는 점이다. 웨슬레는 자신의 복음을 ‘성서·전통·이성·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적 교리로 구성하여 당시 도덕적 타락과 부패로 편만해 있던 개인과 교회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성서 중심적 교리를 수립한 이다. 조성기의 작품을 분석해보면 작품 내에 융화된 기독교적 교리가 웨슬레의 교리와 지극히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웨슬레가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기독교적 교리를 정립하였으며, 종교적 성장을 부단히 갈망하였던 것처럼 조성기의 『에덴의 불칼』에는 자신의 종교적 입문에서부터 부단히 갈망하며 성장하는 주인공의 인생 역정을 섬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것도 자신에게 냉혹하리만큼 진솔한 자전적 성장서사를 그린다.

흥미롭게도 조성기는 종교적 성장서사를 별난 소재나 특수한 제재를 다루기보다는 일상적이고 흔히 만날 수 있는 재료들로서 묘사한다. 대개가

죽는 날까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모라비안 교도의 진센도르프 등의 신학과는 대조적인데, 그들에 따르면 모든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일어난다

웨슬레 신학이론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그는 복음을 믿을 때에는 칭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써 새롭게 탄생한다는 신생(new birth)의 메시지와 신생으로부터 시작하는 성화(sanctification)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였다. 따라서 웨슬레 신학의 중심은 구원론이며, 구원론의 핵심은 성결(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웨슬레의 신학은 성결을 핵심으로 하는 구원(중생)론이 중심이다. 죄인이 칭의되고 거듭날 뿐 아니라 성결한 신앙의 단계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칭의와 중생이 제1차적 변화라면 성결은 제2차적 은총의 체험이며 변화이다. 성결은 현재 구원의 완성이요, 궁극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장과 약속이다.

웨슬레의 신학은 “사변형의 방법”(The Wesleyan Quadrilateral)이라 명명 가능할 만큼, 성서·전통·이성·경험을 이론의 중심에 놓는다. 간략하게 그의 신학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웨슬레 자신의 복음적 회심 체험에서 시작된 성서적 구원의 확신이다.

둘째, 웨슬레의 신학은 당시 도덕적 타락과 부패로 편만해 있던 개인과 교회를 정화시키고자 의도되었다. 그의 설교에서 핵심은 의였고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의 곧 ‘성결’이었다.

셋째, 웨슬레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신약성서에 나타난 주요한 요소들을 강조할 뿐 아니라, 각 전통이 지니고 있는 장점들을 결합하기도 하였다. 그는 ‘성결의 개념’을 로마 가톨릭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동시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으로’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 역시 채택했다. 웨슬레는 다양한 개념들을 창의적으로 종합하여 성서 중심적 교리를 수립한 것이다.

미국 보스톤 대학교의 역사신학자인 셀(George G. Cell)이 『요한 웨슬레의 재발견』(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에서 그를 두고 계몽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발전된 인본주의적 기독교를 진정한 의미에서 정복하고 충족시킨 건설적인 신학자였다고 주장했던 것은 웨슬레 신학의 이와 같은 특징에 대한 정확한 지적으로 읽힌다.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21쪽. 한영태, 「웨슬레 신학의 방법론과 사중복음의 조직신학적 이해」, 『선교와 신학 29집』, 서울신대출판부, 2004, 491쪽. 한영태, 『삼위일체와 성결』, 성광문화사, 1992, 11쪽.

자신의 신앙적 성장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로부터 소재를 취해 기독교인 독자로서는 절로 공감이가게 하는 재료들이 그의 소설을 이룬다. 그야말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교리(중생·성결·신유)적 소재를 의미와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연금해 내는 조성기의 작가적 능력은 기독교 소설에 매우 적합한 형식으로 보인다. 지나칠 정도의 솔직함이 때로는 독자들에게 당혹감과 불편함을 끼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종래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게 된다.

한편, 조성기의 작품은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듯이 자전적인 특색을 지닌 기독교 소설로서 한국 기독교의 세태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세태를 고발하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일반적인 세태소설의 경향과 달리 씌어진 기독교적 세태소설의 관점에서 그의 작품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조성기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세태소설적 측면은 종교적이요, 정치적이면서 역사의 기록물이리만큼 사실적인 묘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학은 사회의 한 반영이며 굴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시대든지 사회를 비판하고 그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문학은 적절한 세태를 반영하며 존재하게 마련이다. 조성기의 작품은 1970~80년대의 한국의 정치와 경제사회의 구조와 풍속뿐만 아니라 관찰자인 주인공의 시점에서 시대적, 공간적 상황을 두루 보도록 묘사한다. 작품에 제시된 당대 세태는 당시의 기독교적 삶과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일종의 문화사적 자료 구실을 한다.

일반적으로 세태소설은 사상성이 빈약하며, 이야기의 중심과 일관성의 결여로 인해 상식주의에 함몰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조성기의 작품 『에덴의 불칼』도 이런 비판 앞에 얼마간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들은 상식적 수준의 세태소설이 지닌 표면성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다. 그의 작품은 통속적인 흥밋거리에 치우치지 않고 작가 나름의 진정성과 냉정함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자층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문제의식에 눈을 돌리게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조성기의 소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할 때 그 전모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기독교 성장소설’의 측면과 ‘기독교 세태소설’의 측면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먼저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인물의 특성을 통해 개신교 웨슬레의 복음인 중

생(구원)⁸⁶⁾, 성결⁸⁷⁾, 신유⁸⁸⁾의 교리가 주인공의 성장서사에 어떻게 형상화되어있는지를 먼저 살필 것이다. 미리 밝혀 둘 것은 조성기의 작품에서는 웨슬레 신학의 사중복음 중 네 번째 교리인 ‘재림’의 성장서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따라서 앞서 거론한 세 가지 교리에 따라 조성기의 성장서사에 따라서 작품 『에덴의 불갈』을 분석한다. 이어지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의 소설을 ‘기독교 세태소설’의 측면에서 정치적 세태와 종교적 세태로 각각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86) ‘중생의 복음’이란 죄인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믿음으로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신자가 되는 첫 단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생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를 가능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생명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곧 하나님 편에서 먼저 행하신 것에 대하여 인간이 ‘회개와 신앙’으로 응답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중생의 복음에서 인간의 응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라 할 수 있다. 이 회개에는 5단계가 있다. 순차적으로 보면 각성, 통회, 고백, 변상, 사죄의 단계다. 이러한 응답의 과정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루어진다.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회신학연구위원회, 『성결교회신학』, 기독교대한성결교회출판부, 2007, 70 ~77 쪽 참조. 성기호, 「재림론을 중심한 심프슨의 사중복음」, 『논문집 23』, 성결신학대출판부, 1994, 32쪽 참조.

87) 성결의 복음이란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으로 신자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거룩한 생활이 계속적으로 요청된다. 성결의 복음은 중생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새 생명, 새 마음, 새 인격으로 태어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이웃과 나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신학 윤리이다.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회신학연구위원회, 앞의 책, 78 ~82 쪽 참조.

성기호, 앞의 논문, 32~33쪽 참조.

88) 신유의 복음이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는 은혜의 치료이다. 모든 인류에게 당면한 영(靈)과 혼(魂)과 육(肉)의 문제에 대하여 중생이 ‘본질적 생명’의 차원을, 성결이 ‘실존적 사랑’의 차원을 다룬다면, 신유는 ‘현실적 회복’의 차원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신유의 복음은 중생과 성결의 두 복음에 부수되는 은혜로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치료이다.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회신학연구위원회, 앞의 책, 83 ~86 쪽 참조.

성기호, 앞의 논문, 34~35쪽 참조.

Ⅲ. 기독교와 성장소설

본 장에서는 조성기의 작품 세계에서 ‘중생(구원)·성결·신유의 서사가 어떤 방식으로 주인공의 성장소설에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장소설’은 유년에서 성인으로 성숙해가는 내면적인 성장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성장소설에는 작가의 세계관이 반영된 두 가지 요소가 집약된다. 하나는 주인공의 개인적 성장사요, 다른 하나는 그 주인공의 교양에 영향을 주는 그 시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작가의 비판과 통찰이다. 곧 성장소설에는 이 양자가 뗄 수 없이 융합되어 있다.⁸⁹⁾

성장소설의 개념에 대한 ‘성장’의 논의는 교양(Bildung)·형성(Formation)·입사(Initiation)의 다층적인 내포로 정의 한다. 즉 성장소설이 교양소설과 동의어라는 것이다. 그것은 한 개인의 성장과 자각을 가능케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 그것의 소산인 교양, 다시 말하면 문화 이념을 축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⁹⁰⁾곧 ‘교양’이 개인의 내면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것에 반해 ‘형성’의 개념은 개인보다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다. 또한 ‘입사’의 개념은 신화 원형적인 통과제의이다.

조성기의 기독교 작품은 개인의 내면적 신앙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1980년대의 한국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사회적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그의 성장소설은 ‘교양소설’이며, ‘형성소설’의 개념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신앙 성장에 초점을 두고, 그에 따른 교리적 서사를 고찰 한다.

복음의 첫 번째 규범이 바로 ‘중생(重生)’이다. 중생은 “신창조”(고후 5:17), “새 마음”(롬12:2), “새 사람”(엡4:24)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는 “영적 변화”이자 “신인격”의 창조⁹¹⁾를 가리킨다.

89) 이보영외,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15쪽.

90) 김병익, 「성장소설의 문화적 의미」, 『세계의 문학』, 1981년 여름, 76쪽.

91) 홍성국, 「중생의 능력을 되찾는 길:야고보서와 중생의 도리(1)」, 『활천』 503, 1995, 67~72쪽 참조.

한영태, 「중생, 성결의 전 단계」, 『활천』, 422, 1987, 52~58쪽 참조.

서정식, 「중생의 은혜(디도3:1~7)」, 『활천』, 407, 1984, 14~17쪽 참조.

<고린도후서5:17>,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

두 번째 규범인 ‘성결’은 웨슬레 신학의 핵심이다. 곧 기독교 교리의 핵심으로서 성결(성화)은 의인 중생(칭의)과 함께 시작된다. 구원은 중생의 순간적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성장이 있으며, 이 점진적 성장의 어느 한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곧 성결이다. 92)

세 번째 규범은 ‘신유’이다. 신유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게 당면한 ‘영과 혼과 육’의 문제에 대하여 중생이 ‘본질적 생명’의 차원을, 성결이 ‘실존적 사랑’의 차원을 다룬다면, 신유는 ‘현실적 회복’의 차원을 다루는 것이다. 신유의 서사는 중생과 성결의 서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1. ‘중생’의 교리와 성장의 서사

조성기는 신이 자신에게 던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화두로 삼아 작품 『에텐의 불칼 제1부, 갈대바다 저편』에서 종교 실존적 문제를 다룬다. 그는 작품의 제목⁹³⁾에서부터 성경의 모티프를 대단히 상징적인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흔히 ‘갈대바다’는 성경에서 ‘홍해’로 번역되어 있는

라. <에베소서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92) 조종남, 앞의 책, 133쪽.

"성결의 복음"이란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으로 신자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거룩한 생활'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구별된) 삶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신학이다.

93) 『야훼의 밤 제1부, 갈대바다 저편』은 『소설문학』 지의 1983년도 장편소설 공모 입상작인 『자유의 중』을 그 원형으로 삼고 있다. 그보다 12년 전인 1971년도의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만화경」이 당선한 것을 계기로 소설가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10여 년 간을 신앙세계에 몰입하면서 절필상태에 있었다. 『라하트 하헤렙』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고 문단에 1985년 복귀하였다. 그는 『자유의 중』 후속편으로 1986년 7월 『길갈』이 나오고, 다시 두 달 뒤 『하비루의 노래』가 연이어 나온 것이다. 다시 2년이 지난 후인 1988년 『회색신학교』를 출간하였다. 그 결과 『야훼의 밤』은 4부작의 구조를 가진 작품으로 그 면모를 드러낸다. 그는 『야훼의 밤』 4부작과 별개의 작품으로 존재해 왔던 『라하트 하헤렙』을 『갈대바다 저편』 바로 다음 자리에 놓으면서 연작의 구조에 편입시킨다. 『야훼의 밤』 4부작은 『에텐의 불칼』 5부작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여기에 두 편의 장편소설 『베데스다』와 『가시등지』를 더하여 『에텐의 불칼』 제6부와 제7부를 가져왔다. 상당히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에텐의 불칼』 일곱 권의 형태를 갖춘 것이다. 본고는 『야훼의 밤』을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동하, 『신앙인의 길, 자유인의 길』, 『작가세계』 작가세계, 1996 여름호, 61~62쪽 참조.

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물론 이때의 ‘홍해’는 노예 상태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런 삶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갈대바다 저편’은 당연히 그러한 노예의 땅을 벗어난 ‘자유의 땅’, ‘광야’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이 광야를 거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유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작품 『에텐의 불칼』 제3부의 제목으로 쓰인 ‘길갈’이 바로 그 ‘가나안’이다. 가나안을 일컫는 ‘길갈’은 굴러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는 유대 민족과 관련해서는 강대국이었던 애굽 밑에서 당한 약소민족으로서의 모든 수치가 굴러간다는 것이고 한 개인의 삶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분기점으로서 인생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부작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 ‘야훼의 밤’⁹⁴⁾은 성경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이는 야훼의 밤이라’는 구절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여기서 ‘야훼의 밤’이 지닌 이중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데, 이 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들이 죽어 넘어지는 ‘심판의 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살이로부터의 탈출로서 ‘구원의 밤’을 상징한다. 곧 ‘야훼의 밤’은 낮의 속성을 지닌 밤이요, 빛의 속성을 지닌 어두움이라는 역설이 가능하다.

이상 제목이 상징하는 바는 작품의 내용에서 그대로 관철된다. 작품 「갈대바다 저편」은 한 젊은 청년이 ‘자유의 종’이 되기까지의 기독교적 성장서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곧 이 작품은 한 청년이 정신적 자유로움을 얻기까지 애굽의 병사들로 상징되는 죽음(영적 싸움)과 맞대결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소설 전체가 ‘갈대바다’에 머물러 있던 미성숙 상태의 한 청년이 ‘자유의 땅(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조성기는 이 시기 자신의 작품들을 ‘젊은 날의 초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텐의 불칼』 연작은 따라서 자전적 성장소설이다. 물론 독자의 관심

94) “야훼의 밤” 4부작 작품은 “에텐의 불칼” 7부작으로 편입된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41절: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개역개정 성경판.

에 따라서 성장소설로 읽을 수도 있고 종교소설이나 상황소설로 읽을 수도 있겠으나⁹⁵⁾ 우선은 자전 소설로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 실제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신성민의 이력과 작가 자신의 이력은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⁹⁶⁾

이 작품은 성민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에 입학하여 중생의 서사를 체험하는 성장과정을 중심 사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작품의 시작 부분은 신성민의 방황에 있어 주된 이유의 하나였던 이성 관계에 대한 서사로부터 출발한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에 대한 연정, 그리고 대학 시절의 이성에 대한 관심은 그의 정신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초등학교 시절 함께 뛰어 놀면서도 너무 예쁘게 생긴 소녀에 대해 묘한 열등감을 갖기도 했던 성민이 그 소녀인 완숙을 대학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의 신앙 체험은 즐거움을 잡아가기 시작한다. 완숙으로부터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새벽에 다알리아 꽃이 만발하던 그 초등학교 교정과 한 소년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소년의 모습은 나에게 희미하기 그지 없습니다. 결국 그 소년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은 실패했으나 내 의식의 상상의 빛은 능히 그 소년의 얼굴을 그녀 내고 있습니다.”⁹⁷⁾

성민은 생애 가장 충격적이고 감격적인 일로 초등학교 교정에서 함께 뛰어놀던 소녀 완숙과의 만남을 떠올린다. 대학 1학년 시절 가을날 우연히 학생 휴게실 쓰레기통에서 ‘미전’이라는 글씨가 박혀 있는 팜플렛을 발견하게 된 그는, 무심결에 손이 갔던 그것을 통해 완숙을 다시 찾게 된다. 동명이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장이 닷새 후에 도착한 것이다. 그 답장은 중 2때 「비 온 후」란 시로 학원문학상에 특선했던 바로 그 소녀로부터 온 것이다. 이후로 그는 일주일에 평균 한 통씩의 편지를 그녀와 주고받는다. 편지의 내용은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문학, 철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3개월이 흐른 후, 초·중학교 시절의 깜찍하고 아름답던 소녀의 모습을 기억하며 완

95) 이남호, 「70년대 젊음의 성장 체험-조성기의 ‘야훼의 밤」, 『문학의 위족2-소설론』, 민음사, 1990, 265쪽.

96) 이동하, 「신앙인의 길, 자유인의 길」, 『조성기 특집 - 작가세계』, 1996년 여름, 65쪽.

97) 조성기, 『에텐의 불갈 제1부, 갈대바다 저편』, 민음사, 1992, 57-58쪽.

속을 만나보게 된다.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진 후부터 그녀는 종교에 관한 편지를 써 보낸다. 성민은 그녀의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종교는 내 환상과 사랑의 무덤이요. 영원한 삼각관계’라고 쓴다. 그 무렵 그녀는 기독교 신앙을 전하며 자기가 다니고 있는 선교단체로 성민을 인도한다.

지금까지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였던 일들이 부끄럽게 여겨지면서 성경을 더욱 알고 싶다는 욕구가 마음 깊숙이에서 생겨났다.

아무튼 그 일주일 동안 어디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마음의 야릇한 변화를 체험했다. …… 4,000 년 전에 씌어 진 이 한 권이 책 속에 이토록 진귀한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으리라고는 미처 상상도 못 한 일이었다. 98)

초등학교 교정에서 뛰놀던 소녀와 함께 신을 찾는 무리 속에 있게 되리라고는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성민이었다. 그리고 것처럼 우연치 않게 시작된 종교 체험 과정에서 성경의 창세기 강의를 듣던 중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늘 원했던 인생의 답변을 듣는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깨닫게 됨으로써 성민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세계관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일주일간의 성경 창세기 강의를 끝난 후 그 모임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라”고 하였는데, 그때 성민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도 아니면서 손을 들어야만 한다는 이상한 충동을 느껴 조용히 손을 들기도 한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이상한 충동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통로에 진입하는 것이다. 곧 회심이 일어난다. 성민에게 구원의 교리적 서사는 성경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에게 성경은 중생의 체험서이며, 종교적 성장의 모태가 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웨슬레의 회심사건을 거론할 수 있다. 그에게도 루터의 로마서 서문과 관련된 울더스게이트의 체험이 있다.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당일(1738년 5월 24일 수요일)의 일기에 웨슬레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여기서 나는 나의 과거 상태와 현재상태가 서로 다름을 발견하였다.

98) 조성기, 위의 책, 91-92쪽.

과거에는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또한 율법에게 속하였으므로 비록 전력을 다하여 싸웠을지라도 패한 때가 많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늘 승리하는 자이다.⁹⁹⁾

웨슬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한 말씀으로 회심을 확신한다. 그는 울더스게이트 체험을 계기로 믿음에 대한 이해와 의인관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성민에게 창세기의 서사가 했던 역할을 그에게는 로마서가 한 셈이지만, 양자가 성경의 충족성을 통해 회심했다는 사실의 유사성은 주의를 요한다. 곧 대학생인 성민과 부흥운동가였던 웨슬레는 성경의 서사를 통한 직접적인 구원의 방식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룬다. 그들은 이성적이며 지적(知的)인 매개체를 통한 구원의 형식을 보여준다.

회심 이후, 성민은 성자의 삶과 같은 인생에 같증을 느끼면서, 조금씩 맘속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그 증거를 내 안에 보여 달라는 것이 기도의 요지였다. 그런데 뚜렷한 어떤 증거나 어거스틴과 같은 그러한 통곡은 나에게 없었다. 그러나 조용히 촛불이 소리 없이 피어오르듯 내 안이 밝혀져 가기 시작했다. 먼동이 트고 있는 것도 같았고, 꽃잎이 열리는 것도 같았다. 어느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은 포근함 그 자체였다.¹⁰⁰⁾

반면 ‘예수가 자기의 죄들을 말끔히 씻어 주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장담하던 완숙’¹⁰¹⁾은 고등학교 시절 자살 사건과 관련되면서 타락의 길로 접어든다. 누구보다도 선교 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던 그녀였다. 또한 자신을 그곳에 인도하였던 신앙인이 바로 그녀였다. 그런 완숙의 타락은 성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꼭 무엇인가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고 그는 술회한다. 게다가 그 무렵 친구 영철이 민주주의의의를 위해 싸우다 몇 줄기의 연기와 불꽃으로 사라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그는 보다

99) W.R. 캐논, 남기철 역, 『웨슬레 신학』,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6, 85~86쪽.

100) 조성기, 앞의 책, 154쪽.

101) 조성기, 앞의 책, 121쪽.

진지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하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 102)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고상함에 매료되기 시작한다. 성 프란시스의 전기에서도 그 가난하고 단순한 생활의 정결함에 감동받았다고 한다. 특히 어거스틴의 『참회록』 가운데서 로마서 13장 14절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문장을 읽고 또 한 번의 회심의 순간을 맞이하였던 사실을 위의 서사로 묘사하고 있다.

성민에게 있어 기도의 문을 열게 하였던 책들은 그의 병까지도 제거시키기에 이른다. 그러한 체험을 경험하지만 그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나는 또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여전히 방황을 거듭한다. 더욱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완속을 바라볼 때면 자꾸만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이 마음을 점령해 버린다. 3학년 봄 종로 거리의 초파일 제등 행렬 가운데 소복을 입고 다소곳한 모습으로 연등을 들고 지나가던 완속의 영상이 눈앞에 자꾸만 어른거린다. 그토록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던 완속이도 하나님이 하나의 환상임을 깨닫고 꺼질 줄 모르는 자기 욕망의 불길을 잡기 위해 그 연등을 밝혀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로 하여금 몽유병 환자처럼 일어나 달빛 속을 걷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 걸음이 산등성이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는 예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게 된다.

“네가 어디있느냐. 네- 가어- 디있- 느냐. 네가 어- 디 있느- 냐. 네가 어디 있느냐.”

2년 전 창세기 성경 학교에서 들은 성경 구절이었다. 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느꼈다.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어떤 중압감이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고통을 지르면서 일어났다.

102) 조성기, 위의 책, 152쪽.

어거스틴에게 있어 하나님은 호흡과도 같이 존재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기묘한 숨씨를 찬양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깊은 죄악들을 낱알이 고백하고 있었다. 어릴 때 지은 죄악들까지 그대로 드러내 놓았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 가슴은 시원해지고 그러다가 용암이 흘러드는 듯 뜨거워졌다. 103)

이후 선교 단체에서 리더의 위치에 오른 그는 예전의 확신 없는 태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이때 그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자신도 회한할 뿐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하고 있던 고시 공부가 일종의 우상 숭배라는 생각이 든 것도 이 무렵이다. 무엇 보다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공부를 부모의 기대에 부흥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해답을 구하고 해결해야 할 신앙의 문제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방황의 와중에 그는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라는 자신의 심연의 물음표에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까지 내린다. 그러자 선교 단체를 떠나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는 밀려드는 무신론의 자유를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어 서성거린다. 그렇게 갈피를 잡지 못한 마음으로 다다른 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만지심을 느끼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자 홀연 그의 심연에 이미 물음표의 또아리가 사라지고 없었으며, 가슴에 용암이 흘러드는 듯 뜨거워져 가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에게 도달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체험 후 그는 선교단체의 여름수양회에 참석하여 인생의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된다.

나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었다. …… 마지막 날 밤에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람, 선교사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차례로 초청되었다. 104)

성민은 <결단의 시간>에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동안 머뭇거리 왔던 결단을, 항상 마음으로 피하고 있었던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직감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요한복음의 “내가 가슴속으로는 예수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려고 하였던 그 생수 같은 것이 자꾸만 흘러들어와 내 몸 전체를 통하여 또 흘러 나갔다.”(199쪽)라고 하

103) 조성기, 앞의 책, 181-182쪽.

104) 조성기, 위의 책, 199-200쪽.

는 위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한다. 성민은 순간적인 체험들을 통하여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웨슬레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출생 후 성장하는 것과 같이 거듭(중생, 구원)난 후에도 성장하는 것이라고 한다.¹⁰⁵⁾ 이와 같은 점진적인 성장의 개념은 조성기의 신앙적 성장처럼 순간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내 자신이 고시 합격을 원하는 것은 먼저 나의 허영심과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주위사람들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는다. 불안함 때문에 고시 합격이라는 어떤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인도자로 믿는 자로서 그 믿음에 합당치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 생긴다.

성민은 한때 문학가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사실 고 3때는 문학 방면으로 대학을 생각하기도 하며 독문학과나 국문학과를 꿈꾸었다. 그러나 그가 문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얘기를 부모에게 비추었을 때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방바닥에 드러눕고 아버지는 식칼을 들고 법대를 종용하였다. 그는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였다. 사실 자신도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법대에 대한 동경이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자신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동안 스스로 문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으로 유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문학은 사춘기 감정의 파편들을 주워 모아놓는 쓰레기통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문학은 사치스럽기까지 하여 점점 꺼려졌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일생을 살 것인가’¹⁰⁶⁾ 자신의 내면에서 애타게 갈망하고 있으며 내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일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가까이에 있었다. 막상 그것을 마주보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을 해야만 한다. 그는 입을 악다물고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단의 시간’이 한참 지난 후 그는 급기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영혼에 자유와 평강이 바다처럼 충일(充溢)해지는 것을 감축한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체험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성민의 믿음생활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제도의 기도원에서 일어난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

105) 조종남, 앞의 책, 133쪽.

106) 조성기, 앞의 책, 202쪽.

하는 자로 살겠다는 확신을 갖는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인의 길에 가장 큰 장벽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와 담판을 짓게 된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성민은 군 입대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고 여행을 하게 되었다.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은 여행길에 문득 ‘민주주의와 순수’를 위해서 자살한 친구 영철이가 떠올랐다. 그는 거제도에 있는 영철이의 묘지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돌아오려는 길에 기도원을 찾아가는 청년들을 만나 그들과 합류하게 된다. 도착한 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를 목표로 28일째 접어든 농사꾼을 만나게 된다. 성민은 12일간의 기도가 남은 그와 함께 금식기도를 하며 한층 깊은 신앙체험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곳에서 성민은 금식 37일째로 접어드는 김집사의 환한 얼굴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한다. 인간에게는 육신의 힘 이외에 정신의 힘이 있으며, 그 위에 영의 힘이 있음을 알도록 만들었다. 금식 10일째 그는 ‘신앙과 현실, 신앙과 역사는 날개와 다리’란 말을 남긴다. 성민은 신앙과 현실, 신앙과 역사의 관계를 다리와 날개로서 인식하게 되며, 그 다리와 날개에 힘이 있어야 자유를 향해 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여기에서 성민이 추구하는 신앙관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작가가 다리와 날개를 신앙과 사회의 구조로서 뗄 수 없는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웨슬레의 중생의 복음이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웨슬레의 구원 교리는 개인 구원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곡해되기도 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사중복음이 다루는 주제와 그 범위를 거론하곤 하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등은 오직 개인의 구원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분석에 근거한 판단이라 할 수 없다. 기독교 복음의 모든 주제들은 개인 이전에 “인류 전체”가 직면한 공동체적 문제이지, 특정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¹⁰⁷⁾ 중생의 복음은 한 마디로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적인 것이다.

성민의 인생과 영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이제 말씀을 전할 자로서 ‘하나님의 종’이요 ‘자유의 종’이 되고자 한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를 ‘종교’라는 주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뇌하게 하였으며, ‘자유의 종’으로 나아가는 길에 서게 만들었다. 그는 ‘갈대바다 저편’에서 ‘자유의 바다’로

107)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회신학연구위원회, 앞의 책, 70~71쪽.

비상해 가고자 한다. 조성기는 작품에서 작가인 ‘나’로 등장하는 주인공 성민을 들어 작품의 원형에 해당하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 해답을 얻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범한 최초의 인간을 불렀던 것처럼, 자신 또한 구원의 과정에 부름을 받는 첫 번째 과정이었다. 작품의 제목 그대로 ‘야훼의 밤’이라고 하는 모티프는 성민이라고 하는 방향하던 한 젊은 영혼이 은혜와 구원의 주권자로 말미암아 ‘자유의 종’이요 말씀을 전할 자’인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는 기독교 성장소설의 서사과정을 그려주었음을 볼 수 있었다.

조성기는 이와 같은 중생 경험을 ‘젊은 날의 초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말에 걸맞게 그는 대학시절 ‘종교’라는 주제를 두고 고뇌하며 씨름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종교’는 애초부터 ‘문학’과 같은 동기를 가지는 것이었다. 작가는 김만수와의 대담에서 “언어행위 그 자체에 이미 신적인 요소가 개재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문학은 이미 종교인 셈인데 문학과 종교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¹⁰⁸⁾라고 말한다. 그는 종교와 문학을 별개의 동기보다는 등가적인 동기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신의 물음에 응답하기, 곧 종교 실존적 문제와 그의 문학은 분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이 인간을 향해 던진 최초의 질문이 바로 저것인데, 조성기 문학의 토대를 형성한 것이 바로 저 물음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성기 문학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에서, 혹은 양자 모두에서 생성되고 존재하였다. 조성기는 종교와 문학을, 그리고 신과 인간을 동시적으로 추구했던 성장서사를 기본 소재로 작품화 한다.

「갈대바다 저편」에서 일인칭 화자 성민을 통해 회심의 성장서사를 형상화한 조성기는 「하비루의 노래」에 이르면 다양한 하층민 등장인물들을 통해 중생의 서사와 구원의 여정을 다채롭고 다양하게 보여준다.

‘하비루’는 ‘하빠리’를 연상케 하는 일본어의 잔재인데, 한자 하비루(下婢淚)는 천한 여종들의 눈물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서부 셈어 계통의 어원에서 나온 이 하비루라는 말은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원래 B.C. 2050년 무렵인 우르 제3왕조 때부터 사용된 흔적이 있다. 그 이후로 마리, 알라라크, 누지, 보아즈코이, 아마르나, 라스 샤므라 문서들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어, 그 무렵 근동의 광범위한 지역에 하비루들이 분산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해석에 따르면 하비루란 말은 ‘특정한 사회적 계급

108) 김만수, 『문학의 존재영역』, 세계사, 1994, 187쪽.

집단'이나 '하나의 민족'을 지칭한다고도 한다. 마리 문서나 아마르나 문서¹⁰⁹⁾에는 하나의 민족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¹¹⁰⁾

아마르나 문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하비루를 '히브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어원을 분석할 경우 '히브리인'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하비루와 히브리어를 그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겠지만 히브리어를 하비루 계층의 한 부류로 볼 수는 있다고 할 수 있다. ¹¹¹⁾

작품 「하비루의 노래」는 <하비루>라는 단어가 주는 연상 작용에서 시작된다. 천한 여성들의 눈물이라는 뜻처럼 이 작품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하층민 여성들이 등장한다. 곧 그들이 흘리는 눈물에서 우리나라는 슬픔의 정조가 이 작품에는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위로 '성(聖)과 성(性)'의 문제가 교차되면서 소설이 전개된다. 동시에 '계율과 구원'의 문제들이 다루어진다.

주인공 성민은 독서실에 기숙하며 번역 일을 한다. 이 건물에는 <지하> 이발소와 <금성>다방이 자리하고, 건너편에는 <一味閣>이라는 중국집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생(구원의 여정)의 서사가 이 작품의 뼈대다.

중국집의 정달영은 배달 음식 통을 들고 가면서 곧잘 환상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기도시간에는 방언¹¹²⁾을 하기도 한다. 그는 성민과 교회적인 문

109) 아마르나 문서의 하비루의 정체: 1886년 이집트의 텔엘 아마르나에서 한 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갈다가 400여 개난 되는 진흙 서판(書板)들을 발견하였다. 그 서판들은 팔레스틴의 도시국가들을 다스리고 있던 여러 통치자들이 이집트의 바로에게 보내는 외교문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비루라고 불리우는 집단들의 침입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었다. 그 중의 하나를 보면, 예루살렘의 지배자였던 압디히바라는 자가 크게 놀란 나머지 바로에게 원군을 보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하비루들이 왕의 땅 전부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년에 여기 활 쏘는 사람들이 없다면, 나의 주시여, 왕의 땅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조성기, 『에텐의 불칼 제4부, 하비루의 노래』, 민음사, 1992, 14쪽.

110) 조성기, 앞의 책, 14~15쪽 참조.

111) 조성기, 위의 책, 15쪽 참조.

112) 방언이란 우리 안에 맺혀 있던 한(恨), 즉 응어리가 우리의 이성으로서의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의 형태로 풀려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를 억지로 표현하기가 어색해지는 경우 말이라는 불완전성을 실감한다. 방언은 이러한 말의 불완전성을 보충해 주면서 우리의 한을 직접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개 한 문장 정도가 터져 나와 계속 반복된다.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경우는 문장들을 자유자재로 바꾸어 가면 구사할 수 있지만 초기의 단계에서는 짧은 문장이 되풀이 된다. 방언이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 모르면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성기, 앞의 책 156~157쪽 참조.

제로 기도원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만난 문한숙과 함께 가출소녀와 윤락녀를 보호하고 있는 기술원을 방문하게 된다. 성민이 번역일로 자주 드나드는 출판사(갈멜사)의 전도자가 기술원의 종교담당시간에 설교를 하기로 하였다. 갑자기 그가 갈 수 없어 성민과 달영, 한숙이 가게 된 것이다. 먼저 달영은 자신과 어머니가 중생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던 사건을 간증한다.

저의 어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 전도사는 다른 말은 하나도 안하고 그저 “새로 온 전도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하는 정도의 인사말밖에 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어머니는 후다닥 일어나 평상에서 뛰어내리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만 쳤습시다. …… 어머니는 그 이후로 전혀 곳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신이 산신보다 더 센 모양이라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여 온 동네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시다. 113)

달영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 신이 내리는 장면을 보기도 하였으며, 어머니가 전도사의 인사를 받은 이후 곳을 할 수 없게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을 목격한다. 그는 이러한 어머니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그는 어머니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당이었던 어머니의 신비적인 체험이 곧 자신의 체험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어머니의 영험함을 믿어 왔던 마을 사람들로 대변되는 토착화된 샤머니즘의 문화적 세계는 기독교의 전도사를 만나서 인사를 받는 순간에 패배의 길을 보여준다. 헛간으로 밀려만 가는 어머니의 광경 - 무속세계의 패배를 암시한다 - 은 무작정 기독교의 승리로 묘사되기도 한다. 어머니는 무속세계에서 자신은 물론이요 마을 사람들이 구원자로 섬겼던 전통적인 신¹¹⁴⁾을 기독교의 ‘예수신’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신에 대한 세계’는 그 아들인 달영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실행으로 입증할 수 있다. 신학보다는 행위에, 교리보다는 생활에, 도그마보다는 모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곧 전통과 도그마로부터 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기독교

113) 조성기, 앞의 책, 234쪽.

114) 샤머니즘에서 신은 귀신들린 사람으로부터 잡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인간의 육체적 병은 이 잡신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샤먼의 이적은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집중된다. 김병익, 「한국소설과 한국기독교」,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79, 42쪽.

신앙을 교리나 신학보다는 생활에서 신비(환상)로운 체험이나 방언적 기도의 방향을 찾아가는 서사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곧 달영과 어머니의 구원의 방식은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동적)적 형식의 특이성을 보인다.

그는 신비적인 확신 가운데 기술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생들에게 “물질적인 3차원의 세계 속에서만 사는 인간들은 약간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다 더러워지고 썩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면에서는 피장과장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세계는, 3차원의 세계에서 고상한 단계에 있다 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¹¹⁵⁾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상한 척하는 그 당시 학자들이나 종교가들보다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여러분과 같은 보호생들이 더욱 천국에 가까우므로 하나님을 믿어 구원(중생)받기를 바란다는 권면을 하였다.

달영과 동행한 문한숙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기 전에는 여승생활을 하였다. 그는 달영이 교회의 일로 찾아갔던 기도원에서 특별간증 시간을 할애 받아 자신의 성장과정과 출가경위, 산문(山門)에서의 수련과정과 비구니 생활, 하산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기독교 입문 등에 대하여 간략하지만 절절하게 이야기해 나간다.

3시 30분께 대중의 새벽예불이 시작된다. ………

이렇게 사바세계로 열린 아침은 조공(朝供), 상강례(上講禮), 오전 수업, 사시(巳時)불공, 발우공양, 휴식시간, 운력(運力)시간, 저녁공양, 저녁예불, 밤 수업, 방사정리, 취침들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이어진다. …… 비구니들이 지켜야 할 계율은 무려 3백 48가지나 된다.¹¹⁶⁾

한숙의 비구니 수련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원의 사람들은 한숨들을 쉰다. 마틴 루터가 수사로 들어가 있었던 중세시대의 수도원보다 더욱 엄격한 규율이 지배하는 곳이 한숙이 머물렀던 비구니의 교육도량이었다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녀는 중생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던 과정을 차분히 간증으로 이어간다.

115) 조성기, 앞의 책, 235쪽.

116) 조성기, 위의 책, 42~44쪽.

이런 수련과정까지 마치고 비구니 생활로 접어들었지만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에는 구원에 관한 질문이 떠돌았습니다. …… 우연히 펼쳐 든 구절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17)

여승이었던 문한숙은 불교의 깨달음과 성불의 경지에 이르고자 밤낮 없는 수련의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구원’이라는 물음 앞에서 성경을 매개체로 하여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됨을 볼 수 있다. 그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바랑에 넣어진 신약성경을 펼쳐보게 된 것이다. 평소에는 성경은 불경보다 훨씬 차원이 낮다는 생각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한숙이었다. 그러나 마음이 우울하던 어느 날 보게 된 성경에서 우연하게도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에 그녀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다. 곧 성경의 서사를 통한 한숙의 구원은 이성적인 지식인에게 이르는 구원의 통로였다.

‘중생’이란 자신의 수련과 모든 정진과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구원)’로 주어진다는 말씀 앞에 마음의 시야가 트인 것이다. 곧 마음의 눈이 성경을 통로로 하여 밝아지는 것이 중생이라는 깨달음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였다.¹¹⁸⁾ 한숙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숙과 달영은 그곳에서 <지하>이발관에 근무하면서 주인 박씨의 폭력으로 쫓겨났던 손희선을 만난다. 희선은 지금까지의 생활을 벗어내는 시간을 가지려 경찰서를 찾아간다. 그리고는 이내 수백 명의 윤락여성들이 수용되어 있는 기술원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그곳에서 종교집회시간에 한숙과 달영의 간증을 듣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 사실 희선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희선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때에 희선은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나 예수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런데 오늘 집회에

117) 조성기, 위의 책, 44~45쪽.

118) 한영태, 앞의 책, 492쪽.

서 그녀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다. 하나님께 항복을 한 것이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빨래처럼 빨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들을 기도로 토해낸다. 회선은 기도 가운데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작품 한 가운데에 위치한 중생의 서사가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구조임을 볼 수 있다. 곧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이 중생케 하는 은혜의 사건이다. 이 회개에는 5단계가 있다. 곧 각성, 통회, 고백, 변상, 그리고 사죄의 단계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각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회와 고백과 변상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하며, 사죄의 확신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부여되어야 한다.¹¹⁹⁾ 그녀의 통회와 고백적인 항복은 곧 구원으로 인도되는 중생의 서사과정이었다.

갈멜사의 편집부장인 노진기는 나병 비슷한 병을 진단받고 자신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동정(童貞)을 늙은 창녀에게 바쳤다. 그 이후로 진기의 사창가 출입은 거의 습관처럼 중독¹²⁰⁾되어 갔다. 그는 결혼을 한 후에는 안정이 되는 느낌이었으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지방 출장을 갔다 오면서 성병을 얻어가지고 와 아내에게 옮겼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이혼으로 이어졌다. 홀아비가 된 그는 더욱 술과 여자에 빠져 미친 세월을 보내다가 버스 안에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10년 전 진기는 매일 출근버스가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하얀 두루마리를 입은 노인이 벽력같은 고함을 질렀다. 그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었다. “예-수-”그 노인의 뱃속 깊이에서 천둥소리처럼 울려나오는 소리가 바로 그 두 자였다. 다른 말은 일체하지 않았다. 진기는 날마다 듣는 노인의 고함소리가 두려웠다. 고함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떨어지고 간이 떨어지는 것처럼 온통 속이 울렁거리고 두 팔 다리가 떨리기까지 했다. 결국 그 “예-수-”가 술과 여자에 찌든 자신을 산산 조각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기는 어느 집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중생(구원)을 체험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에게 천둥소리처럼 들려지는 “예수”라는 두 글

119)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회신학연구위원회, 앞의 책, 72쪽.

120) 중독은 미래를 식민화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개인들이 성찰적으로 대처해야 할 주요 관심사들 중의 하나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모든 중독은 방어적 반응이며 도피이고, 자아의 능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자율성의 결여를 인정하는 것이다. 곧 중독은 ‘성찰의 와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황정미 공역,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129쪽.

자의 울림으로 구원을 체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비루의 노래」는 다양한 하층민 인물들을 등장시켜 중생의 복음과 구원의 여정을 다채롭고 다양하게 보여준다. 이 소설은 기독교(신앙)인으로 중생(칭의 되는 순간)되는 부분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접하게 되는 체험적 배경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체험하여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먼저 그들이 중생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배경과 매개체의 형식을 살펴보면, 중국집의 달영은 무당인 어머니가 만난 ‘신비적인 체험’으로 신앙을 갖는다. 무당인 어머니는 ‘산신보다 센 예수신’을 받아들인다. 여승이었던 한숙은 성경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달영과 한숙을 통하여서 종교 간의 갈등의 구조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먼저 달영의 어머니는 한국의 토착적인 무교를 통하여 구원의 신앙을 가졌었다. 그러나 전도사의 방문을 통하여 ‘무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숙은 여승으로서 계율을 지키며, 불교의 깨달음과 성불의 경지에 이르러자 수련의 과정에 있었던 신앙인이다. 그러나 그녀도 ‘구원’이라는 물음 앞에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 앞에 개종을 하게 된다. 한국인 제1의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가 기독교에 의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 셈이다.

출판사에 근무하는 진기는 “예-수”라는 두 글자에 굴복한다. 그리고 퇴폐이발소에서 근무하였던 희선은 집회를 통한 ‘기도시간’에 중생을 체험하게 된다. 진기와 희선은 그동안 성(性)으로부터 억압된 자들이었다. 희선은 상품화된 성으로 자본주의적 물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성의 노예(상품화)에서 성(聖)의 자유로움으로 전회한다. 그녀는 예전에 친구와 함께 고향으로부터 가출하였지만 이제는 귀향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금성다방에서 근무하였던 진혜이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를 만난다. 혜이와 희선은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고향을 동경하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 누구나가 지니고 있는 모태 회귀 본능을 보여준다. 고향은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안식처요 또한 수구초심의 목표지라고 볼 때,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어 주는 곳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직업(무당, 식당 경영, 출판사 직원, 여승, 퇴폐이발소 안마사)의 화자들은 구원의 순간도 그들의 직업만큼이나 다채롭다.

조성기는 「하비루」에 이어 「가시동지」에서는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수의 수형 생활과 출옥과정을 그린다. 작품의 주인공은 죄수의 몸으로 인고의 세월을 구원의 여정과 함께 음악으로 견뎌내는 성숙한 모습의 서사를 보여준다.

조성기는 이 소설의 서문에서 ‘가시동지’가 독수리의 동지임을 소개하고 독수리가 새끼의 날개 짓을 위해 어떤 수고를 감내하는지 묘사함으로써 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본고는 ‘가시동지’의 의미가 세상 안의 또 다른 세상으로 죄수들의 교도소이면서 성경적 의미에서의 ‘가인의 성’¹²¹⁾이며, 그 가인의 성에서 거듭난(중생, 구원) 사람에 대한 기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럴 때 이 작품은 주인공인 김진수의 중생의 교리(구원에 이르는 여정)에 이르는 서사과정을 그린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중생의 과정에서 주인공이 거듭난 배경을 살펴보자. 1961년 K대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진수는 종매(從妹)를 죽인 살인 미결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다. 양자인 그가 큰아버지와 재혼한 과부의 딸을 죽였기 때문이다. 사형판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자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던 그는 경제사범으로 들어온 어느 장로에게서 성경을 선물 받는다. 교도소 내 인쇄공장의 주조반에 배치된 그는 불면증을 고치기 위해 성경을 읽는데 예수가 자신처럼 재판을 받고 사형수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 무렵 교도소에 위문을 왔던 김양과 의남매를 맺은 그는 그녀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성가대원이 된다.

진수는 주위 신자들의 전도와 조판반장의 인도로 교도소 교회에 나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동안 막연하게 읽었던 성경의 의미들이 분명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죄 사함을 지적(知的)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한다.

예수는 속옷 하나 없이 완전히 벌거벗긴 알몸이 되어 사형대에 높이 달린 채 피를 흘리다가 목말라 부르짖으며 숨져갔다. 죄수치고는 가장 비참한 죄수로 처참하게 처형된 것이었다. 진수는 거기서 자기가 겪고 있는 죄

121) 창세기 4장 15절 :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수로서의 모든 절망과 좌절과 분노, 수치와 모멸, 고통과 슬픔들을 예수가 맞본 사실을 알게 되었다.¹²²⁾

위의 마가복음의 구절에 이르러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죄인으로
로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를 끌어안고 희미하게 예수를 불렀다. 그
희미한 부름 가운데 예수의 모습은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
가오고 있었다. 자신이 신앙인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가 자신의 큰
바위 얼굴이 되리라는 예감은 들었다.

사실 진수는 김양의 권고에 따라 성경책을 읽어 나가고 있었다. 처음 요
한복음에서 시작하여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는데 위와 같은 혼란 상태에 빠
지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한 반면 마가복음에서는 귀신들린
자가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잠잠하라고 꾸짖고 있기
때문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도 발설하지 말라
고 경계하고 있다.¹²³⁾ 요한복음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예수를 정신이상자라
고 하는데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제자들은 그의 신적 능력과 부활을
목격한 사실을 두루 전파하는 데 몰입하고 있다. 신약 성경의 두 가지 상
반된 기록은 진수로 하여금 성경이 조작된 기록이나 사실이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만든다. 그 선택은 “예수가 정신이상자라고 하는 것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큼 큰 결단을 요하는 일이고, 예수가 하나
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가 정신이상자라고 하는 것만큼 큰 결단을
요하는 일이었다.”¹²⁴⁾

사 복음서(마태.마가.누가.요한)를 조합해서 분석¹²⁵⁾하면 어느 쪽도 선택
하지 못한 그에게 정신적 혼란은 더해만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 자신이 죄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집행을

122) 조성기, 『에덴의 불칼 제7부, 가시동지』, 민음사. 1992, 72쪽.

123) 조성기, 위의 책, 70쪽 요약.

124) 조성기, 위의 책, 71쪽.

125)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성경 제자들이 조작해 놓았다
는 것이었다. 예수는 범인 내지는 좀 훌륭한 성자 정도에 불과한데 그 제자들과 후대 사람들
이 자기들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예수를 신격화하여 구심점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예수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정신이상자에 가까
운 회대의 사기꾼이라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4복음서는 조작극을 위해 회합을 가졌단 말인가.
조성기, 위의 책, 71쪽.

당하는 장면이다. 그는 예수가 자신이 느끼는 죄수로서의 절망과 좌절, 분노, 수치와 모멸, 고통과 슬픔 등을 이미 맛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고통을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다. 곧 그의 인정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는 교도소에 들어 오기 전에는 대학생의 신분이었다. 곧 그는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수형생활을 하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지성인의 태도로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알 수 없는 끌림으로 의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일상인(일반적인 죄인)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신앙인이 되는 첫 단계이며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중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중생의 교리의 핵심이면서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이다.¹²⁶⁾

진수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설교 내용들이 귀로 들어와 마음에 부딪쳐 오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신기할 뿐이었다. 왜 저런 설교를 이때껏 들어 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까지 생겼다. 저런 설교를 좀 더 일찍 들었더라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저런 말씀을 영영 듣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후 그는 진정한 회심을 겪은 신앙인으로 성장한다.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면서 성경통신 대학 과정을 통하여 신학을 공부하는 한편 독학으로 작곡 체제까지 익힌다. 진수는 추수감사절에 세례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체험을 하게 된다.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믿습니까?” “예” “예수를 당신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까?” “예” …… 그 두 번의 “예”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 내 인생이 그토록 어둠속에서 곤두박질쳐 온 것만 같았다. …… 내 몸은 화상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¹²⁷⁾

세례를 받던 추수 감사절 날 진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꿈을 꾸고 그 감명을 작곡한다. 그 무렵 방송국 음악프로인 “우리들의 새 노래”에 창작곡 「견우직녀」를 응모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TV에 소개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얻는다. 또한 <제1회 전국 찬송가 작사 작곡대회>

126) 성기호, 앞의 논문, 32쪽.

127) 조성기, 앞의 책, 139~140쪽.

에, 「그 많은 날 지나고」를 작곡 응모하여 입선됨으로서 각종 언론매체에 소개된다. 이러한 일들이 계기가 되어 그의 수형생활이 세상에 알려지자 호의적인 여론들이 형성되어 1978년 12월 27일 제 9대 대통령 취임식 날 20년으로 감형 받는다. 1979년 5월 3일 18년 18일 만에 출옥을 한다. 이상스럽게도 대통령은 18년 만에 푸른 기와집을 벗고 아예 세상 바깥으로 출소했으며, 자신은 푸른 수의를 18년 만에 벗었다. 묘한 대비였다. 그는 출옥 후 ‘대한 어머니회’ 추천으로 문서선교회 편집부에서 일하게 된다.

진수는 교도소에서 경제사범으로 들어온 장로가 선물해준 성경을 읽고 마음의 변화를 보인다. 그 후 예배시간에 들은 설교를 통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왜 진작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던 지 아쉽기도 하다. 그리고 세례를 받던 날은 온 몸이 화상을 입는 듯하기도 한다. 꼭 그것은 자신의 죄악이 뜨겁게 타올라 소멸되는 느낌처럼 여겨진다. 여기에서 진수의 구원의 첫 단계는 성경말씀이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성경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설교들이 예전과 다르게 다가왔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던 날 웨슬레에게 일어난 회심의 사건처럼 온 몸이 화상을 입은 듯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원의 첫 단계로서 칭의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중생)은 의로움과 기쁨 즉,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다.¹²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란 구별된 삶을 말한다. 진수는 복음의 말씀으로 한없는 기쁨을 얻고 있으며, 거룩한 생활로 무기수에서 출옥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는 말씀과 세례의 매개체를 통하여 중생의 과정에 이른다. 진수의 구원 여정은 가장 일반적인 구원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상 「하루비의 노래」와 「가시등지」에 등장하는 하층민들의 구원의 서사에서 눈여겨 볼 것은 그들의 중생 체험이 그들의 세속적인 삶과 무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배경으로 삼아 심리적 변화를 겪음으로써 중생을 체험한다. 가령, 무당은 샤머니즘적인 의식 속에서 ‘산신과 예수신’사이에 있는 ‘신의 영역’부분에서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다. 무당 아들인 달영은 ‘어린 심리’에 어머니를 통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신앙의 통로에 이른다. 진기는 자신의 ‘타락한 삶(성적 중독)’으로부터 솟아오른 “예-수”라는 두 글자의 울림에서 거듭나게 되었다. 한숙은 불가에서는 ‘계율에 얽매었던 삶’이 ‘오직 은혜와 선물’이란

128) 윌리엄 케논, 남기철 역, 앞의 책, 155쪽.

성경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희선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상품화된 성(性)적 삶’의 죄악을 토해내면서 중생의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모두 이들의 중생 체험에 자신의 세속적 삶과 심리적 배경이 항상 길항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조성기의 소설에서 구원의 문학적 형상화는 개인의 삶에 나타난 슬픔의 눈물들이 서사 안에 내재된 기독교적 담론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 복음의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은 신의 일임과 동시에 인간의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조성기의 작품 「갈대바다 저편」에서 ‘나’로 등장하는 주인공 성민을 통해 드러나는 구원에 이르는 서사과정과 작품 「하비루의 노래」를 대상으로 다양한 하층민(민중)들의 구원에 서사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작품 「가시동지」에서는 감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성기의 기독교 소설에 형상화 되어 있는 구원(중생)의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그 구원의 교리로서 성경 말씀이 작용하였던 작품의 화자는 작가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민과, 특수 공간에서 구원함을 체험한 김진수와 여승이었던 문한숙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가 대학생의 시절로 시작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 곧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작가인 ‘나’로 등장하는 주인공 성민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성기의 소설은 방황하던 젊은 날의 한 영혼이 은혜와 구원의 주권자로 말미암아 ‘자유의 종’이요 말씀을 전할 자인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는 종교적 성장소설 서사를 취하고 있다. 이때 주인공의 신앙은 ‘지식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 누구나 선망하는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대학생회에 조금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늘 회의(고시공부)하며, 방황하였던 그는 선교단체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진수는 경제사범으로 들어온 장로가 선물해준 성경을 읽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 자신이 죄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집행을 당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예수가 자신이 느끼는 죄수로서의 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고통을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었다. 곧 그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길은 설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더 큰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그는 성경 통신 대학을 통하여 신학을 공

부하기에 이른다. 진수에게 예수는 ‘진정 죄인을 구원’하셨으며 신학을 공부하는 자로 리더의 위치에 있도록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여승이었던 문한숙은 자신의 바깥 속에 든 신약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녀도 대학생 시절에 출가를 한 바 있다. 곧 흔히 말하는 지성인의 전당에서 불교에 입문하여 도량을 닦았던 것이다. 성불의 경지에 이르고자 밤낮으로 수련을 쌓는 과정에서 오는 회의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수고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이 ‘선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다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중생을 체험하게 된 것이었다.

한편 『하비루』의 다른 주인공들의 경우 하충민의 서글픈 삶과 가족사의 서사를 조명해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삶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든다. 또한 그들 자신은 성의 상품화로 구겨지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삶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방편의 하나로 고향을 선택하고 있었다. 다시금 세상의 더러워진 때가 묻지 않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고향은 ‘자연이 주는 모태이며 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안식과 평화로움으로 자신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향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마음의 고향을 통하여 구원의 삶을 찾아가는 여성과 하나님의 중생 교리로 ‘구원의 과정’에 이르는 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곧 그들의 삶은 사회적 억압이 극심했던 정치상황과 산업사회의 그들이 컸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한국 민중들이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샤머니즘의 신비주의와 기독교의 이적 사이에서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한 마음의 변화(구원)보다는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다. 곧 텍스트의 시대적 배경인 1970~80년대의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까지도 이적을 갈망하는 그들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함으로서 구원을 확신한 신앙인으로 자신도 신비적인 환상을 쫓았으며, 방언을 통한 기도를 최고의 기도로 여겼다. 다양한 직업으로 다채로운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는 하충민들은 지식인들에게 구원의 교량¹²⁹⁾이 되었던 지적(知的)

129) 조성기의 작품 속의 지식인들이라면 작가인 나로 등장하는 주인공 성민과 여승이었던 문한숙을 들 수 있다. 먼저 성민은 법대생으로 ‘고시공부’를 준비 중에 ‘성경말씀(창세기 3장 9절)’로 구원의 경로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문한숙은 대학시절에 출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불가에서 ‘성불의 경지에 이르고자 밤낮으로 도량’을 쌓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참

인 통로로서의 구원이라기보다는 동적(動的)인 통로의 구원을 통하여 삶의 아픔과 정신적 고통을 치유 받고 있는 서사 구조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구원의 통로는 크게 지적 구원과 동적 구원으로 살필 수 있었다. 더불어 구원의 통로에 따른 기독교 교리의 서사적 전달 방식은 참으로 다양한 양상이다. 지적 구원자인 성민, 한숙, 진수는 설교와 성경을 통한 직접적인 인용 방식을, 동적 구원자인 달영은 체험을 통한 간접적 진술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희선과 진기는 고백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2. ‘성결’의 교리와 성장의 서사

기독교 복음의 두 번째 교리인 ‘성결’은 회심의 핵심이다. 곧 기독교의 교리적 핵심으로서 성결(성화)은 의인 중생(칭의)¹³⁰⁾과 함께 시작된다. 중생의 순간적 사건 이후에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성장이 있으며, 이 점진적 성장이 곧 성결이다. ¹³¹⁾

성결의 복음이란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으로 신자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거룩한 생활’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구별된) 삶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이웃과 나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신학이다.

된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는 가운데 우연히 자신의 바랑 속에 든 성경을 읽게 된 것이다. 그에게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하였던 구원의 ‘성경 말씀(에베소서 2장 8절,9절)’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작품 『에덴의 불칼 제7부 가시등지』의 김진수도 지식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는 대학2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에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다. 그는 ‘성경말씀’이 뜨겁게 다가왔다. 진즉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러한 그는 말씀과 세례를 통하여 체험적인 신앙을 하게 된 것이다.

130) 한영태, 「제2 성결과 중생의 구별」, 『활천』, 대한기독교 성결교회 활천사, 2013, 55쪽.

“성결과 중생은 확실히 구별된 은혜니 혼동치 못할지니라. …… 사람의 속에 있는 죄, 곧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유전하여 받은 죄를 깨끗하게 함이요, 중생은 사람이 세상에 난 후에 그 행동에 나타난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니, 비유로 말하면 중생은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것과 같고 성결은 나무의 뿌리를 뽑는 것과 같으니라.” 이명직 구술, 박현이 필기로 이루어진 <성결을 쉽게 아는 길>에서 한영태가 해설을 함.

131) 조종남, 앞의 책, 133쪽.

조성기의 기독교 소설은 자서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의 소설은 거의 자서전이라 할 만큼 개인적 체험의 소설적 변용이 희미하다. 그러나 작가의 삶(신앙인의 중생과 성결의 체험) 자체가 남달리 진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준다.¹³²⁾ 먼저 작가는 오직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추구해 가고자 한다. 그의 에세이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에서 조성기가 추구하는 성결의 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는지 살펴보자.

“내가 소설가로서의 영광을 탐해서 이 작품을 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테스트만 해 보고 소설가로서의 영광 같은 것은 꿈꾸지 않겠습니다. 이 작품을 응모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

하나님에게 소설을 빼앗겼던 십 수 년 동안의 그 자유와 기쁨과 고통은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나만의 비밀일 것이다. 소설을 쓰고 있으면 꼭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는 것만 같은 이상한 강박관념, 그것은 정신병적인 동시에 신앙적인 것이다. ¹³³⁾

조성기는 대학 3학년 여름방학 때 회심을 체험하고부터는 세계의 의미가 달라져 간다. 먼저는 법대생으로서 ‘고시공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이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글쓰기를 시작하였던 ‘소설가의 길’이 ‘신앙인의 길’에 장애물이 된다. 그는 믿음의 길에서 항상 자신과 갈등하며 고뇌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도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삶을 설계하기 시작한다. 사법고시나 문학을 포기하고 오로지 신앙의 길로 들어가겠노라는 삶의 설계인 것이다.

문학을 포기하겠노라는 스스로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틈틈이 작품 발표를 한다. 그는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던 작품 『만화경(萬華鏡)』을 응모하러가는 버스 속에서 갈등이 심화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손에 들고 있는 응모 작품이 깨뜨려야 만하는 우상처럼 보인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기도를 한다. 그 이유는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소설 같은 것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대학 4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는 1972년에는 또 한 번의 결심을 행

132) 이남호, 앞의 책, 264쪽 참조.

133) 조성기,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 문학사상사, 1990, 201쪽.

한다. 다시 한 번 이제 문학이나 소설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였던 책들을 모조리 버린다. 그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책들이 자신을 유혹할 수 없도록 모종의 조치를 취한 셈이다.¹³⁴⁾

조성기는 작가가기 이전에 기독교 신앙인이었으므로 복음의 교리를 문학적으로 수용하려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따라왔다. 차라리 문학적인 작업을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는 상태가 10년을 넘도록 자신을 지배하였다. 순전히 ‘개인적인 신앙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결코 슬럼프에 빠졌다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다. 그러한 생각을 바꾸어 쓴 작품이 「라하트 하헤렘」이다. 이 소설로 작가는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고 문단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소설가의 길’을 받아들인다.

작품 「라하트 하헤렘」¹³⁵⁾은 직역하자면 ‘그 칼의 불길’이란 의미의 히브리어로 창세기 3장 24절¹³⁶⁾에 등장하는 ‘화염검(火焰劍)’을 말한다.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금기를 어김으로써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불 칼을 장치해 두셨다. 이로써 인간은 영원불멸의 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유한한 세계로 옮겨진 것이다. 여기에서 아담의 후예들은 다시금 에덴동산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에덴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따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점으로 미루어 신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은 이것에 다가가려다가는 죄악의 흔적으로 인해 불 칼의 응징이나, 불 칼의 상흔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곧 이 불은 ‘해방이면서 상실’이고 ‘자유이면서 죽음’이며, ‘정화이면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라하트 하헤렘’이 내포하는 상징성이다.

134) 문순태 외, 「변명으로서의 소설론」, 『열한권의 창작노트』, 창, 1991, 233쪽 참조.

135) 작가가 김만수와의 대담에서 나누었던 담화내용이 다음과 같다. 작품 『라하트 하헤렘』은 군대라는 수용구조 속에 갇힌 한 젊은이의 정신적인 갈등을 소재로 한 소설이며, 한 인간이 수용구조 속에 갇히게 될 때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수용구조 속에서의 삶의 의미>를 상징적 수법으로 도입하였다. 불의 이미지로 연결 상징(connecting symbol)으로 삼았다. 복합적인 인간 내면의 정황들을 표현하는 데에도 불의 상징이 갖는 이점을 가스통 바슐라르 「불의 정신」, 성서의 상징이 『라하트 하헤렘』으로 형상화하였다.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통하는 면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버지에 대한 도전, 신과 교회 권위 도전, 전체에서 군대의 권위에 대한 도전 역시 주인공의 내부에서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으로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김만수, 앞의 책, 177쪽.

136) 창세기 3장24 :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개역개정판, 2007. “화염검”의 번역본은 ‘우리말 성경’으로 2007년 이전에 사용된 것이다.

작품 「라하트 하헤렘」은 ‘불’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주인공 청년의 군대 체험을 풀어 낸 성장소설이요 상황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의 입사식은 군에 입대하여 제대하는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작품을 상황소설¹³⁷⁾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인공을 작품 속에 설정된 어떤 상황에 놓고 이를 통해 기독교적인 종말적 구원의 의미를 천착하는 과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서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군대의 교회’라는 공간은 ‘군대’라는 부자유의 표상에 ‘교회’라는 금욕의 표상을 중첩해 놓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자유가 상실된 ‘군대’는 이 세계와도 비교될 수 있는 작은 세계이다.

이 소설에서 성민은 ‘성욕의 길에 버려짐’과 ‘성욕의 길에서 건져짐’을 모두 체험한다. 성민은 군중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러나 군인교회로 자리를 옮기기 전 내무반에서 ‘폐치카 당번’으로서 ‘불을 꺼지지 않게 잘 간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또한 그는 군인교회로 자리를 옮겨서도 ‘자나 깨나 불 단속’을 잘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졌다. 불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모르는 성민에게 불은 ‘여자의 음부를 연상케 하는 촛불’이거나, 자신의 절제되고 통제된 삶처럼 ‘절제된 촛불’로 다가온다. 그러나 성민의 상사인 군목에게 불은 ‘불안과 염려’의 기원이었다. 훈련소 조교와 군인교회의 군목¹³⁸⁾이 그렇게도 공포에 떠는 불을 성민은 점점 곁에 둔다. 촛불을 응시하는 불에 대한 몽상은 사랑의 불꽃을 타오르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 사랑의 불꽃은 이내 성욕의 불꽃으로 타오른다.

동순은 조각실의 나무둥치처럼 나뉘어갈 채 그대로 가만히 있기만 했다. …… 동순이 몸의 평평한 부분과 경사진 부분들을 보면서 낮에도 그랬지만 불길이다 지나가버린 화전을 언뜻 연상했다. 다시는 불이 붙을 것 같지 않은 그 텅 빈 화전에 어떻게 서든지 불을 붙이고만 싶었다. 내 속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그 불로써 말이다. …… 불길이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져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태우는 그 순간에 다다랐다.¹³⁹⁾

137) 임영천, 「종말적 구원의 의미-조성기「라하트 하헤렘」, 『새가정 384호』, 새가정사, 1988, 120쪽.

138) 조교는 주인공의 훈련소 시절 가장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지만 월남에서 화염방사기로 어린아이를 죽인 죄의식으로 고통당한다. 그리고 군목은 중위 때 군대의 화재로 인생의 실패를 감수해야 했고, 그 후로 불에 대한 노이로제를 앓고 있다.

139) 조성기, 『에텐의 불갈 제2부, 라하트 하헤렘』, 민음사, 1992, 198쪽.

성민은 결국 군목이 불에 대한 불안함과 공포로 밤낮없이 지키는 ‘군인교회’에서 동순과 성욕의 불꽃을 태웠다. 군목은 군인교회의 불꽃은 물론 흘러나오는 불빛까지도 수시로 점검한다. 그렇게 검열되고 방비되는 곳에서 주인공 성민은 내무반원들이 20세기의 기적이라고 일컫기도 했던 자신의 순결성¹⁴⁰⁾을 사랑의 불길에 태워버린다. 성욕에 지배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 불꽃은 성민을 자꾸만 불안스럽게 한다. 군목의 불안함과는 또 다른 성격의 불안이다. 그동안 성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으로 순결을 추구하였다. 그런데 성욕의 불길로 순결함을 태워버린 것이다. 창녀와의 밤을 보내면서도 지켜왔던 ‘성역’이 바로 자신의 동정이었다. 그는 군종으로서 상실한 순결성에 대하여 불안함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갈등한다. 그리고 자신이 불꽃을 피웠던 자리에 남아있는 잿더미를 그 흔적까지도 소멸시켜 버리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다. 곧 ‘군인교회’가 소멸해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교회 지붕에는 이제 불기둥이 세워졌다. …… 문득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시뻘건 피를 흘리고 있었다. 특히 심장 부근에서 더욱 많은 피가 흘러내렸다. …… 아,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상이요, 동순 정미 군목 아버지의 상, 모든 병든 인간들의 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돈과 죄책의 치 내리는 불길에 덮여 있는 나 자신의 상이었다. ¹⁴¹⁾

성민은 ‘군인교회’에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서도 외면해 버린다. 그곳은 자신의 순결성을 성욕의 불길에 넘어뜨려버린 장소이다. 그는 그러한 교회 건물이 불타버리길 바라는 심적 상태이다. 성민은 교회 지붕까지 솟은 불기둥을 보면서 자신의 성욕의 흔적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느끼며 일종의

140) 소년들에게 ‘동정(virginity)의 상실’ 운운하는 것은, 기억할 수 없는 먼 옛날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틀린 말이다. 첫 성 경험은 소년들에게 하나의 플러스, 하나의 소득이다. 그것은 미래를 보여주는 일종의 부적이지만, 그러나 자아의 핵심적인 면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남성적 능력을 나타내는 다른 휘장들 중의 하나로서 그러하다. 반대로 소녀들에게 있어서 처녀성은 아직도 포기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녀들은 초기 성경험의 일부로서 처녀성을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를 별다른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올바른 시간과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그 사건은 낭만적 서사와 직접 연결된다.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황정미 공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2001, 93-94쪽.

141) 조성기, 앞의 책, 227쪽.

‘정화의 감정’으로 불꽃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불타는 십자가에서 시뻘건 피를 흘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 거기에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동순과 정미 그리고 군목과 자신의 아버지가 겹쳐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민 자신이 불길에 덮인 형상을 하고 나타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로 에덴동산에는 불 칼이 세워지게 되었음은 앞서 말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였던 죄의 결과에 순응하여 그 불 칼의 세례를 받았다면, 성민처럼 ‘정화의 감정’으로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와 해방을 느끼지 않았을까. 성민은 활활 타는 ‘군인교회’의 소멸에서 자신의 죄악은 물론 동순과 정미의 정신병까지도 치유됨을 예감한다.

군중으로서 성결한 삶의 표본이 되어야 했던 성민은 그동안 지켜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던 부분이 있다. 그것은 ‘성’의 성결함에 대한 갈등이다. 몇 번에 걸친 창녀와의 잠자리를 넘기면서도 ‘성’의 성결함을 지켜왔다. 그런데 그는 인류의 시조(아담과 하와)가 금기(선악과)를 어겼듯, 자신이 지켜왔던 금기(성의 순결)를 깨어버린다. 여기에서 인류의 시조는 화염검(불칼)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후예들로 하여금 원죄의 길에서 회복(중생, 성결)되어야 될 과정을 인류의 과제로 남겼다. 그러나 성민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불 칼의 세례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 불세례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정미와 동순이 회복되는 기적까지 일으킨다.

성민은 모든 죄와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특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한 인격으로 성장하고자 기도하는 군중이다. 그러나 그는 ‘성욕의 불꽃’으로 성결의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된 것이다. 구원의 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성결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결국은 넘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타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로움을 얻는다. 성민은 성결의 성경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마5:48)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벧전 1:15~16)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완전한 사랑의 불꽃’을 태워가는 과정에서 몸부림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회색신학교」는 성민이 ‘자유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그곳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조성기는 이 책의 ‘작가의 말’에서 「회색 신학교」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회색에는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도중의 회색이 있고,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도중의 회색이 있다.”는 사실에 ‘회색 신학교’가 어떤 종류의 회색인지는 아무도 속단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검은색 쪽의 회색보다는 흰색 쪽의 회색방향에서 갈등함을 엿볼 수 있다.

성민은 신(神)과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회의로 갈등을 한다. 그것도 신학적인 사고를 요하는 사제들의 교육기관에서 회의에 빠져든다. 그것은 정통적인 신의 개념과 성경관에 대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적절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대책 없는 회의를 반복한다. 성민은 신학생들이 흔히 앓고 있는 회색병에 걸린 셈이다. 곧 성서와 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신학의 길을 떠나버릴 수 있는 용기나 결단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채 주춤거리고 있다. 이러한 점을 작가는 텍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제1부, 2부, 3부에서 주인공은 여러 가지 회의들을 겪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대 상황과 공동체에 대한 회의의 범주에 속하였지, 신(神) 그 자체에 대한 회의는 아니었다. 주인공은 거기로부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은근히 주저하고 있었다. …… 4부에서 주인공은 드디어 신(神)과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회의로까지 나아간다. 그것도 신학적인 사고(?)를 기초로 그런 회의로 빠져든다.¹⁴²⁾

위의 글에서 곧 성민의 회의가 결코 한 개인의 회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성민의 신에 대한 회의는 오늘날의 신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겪어왔던 회의를 대표하는 것이다. 성민이 앓고 있는 회색병, 곧 ‘성경’과 ‘신에 대한 확신’의 부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성민이 신학교에 와서 회색병을 앓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먼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요인들은 항상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를 둘러싼 사회적(기독교회적) 환경 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초등학교 이성친구로부터 소개 받게 된 공동체에서 ‘중생의 교리’를 받아들였으며,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반교회적인 그 공동체(선교 단체)에 대한 비판의식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142) 조성기, 『야훼의 밤 제4부, 회색 신학교』, 고려원, 1988, 작가의 말 중에서.

교엘 가 보리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신학교에 다니던 때에 소위 영락교회 당회장인 목사의 거액 외화 유출사건이 터진다. 성민은 이 사건으로 인해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그는 자신이 받았던 충격을 “한국 교회 전체가 벌거벗기고 있었고 수치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었다.”¹⁴³⁾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는 귀가하여 아내에게 “나 신학교 공부할 마음 싹 사라졌어.”라고 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실망은 신학교를 다니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록 그 목사가 성민이 다니고 있는 신학교의 이사장직에 있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회의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다가온 회의는 실은 여러 부분으로 다가왔다. 우선 사회적인 배경을 떠나서 신학교 안에서 신학생에게 다가온 갈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신학 수업 도중에 받는 충격으로 흥미감에 휩싸이게 된다.

성경에도 민중사관적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려는 입장과 왕권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려는 입장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과연 성경을 어디까지 진실로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이 일어나곤 하였다. 신약에서 예수가 말한 성경관, 가령 모세의 책이라고 언급한 부분 같은 것까지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예수에 대한 생각도 바뀔 지경이 되었다.

이쯤 되면 성경의 일점일획에 매여 껍껍거리던 마음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과연 이 자유를 누려도 되는 건지 황송스러워지기도 했다.¹⁴⁴⁾

위의 글은 그의 동료 신학생 명수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곧 명수의 관점이 성민의 관점이요, 오늘날의 신학생들이 앓고 있는 회색병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 신학자로 세계학회에 알려진 신학교의 교수는 ‘성경을 영감된 책이라고 보기보다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인간들이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기술해놓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편집한 책, 그러니까 인간의 작품일 수도 있다.’¹⁴⁵⁾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에게는 전해졌다. 성민은 그

143) 조성기, 『에텐의 불칼 제5부, 회색 신학교』, 민음사, 1992, 56쪽.

144) 조성기, 위의 책, 152~153쪽.

145) 조성기, 위의 책, 150~151쪽.

동안 선교단체에서 ‘성경의 무오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 단체에서는 신학교란 신앙을 방해하는 신학이론들만 가르치는 곳이라는 인상을 늘 심어주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민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는 과정에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세워나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신학교 재학 중 십여 명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양 언성을 높이기까지 하였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자꾸만 회의가 일어났다. 그동안 단순하게 말씀을 믿었던 ‘신앙’과 ‘신학’의 이론들 사이에서 갈등은 증폭되어 갔다.

성민은 오랫동안 몸담아 오던 신앙 공동체를 떠나오면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 신학을 통하여 신앙의 체계를 나름대로 세워 보고 인생의 방향을 세워가려 한 것이다. 곧 그는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하는 길로 진입한 것이다. 그는 이미 ‘중생’의 체험을 지나서 ‘성결’의 과정에서 신학을 통한 성경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성결의 ‘점진적인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까지도 회의하는 지경에 이른다. 가장 성결하여야 될 신학생의 길에서 끝없이 고민하며 갈등하는 성민이다. 그것도 신앙의 체계를 기본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성경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웨슬레는 신앙체험을 강조하였으나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었다. 그는 교회의 전통도, 인간의 이성도 성경의 권위에 예속시켰다.¹⁴⁶⁾ 성경은 성결의 교리를 세워 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신학생으로서 성민의 고민은 하나님이 요청하는 성결된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도중에 나타나는 고민과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그의 갈등구조(말씀)를 통하여 성결 교리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성민은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신학을 공부한다.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최초의 원인에는 자신을 구원(중생)의 체험으로 이끌었던 선교단체가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또한 그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 막기도 하였다. 그는 신앙의 충돌로부터 그곳을 떠남으로써 성숙된 신앙의 길(성결)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성결은 갈등에 놓인다. 그는 작품 「길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 시키는’ 선교단체의 리더(목자)에게 반발하고 그곳과 결별하게 된다.

146) 조종남, 「웨슬레 신학과 한국성결교회」, 『환태평양 시대의 웨슬리 성결운동』,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6, 360쪽.

미국 같은 강대국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는 바이지만 이제 한국이 미국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썩어가는 미국이 한국 선교사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길갈>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선교를 위해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저는 한국 회관 역사를 맡을 후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 후계자는 …… .147)

선교 단체의 총 책임자인 민식 목자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폭력 행위를 서슴지 않으며, 회원들의 결혼까지도 ‘결혼명령권’을 발동하여 정략적인 결혼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현금을 유용하는가 하며 목자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선교후보들의 머리를 박박 깎아 버리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왕국을 건설하여 나갔다. 여기에 반대를 한 각 지역의 시니어 목자들은 쉽지 않게 마련한 공개서한을 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시니어목자들은 총 책임목자의 후계자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는 미국으로 파송(떠나려)받기를 원하면서 시니어들 가운데서 후계자를 세우는 계획을 백지화시켜 버린다. 그리고 성경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간다. 그는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한국에서 당한 모든 수치들을 세계 선교를 통하여 능히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확신하기도 한다.

인턴 목자인 성민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선교단체를 떠나려 하였다. 그러나 그 때마다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작품 말미 성민은 스텝 미팅 역사상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 민식 목자 면전에서 “목자님은 어찌면 그렇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척척 합리화시키기를 잘합니까?”¹⁴⁸⁾라고 한 것이다. 성민으로서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민식 목자에 대하여 도전적인 발언을 한 셈이다. 그리고 그 말은 성민이 회관을 떠나기 전에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이었다. <길갈>은 그야말로 성민의 ‘갈길’이었다.

성민이 선교단체를 떠난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

147) 길갈이란,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발랑 끝에 요단강을 도하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셨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곳 지명을 굴러간다는 의미를 지닌 <길갈>이라고 한다. 조성기, 『에텐의 불칼 제3부, 길 갈』, 민음사, 1992, 258~259쪽.

148) 조성기, 앞의 책, 260쪽.

다. 그의 결단은 성민을 새롭게 만들어갔다. 신학생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삶’으로 성숙된 신앙인의 길로 나아가려 하지만 갈등한다. 그는 선교단체에서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합리화 시키는 책임목자’에게 실망하였으며,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의 이론’에서 심한 충격을 받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가고자하는 훈련의 과정에서 바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갈등하는 것이다. 자신의 구원 과정에는 성경말씀이 항상 있었다. 그런데 성결의 과정에서는 그 성경말씀의 해석 가운데 갈등만 양산되어가는 형국이다.

성민은 군중으로서 ‘군인교회’에서 근무한 바 있다. 그곳에서의 임무는 군목과 함께 군인들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 할 수 있다. 군중이란 중생의 과정을 지나 성화된 신앙인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민은 ‘성욕의 불꽃’으로 자신을 태워버린다. 그리고 그는 죄악으로 인한 불안을 타고 있는 교회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킨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자신을 태워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작품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은 조성기의 수필집으로 작가의 신앙고백적인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작가 자신은 대학 3학년 때에 회심(중생이후)을 체험하고 성화(성결)의 부분에서 결단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법대생으로 하고 있는 ‘고시공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소설가의 길’도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물이었다. 그는 먼저 고시공부를 포기하고 소설가의 길도 10년 넘게 멀리하는 결단을 한다. 작가의 삶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기도로 타협하며 ‘소설가의 길’을 회복한다.

작품 「길갈」, 「회색신학교」, 「라하트 하헤렘」은 그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자전적인 성장소설로서 작가 자신이 주인공 성민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의 이력과 매우 흡사한 배경을 지닌 작품들이다. 작품 「라하트 하헤렘」에서는 주인공 성민이 군대에서 ‘성욕’으로 하나님과 갈등한다. 그리고 성민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선교단체에서 ‘책임자인 목자와의 갈등’을 작품 「길갈」에서 살펴 볼 수 있었다. 작품 「회색신학교」에서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성민이 ‘성경 말씀 해석’부분에서 ‘신앙’과 ‘신학’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서사들을 살펴보았다. 이 모두가 자전적인 사실들로 작가의 수필과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민이라

할 수 있는 <작가인 나>를 통하여서 성결의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작가이자 주인공인 성민은 신앙의 성장을 갈망하는 상황에서 항상 ‘갈등의 구조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그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자신의 길(고시공부, 소설가)’과 ‘성육’ 그리고 ‘성경 말씀’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볼 때, 그의 신앙적인 갈등은 곧 신앙적 성숙으로 가는 성화의 서사과정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 「가시등지」와 「베데스다」의 주인공에게서도 성결의 서사는 나타난다. 이 작품의 주인공 진수는 특수 공간인 교도소에서 중생을 체험¹⁴⁹⁾한 바 있었다. 이후로 그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성가를 작사하기까지 이른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진수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변화를 받는 성화의 생활을 한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재소자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에서 변화된 삶을 뚜렷이 보여준다.

“여러분, 나는 기독교 회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동료를 치고 있습니다. 이성을 되찾으십시오. 폭력은 폭력을 부를 따름입니다.” ……

교우는 불과 3년 사이에 50명에서 500명으로 불어났다. 불신자로 있다가 믿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실로 놀라운 증가라 아니할 수 없었다. 수요일 1시에 모이는 기독교 집회에 인쇄공장 상층의 150명 중에서 70여 명이 대거 참석함으로 인하여 작업이 일시 중단되기가 일쑤였다.¹⁵⁰⁾

진수가 간혀있는 감방이 긴급조치법 위반자들로 갑자기 들끓는다. 이에 따라 미결감 감방이 모자라게 되어 기결감 감방의 일부를 미결수들에게 내어주게 되는데, 한 건물 안에 300명이나 되는 기결수가 수용되어 있으므로 마치 정신 병동처럼 사고가 그칠 날이 없었다. 관리들은 선불리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잘못하다가는 집단폭행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반장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재소자들을 편파적으로 대하며 반장들을 통하여 뇌물을 은근히 요구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149) 3장 1절 ‘중생(구원의 여정)’부분에서 김진수는 ‘말씀과 세례’를 통하여 체험적 구원을 얻게 됨을 살펴보았다.

150) 조성기, 앞의 책, 245~246쪽.

불만을 품게 된 재소자들이 들고 일어나 패싸움이 붙게 되고 보안과 직원들이 왔지만 수습할 길이 없었다. 그들은 궁리 끝에 진수를 내세워 그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다.

진수는 재소자들의 잦은 싸움을 중재하고, 관리들의 부당함에 항변하며, 재소자들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배식까지도 담당하였다. 그의 헌신적인 수고로움은 그로 하여금 우량수들이 1년에 한 번씩 뽑는 ‘1급 대표’에 뽑히게까지 하였다. 이때 그는 무엇보다도 감방을 기독교 신자들의 공간으로 변화되게 하였다. 심지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인쇄공장의 죄수 150명 중에서 70명 이상이 수요일이면 열리는 기독교 집회에 대거 참석함으로써 작업마저 일시 중단될 정도였다. 이러한 사건 이후, 진수는 자신의 존재가 감방 안에서는 물론 감방 밖인 사회에서도 신문으로 기사화되는 사실에 놀란다. 그 기사는 ‘1급 모범수로서 모든 자치활동에 있어 귀감을 보이며,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¹⁵¹⁾이라는 요지였다.

그는 추수감사절에 세례를 받으면서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소자 생활은 날마다 변화되어갔다. 외적으로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로움이 깃든다. 그러다 거기에서 울려 나오는 기쁨을 찬송가로 작사를 하기에 이른다. 그의 삶은 가장 성경적인 성결의 서사 과정을 보여준다. 성결은 첫째로 ‘강력한 구별’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온전한 성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현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¹⁵²⁾ 성결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의 내재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삶에서 도덕적 특성이 수립되고, 신앙의 새 능력과 담대함이 주어진다.

성결의 특성을 소유하게 된 진수는 언젠가 배앓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하였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도소 생활에서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오랜 복역의 세월동안 살려 두셨다가 감형을 받아 이 사회로 나가게 하신다면, 내 건강 내 생명 다하여 이 사회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¹⁵³⁾라는 기도다. 그는

151) 조성기, 위의 책, 249쪽 요약. 연작이전의 『가시등지』에서는 진수의 고백으로 “나는 나의 존재가 숨길 수 없는 산위의 동네와 같이 되어 이제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을 절감하였다.”라고 한다. 『에텐의 불칼 제7부, 가시등지』에서는 삭제되었다.

152) 존, 토마스, 앞의 책, 163쪽.

자신의 기도처럼 이 사회가 아닌 교도소 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곧 그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서 성화의 교리를 이루어 가고 있는 주인공이다. 「베테스다」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결의 과정이 발견된다.

작품 「베테스다」는 동생 홍석이가 정신이상자이고 형 홍규가 동생을 치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성기는 자신의 수필집에서 「베테스다」를 통하여 ‘인간이 인간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다루어보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한다.¹⁵⁴⁾ 형 홍규는 정신이상자인 동생을 도우려고 온 마음을 다 기울이다가 결국 자기 자신도 정신이상을 일으키고 만다. 이기적인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고 사랑을 쏟아 부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자신도 동생의 정신을 닮아가 정신이상자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조성기는 이 작품을 형이 동생을 ‘미친 듯이 사랑하다가 자기도 미쳐가는 이야기’라고 한다. 물론 일반적인 사회의 시선으로는 형 홍규가 동생 홍석처럼 미쳐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도 인간에게 ‘완전한 사랑’이 어디까지인가를 고민하였으며, 그에 반하여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기로 마음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이 바로 미치는 순간이라는 역설’¹⁵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당황해 하기도 하였다고 고백한다. 본 텍스트를 연구하였던 기애도는 자신의 논문 『1980년대 나타난 기독교적 담론 양상』¹⁵⁶⁾에서 “은사에 대한 갈망으로 파멸에 이르는 형제의 심리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형이 동생을 향하여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결단하는 행동들을 성결의 교리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홍규가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진정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성결의 교리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이다. 홍규는 동생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사랑을 꿈꾸며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완전한 사랑의 행동을 표출한다. 그러나 사회는 그를 정신병자로 바라본다.

동생 홍석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등 세상의 온갖 문제를 고민하느라고 생각이 분산되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문제인 줄은 모르고 세

153) 조성기, 앞의 책, 195쪽.

154) 조성기, 앞의 책, 42쪽.

155) 조성기, 『베테스다』, 고려원, 1988, 표지 글.

156) 기애도, 앞의 논문, 『가시등지』와 『베테스다』를 논문에서 처음으로 연구하게 됨.

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떠안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학교 1학년 여름바다에서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트라우마가 있다. 친구와 놀던 보트가 뒤집혔다. 그는 간신히 구조보트의 배전을 잡았지만 친구는 자신의 한쪽 발을 붙들고 늘어졌다. 자신이 물로 빨려가려 하자 친구의 팔과 가슴을 마구 차버린 것이다. 친구는 구조가 되었지만 병원으로 실려 가는 길에 죽게 되었다. 홍석이 육체적으로 허약할 때마다 꿈속에서 그 친구가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이다.

형 홍규는 동생의 트라우마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려 노력한다. 이러한 가운데 형은 홍규와의 이야기 속에서 동생의 병이 어머니를 간호하였던 기도원에서부터 발생하였다는 단서를 잡게 된다. 홍규는 수줍음이 많았던 동생이 당황스러울이 만큼 행동을 거칠게 하며, 언변이 유창함을 보면서 분명 기도원에서 기도에 연유한 것임을 짐작하고 동생에게 묻는다. “방학 때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한 모양이지?” 동생 홍석은 “맞아요. 나,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그대로 눈에 보여요.”¹⁵⁷⁾ 라고 하면서 온 세상의 악을 노려보듯 눈을 부라린다. 형은 홍석의 증상이 기도원에서 기도 가운데 얻게 된 병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이후 그는 동생의 병을 기도로 고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집회와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동생의 정신병은 점점 깊어만 갔다. 이제는 발작에 폭력까지 행사한다. 중학교 영어교사인 형은 학교에 휴직계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동생의 정신을 치료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려고 결단한다. 형은 홍석의 병은 기도원에서 기도를 잘못해서 생긴 병이므로 능력 있는 참된 기도를 통하여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데리고 귀신을 쫓아 내는 데 능력 있다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 나섰다. 동생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하여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아내도 사랑하지 않는 녀석! 너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선생이라구! 순진한 애들에게 영어 나부랑이나 가르치며 미국 물이 들게 하는 파렴치한 녀석! 자식, 너 같은 건 죽어야 해!” 홍석은 마구 욕설을 퍼붓기까지 하였다. 욕설의 내용으로 보아 홍석은 홍규의 존재를 의식하고

157) 조성기, 『에덴의 불칼 제6부, 베데스다』, 민음사, 1992, 52쪽.

있음에 틀림없었다.158)

홍석은 갑자기 형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면서 욕설을 퍼부어 된다. 욕설의 내용으로 보아 홍석은 형의 존재를 분명 의식하고 있다. 그는 난리를 한참 피운 후 능력 많고 사랑 많은 현신에 권사에게로 보내달라고 형에게 부탁한다. 형은 동생의 말을 들어주기로 한다. 그렇게 함께하는 길에 형을 때려서 피가 나도록 구타를 하는 동생이다. 그러나 홍규는 동생의 주먹이 날아올 때마다 홍석과 대항하지 않기로 거듭 다짐한다. 나는 ‘내 동생을 사랑한다.’는 말을 되뇌며 끝까지 완전한 사랑을 보이려 노력한다. 그러나 홍석의 정신병은 그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다.

문제는 사랑이었다. ……

완전한 사랑,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리라. 진정으로 영에 속한 세계로 들어갈 수 없으리라.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결단코 없으리라. 홍규는 말할 수 없이 초조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이제 정말 결단할 때가 된 것만 같았다.
159)

홍규의 내면 가운데서 자꾸만 이상한 기운이 올라왔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이 몰려오기도 하였다. 그 고통은 지금 당장 실천하는 사랑으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때마침 12월의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가 보였다. 홍규는 거침없이 양복저고리 와이셔츠를 벗어 그 거지에게 입혔다. 그 거지는 다 헤진 양말에 찢어진 검정고무신을 신고 있어 발가락이 드러나 보였다. 홍규는 자신의 양말과 구두까지를 그 거지에게 신겨주었다. 동네 아이들은 구경거리를 만난 듯 홍규 뒤를 줄줄 따라왔다. 그렇지만 그는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았다. 아이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본으로 보여 준다는 자부심만 마음에 가득하였다.

동생에게는 물론 거리에서도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홍규는 마음 가득한 기쁨이 차오른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기에 내복차림에 맨발이지만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의 행동은 성화의 본질에 이른 삶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러나 작품

158) 조성기, 앞의 책, 128쪽.

159) 조성기, 위의 책, 264쪽.

의 배경에 등장하는 거리의 사람들(아이들)은 그를 ‘정신이상자’로 취급하는 시선들을 거두지 않는다. 성화의 근본은 온전한 사랑, 혹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웨슬레는 온전한 성화란 곧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랑’으로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완전의 전부’라고 말한다. 홍규는 동생의 정신적 질환을 치유키 위하여 전국을 함께 다니면서 ‘완전한 사랑’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려 노력하였다. 그는 성화된 삶으로 성서가 말하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껴보지만 사회(거리)의 시선은 ‘미친 자’로 보는 것이다.

이상 ‘특수한 공간’에서 성결된 삶을 보여주는 진수와 ‘특별한 배경’에서 성화된 삶을 보여주는 홍규의 갈등을 살펴보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이룬 후 내면에 성화된 삶의 표출로서 행동한다는 점이다.

진수는 신앙인으로 “내 생명 다하여 이 사회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나이다.”¹⁶⁰⁾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그는 교도소 내 인쇄공장에서 총반장이 되고 성가대장이 된다. 이는 그가 수감자들에게 모범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았다는 결론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전에 누리지 못하였던 마음의 평화로움이 항상 차고도 넘쳤다. 그가 인쇄공장에서 만난 수감자들도 (김)지하 시인이나 박 목사 등 반체제 지식인들이어서 그동안 만난 어떤 죄수들보다도 유순하고 우호적이며 감동까지도 주는 수감자들이었다. 진수는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 층 더 성장된 신앙인으로서 성결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홍규는 12월의 거리에서 만난 거지에게 자신의 사랑(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한 그는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이러한 홍규와 진수의 성화된 삶을 통하여 사중복음의 두 번째 교리인 성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작가 조성기의 의도였으리라는 사실을 쉽사리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작품의 인물과 신학의 교리를 통하여 작가 조성기만이 고유하게 주장하는 심리적인 흐름이 내재하고 있음의 증거가 될 만하다.

160) 조성기, 앞의 책, 195쪽.

3. ‘신유’의 교리와 성장의 서사

본 절에서는 조성기의 작품 세계에서 웨슬레의 복음 가운데 ‘신유’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 사중 복음 신학의 세 번째 규범은 ‘신유’이다. 신유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의 교리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게 당면한 ‘영과 혼과 육’의 문제에 대하여 중생이 ‘본질적 생명’의 차원을, 성결이 ‘실존적 사랑’의 차원을 다룬다면, 신유는 ‘현실적 회복’의 차원을 다루는 것이다. 신유의 복음은 중생과 성결의 복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복음이다. 따라서 중생과 성결의 두 교리에 부수되는 은혜로 주어지는 ‘신유’가 조성기의 작품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 되었는지를 살펴며, 정신질환자의 치유를 위한 여정의 서사를 살펴보는 것이 이 절의 내용이다.

조성기의 작품에 묘사되는 “야훼의 밤”이란 탈출의 의미를 담고 있다.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종살이로 상징되는 땅 애굽으로부터 벗어남이 곧 야훼의 밤이다. 히브리인들은 스스로 탈출을 시도하였던 것이 아니다. 그들의 탈출은 야훼(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놓은 사건이다. ‘종살(노예)이어서 자유인’으로의 탈출은 그 자체로 공동체의 놀라운 사건이요 인간 회복의 역사이며 치유이다.

『에텐의 불칼』의 주인공 성민은 “우리 인생은 탈출의 연속”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기독교 선교단체를 통하여 현실적인 탈출을 감행한다. 구원(중생)의 체험으로 자신의 인생계획표를 하나님 중심의 계획표로 바꾼다. 그러한 가운데 작중 인물들이 ‘신유’의 체험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작품 속에 형상화 된다.

그 포근함 속에서 숨이 차고 쓰라리던 가슴이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고 내 온몸을 장악하고 있던 머리의 두통도 어느새 사라졌다. 의사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던 나의 병의 원인이 신기하게 제거된 것 같았다. ¹⁶¹⁾

성민은 선교단체에서 어느 해 겨울 일주일간 창세기를 공부한다. 그는 마지막 날, 결단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기로 한다. 물론 그렇다고 기독교의

161) 조성기, 앞의 책, 154쪽.

교리가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타락한 어거스틴을 성자로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는 이 무렵 의사도 병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던 질병으로 집에서 지내게 된다. 가끔 선교단체에서 찾아(심방)와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었다. 그는 혼자서 입을 벌려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의 통증’과 ‘머리의 두통’이 사라짐을 느낀다. 원인을 알 수 없고 병명도 알 수 없었던 병이 치유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웨슬레의 복음 가운데 ‘신유’의 체험이란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성민은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특별 신유’를 체험한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특별 신유의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의사도 병의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던 질병을 ‘오로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체험이 있는 후로는 친구 영철이가 나타났던 꿈까지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주인공의 치유 과정이 곧 ‘신유’의 교리에 대한 문학적 대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유의 체험은 성민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친구를 전도하기에까지 이른다. 그는 법대생으로 고시공부를 하면서도 방탕한 생활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 중환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공부를 하였다. 그 친구에게는 ‘니코틴 중독’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문제였다.

중환과 나는 담배 화형식을 가졌다. 중환은 진지한 표정으로 담배 한 갑을 풀어 장작을 쌓듯 한 개비씩 재떨이에 쌓아놓았다. 그리고 잠시 목도를 한 뒤에 성냥불을 담배 무더기에 붙였다. 불길은 천장 가까이로 솟아올랐다. 그 불길을 바라보며 중환이가 외쳤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배 귀신아 나가라!” 162)

중환은 담배 화형식을 하였던 이후부터 신기하게도 담배를 끊기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려고 손가락을 붕대로 감아보기도 하였지만 작심삼일에 불과했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여도 기적과 같다고 말한다. 성민은 친구의 고민 앞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히 담배 같은 것은

162) 조성기, 앞의 책, 193쪽.

끊어진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었다.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된 그는 선교단체에서 주체하는 수양회에서 요한복음 강의를 듣게 된다. 중환이는 강의를 통하여 바로 자기가 “니고데 모였고 사마리아 여자였음을 깨달았다”¹⁶³⁾고 고백한다. 중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의식이 흐려져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중독의 죄악성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다. 그에게 임한 치유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인 것이다. 신유는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온 인간의 질병과 연약함도 고쳐준다.¹⁶⁴⁾ 중환은 성민을 통하여 성경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신유의 말씀들을 믿게 되었다. 곧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개인적 믿음으로 신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친구 중환이와 같이 성민의 외할머니도 신유의 체험을 하게 된다. 성민의 가족은 아버지의 몰락 이후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그리고는 몸져 누워버린다.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으며,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병원을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어 한방(침)으로 치료하며, 민간요법을 동원하는데, 외할머니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조금씩 몸을 일으키게 되었지만 대소변은 받아내어야 되는 지경이었다.

그 무렵 외할머니를 자주 찾아오는 교인의 무리가 있었다. 여호와증인¹⁶⁵⁾의 왕국회관을 다니셨던 외할머니는 은근히 그들의 방문을 기다린다.

163) 니고데모 : <니고>라는 말은 정복자·지도자라는 뜻이고, <데모>는 백성·민중이라는 뜻이다. 민중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는 바리새인으로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70인으로 구성된 대법정 산헤드린의 관원으로 정치적인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학문적인 지도자였다. 조성기, 앞의 책, 195쪽.

니고데모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설명을 듣게 된다. 물은 씻는다는 의미로 이전의 육적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출발이 ‘회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성품을 주신다. 요한복음 : 3장1절-21절.

사마리아여인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현재는 남편이 없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녀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신다. 여인은 영생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다. 요한복음 : 4장 1절- 42절.

164) 성기호, 「재림론을 중심한 심프슨의 사중복음」, 『논문집 23집』, 성결교신학대출판부, 1994, 34~35쪽.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집이 떠나갈 듯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의 눈치나 태도에 구애됨이 없이 담대하게 행하였다. 그 교인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면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외할머니의 그 처진 입에서 우렁찬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외할머니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소리였다. 다른 일이 안 일어나고 그 소리만 터져 나왔다고 해도 그건 기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수-승-리-” 그것은 그 교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호였다. 외할머니는 그렇게 그들의 구호를 힘차게 복창하며 벌떡 일어났다. 상체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로 방바닥을 딛고 일어선 것이었다. 166)

외할머니는 계속해서 “예수 승리, 예수 승리”를 반복하였다. 그동안 외할머니는 10년 넘게 여호와증인의 종파에 속하였다. 그런데 방언의 기도와 함께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신자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장담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신유의 교리’로 치료하시는 하나님(Healing God)의 복음을 나누었던 것이다. 외할머니는 성민이를 데리고 그들의 교회를 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민이는 선교단체에서 거부하였던 일반교회를 쉽게 갈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외할머니에게 임한 신유의 통로를 알아보고 싶었다. 과연 외할머니에게 이끌림을 주었고 증풍을 치유하였던 그들의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다. 어느 날 외할머니 모르게 혼자서 그 교회를 갔다. 그곳에서 마침 목사는 설교시

165) 여호와와 증인(Jehovah 's Withesses)은 1912년 홀리스터(R. R. Holister)선교사가 내한하여 전도를 함으로부터 시작된 여호와증인은 미국산 이단(몰몬교, 안식교, 릿셀파-여호와 증인의 초기 명칭)이다. 그런 여호와 증인은 1957년 10월 한국에 사단법인 워치타워(Watchtower)를 설립하여 워치타워 간행물을 들고서 축호 전도를 하면서 끈질기게 설득작전을 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한 종파인 듯싶어 그 정체를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우호적으로 대하게 된다.

여호와 증인은 군 복무시 집총(執銃)을 거부하며, 수혈을 거부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새 세계 번역 성경』을 갖고 있으며 ‘삼위 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인성(人性)’만을 주장한다. 또한 ‘적은 무리의 구원’과 1914년을 ‘그리스도의 재림설’, 그리고 ‘여호와 왕국’등을 그들 원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 밖에 여호와 증인은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성경 해석을 그들의 최종적 유권해석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이단적 태도이다. 김완철, 『한국교회와 이단 발흥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박사논문, 2009, 121~122쪽 참조.

166) 조성기, 앞의 책, 236쪽.

간에 자신의 신앙 체험담을 간증하고 있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폐결핵에 걸려 제3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도 채 못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저는 하숙방으로 돌아와 불경이나 읽고 마음을 준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먹던 약도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줄 알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내 소식을 들었는지 단발머리를 한 여고생이 전도지를 들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 그런 중에 차츰 그 소녀가 전하는 예수가 과연 누군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소녀가 주고 간 요한복음 팸플릿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내 인생이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도 사라지고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기만 하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금식 기도를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저는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¹⁶⁷⁾

조성기의 작품은 자전적인 소설형식으로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면서도 주위의 배경에 사실적인 역사적 상황을 배치하곤 한다. 그는 자기 내부로부터의 자기인식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 그것을 사회적 요구와 연결시켜 보기도 한 것이다.¹⁶⁸⁾ 그런 방식으로 작가는 작품 「베데스다」에서 소설의 한복판에 객관적인 사회적 자아를 등장시켜 서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작품이 창작되던 1980년대의 종교계 상황을 사실화하여 투영시키고 있다. 작가는 김만수와 의 대담에서 이러한 문학과 역사(종교적 사실성)와의 결합 형태에 대하여 ‘준문학적 문학양식(para literature)’¹⁶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양식의 소설에 대하여 “사실의 재현과 예술의 아우라가 혼용된 형식은 사실의 충격성과 그 기상천외의

167) 조성기, 앞의 책, 255쪽.

168) 권영민, 「조성기론-존재의 인식에서 현실비판까지」,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과 사상사, 1991, 460쪽.

169) 발터 벤야민의 발상에 의존한다면, 복제예술에 지배되는 현대에서는 사실의 재현이라는 것과 예술의 아우라(Aura)는 상호충동하고 나름의 혼용된 양식으로 진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설적 허구와 사실 사이라고 비교하였다. 김만수, 앞의 책, 175쪽.

극적인 전개에 눌린 소설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편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다. 마치 장대높이뛰기처럼 사실을 붙들고 뛰다가 일단 소설의 경지로 상승한 후에는 사실을 놓아버리는 식으로”¹⁷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특별히 조성기 소설의 세태소설적 측면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위의 글에서 성민의 외할머니를 치유토록 기도하였던 신자들은 1970~80년대의 한국교회사에 부흥을 이루었던 순복음교회 신도들이다. 설교의 신앙 체험자는 조용기 목사로 그의 사실적인 간증을 작품화 한 것이다. 조용기 목사는 자신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자신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설교한다. 그리고 의사가 죽음을 선고하였지만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들어온 이 후 병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했다고도 말한다. 그의 치유함은 개종으로 이어졌다. 곧 개종과 동시에 치유를 경험한 것이다. 그에게 구원은 치유와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신유체험을 하고 난 그는 성서시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의학이나 약으로 치유 받지 못하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치유는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그의 신유의 복음은 삼중 축복이다. 그 범주를 인간의 영·혼·육 그리고 삶의 변영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삼중축복은 전인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질병의 종류를 영·혼·육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먼저 영적 질병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불순종하는 등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그것이다. 혼적 질병으로는 인간의 지정의가 그리스도를 배척한 상태에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갈등과 생활의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균형이 파괴되어 오는 육적 질병 그리고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에서 오는 환경적 질병이 있다.¹⁷¹⁾ 작중 목사는 이 모든 질병을 신유에 의해 치유 받았다.

지금까지 신유의 서사가 「갈대바다 저편」을 중심으로 어떻게 형상화되

170) 김만수, 앞의 책, 176쪽.

171) 조성기의 '신유론의 특징'은 인간 편에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단계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것”이다. 둘째단계는 “자신을 끊임없이 기적의 관점에서 사고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셋째단계는 “생각하기와 구하기 법칙”이다. 그는 이러한 특징으로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깊이 묵상할 것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생각을 채우시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믿음의 씨앗”이 되는데 신유도 동일한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고희준, 『복음적 신유론과 장애인 신학』, 성결대학교 박사논문, 2012, 90~91쪽 참조.

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는 주인공인 성민이 체험하였던 신유의 체험을 살펴보았다. 성민은 의사도 병명을 진단할 수 없는 원인모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기도 가운데 치유함을 받았다. 그는 전능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성민의 친구 중환이는 성경공부를 하면서 담배화형식을 하였다. 그는 성경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패배자로 만들었던 담배를 끊게 된 것이다. 그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성경의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 꼭 자신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 상이한 두 종류의 인물이 자신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니고데모 같은 사마리아 여자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니고데모였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

성민의 외할머니는 10년 넘도록 여호와증인의 회관을 다녔다.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에 방언의 기도와 함께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신자들의 도움으로 치유함을 얻었다. 3개월 동안 누웠던 자리를 털고 일어난 외할머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외할머니에게 임한 신유의 교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 그동안 여호와증인의 믿음은 신유의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신유의 교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유의 교리를 믿게 되었다. 질병을 이길 수 있게 만든 ‘예수승리’의 복음이 곧 치유의 복음이었다.

성민과 중환 그리고 외할머니와 조용기 목사에게 임하였던 치유의 복음은 신앙의 길을 열어가게 하였다. 그들은 신유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를 믿는다. 곧 성경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공통점이 주어진다. 중환과 외할머니 그리고 조용기 목사는 개종과 동시에 신유의 교리를 체험하게 되었다. 중환은 뚜렷하게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소설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는 니코틴 중독에서 해방(치유)이 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외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구분하고 있는 여호와증인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외할머니의 신유체험은 뿌리 깊은 이단적 회관을 순간에 접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그곳 회관에서는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조용기 목사는 1930~1940년대에 유교적인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러한 그가 죽음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체험하게 된 ‘신유’는 개종을 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는 구원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

복시켜 주는 치유의 능력인 신유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신유의 교리는 작품 「가시동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 진수는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수인데, 그의 수형 생활과 출옥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 이 작품이다. 주인공이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영육이 자유롭게 비상(가석방으로 출옥)하는 과정에서 ‘신유의 교리’적 형상화를 조명해 볼 수 있다. 진수는 수형생활을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신유의 은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첫 번째는 대전교도소에서 창자에 발생한 염증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수술하여 회복되는 과정이다. 수형기간 동안 유일하게 돌봐주던 어머니와의 면회가 끊겨버린 2년 동안 그는 외롭고 쓸쓸한 날들을 보낸다. 이런 시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으로 6개월 이상 앓던 그는 교도 행정의 방치 속에 나날이 고통만 더해갔다. 그는 고통을 참을 수 없어 ‘할아버지 교도관’이 구해다준 신경안정제를 교묘히 모아 자살을 계획한다. 그러나 그의 계획이 발각되면서 행정상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당국은 진수에게 사회병원의 최신식 수술을 주선해 준다. 수술을 앞두고 교유들은 은밀하게 금식기도를 하면서 그의 치유를 기원하고 있다.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무관심하기만 한 교도소 내에서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은 실로 기적”¹⁷²⁾인 것이다.

내 영혼이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각근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¹⁷³⁾

병상에 누워있는 진수는 간병인에게 이사야 38장을 읽어달라고 하였다. 거기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를 빌려서 자신도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눈물의 기도를 한다. 그리고는 급기야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 맡겼던 히스기야가 살아난 것처럼 진수도 수술과 회복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진수가 앓던 두 번째 병은 만기로 출소하게 된 수형자들이 흔히 앓는

172) 조성기, 앞의 책, 200쪽.

173) 조성기, 위의 책, 201~202쪽.

‘만기병’과 유사한 ‘가석방병’이다.

진수는 뚜렷한 병도 없이 밥맛을 잃고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
나무 십자가에 달린 비참한 형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고통의 마지막까지 가서 드디어 안식한 그 얼굴, 땅을 향하여 살며시 기울어진 그 이마, 자기를 모욕하고 찌른 자들을 이제다 용서했다는 듯 깊숙이 감겨져 있는 두 눈, 이런 사형수의 얼굴은 내 모든 고통까지도 뒤집어쓰고 있었다. 174)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가석방은 참으로 감격적인 엄청난 것이다. 그러므로 재소자들은 가석방이 확정되면 ‘가석방병’을 앓게 된다. 만기로 출소하게 된 재소자들은 ‘만기병’을 혹독하게 치렀다. 그동안 초조하게 기다렸던 만기병은 조바심과 불안으로 쇠하여진 정신과 몸을 제대로 감당하질 못하게 만든다. 무기수에서 20년으로 감형이 된 진수도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2년이 앞당겨진 가석방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교도소의 통과의례적인 절차처럼 가석방으로 인한 만기병을 앓게 된다.

위의 인용문은 15년 징역의 복역수가 출소하는 날 새벽에 싸늘한 시체로 변하였던 사건을 기억하며, 진수 자신도 그 복역수처럼 죽는 게 아닌가 하고 겁내는 장면이다. 그런데 그때 그는 혼미한 의식 속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바라보기만 해도 치료의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신비한 얼굴이었다.”¹⁷⁵⁾ 진수에게는 그 사형수의 얼굴이 곧 자신의 얼굴이었다. 곧 사형수의 얼굴로 육화된 예수의 얼굴이 진수의 만기병을 치료한 것이다.

특수한 공간에서 무기수인 진수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 되었으며 중생(구원)의 복음을 믿게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던 날 만난 예수는 자신의 인생을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버렸다. 만기병을 앓으며 만난 예수는 육체와 영혼의 병을 치유해 주었다. 치유자인 예수는 진수와 완전한 육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진수는 교도소 내에서는 모범수였으며, 성화된 신앙인의 길에서 ‘신유’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출소를 한 그는 육체는 물론 영혼의 위대한 의사가 되신 예수를 만남으로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4) 조성기, 앞의 책, 268~269쪽.

175) 조성기, 위의 책, 270쪽.

육체적인 공간과 영혼의 공간이 예수의 치유(신유)로서 건강한 비상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 「가시둥지」는 기독교 복음의 중생과 성결에 이어 신유의 서사적 교리가 구현된 소설이다. 또 이 소설은 한 죄수의 자전적 고백이자 한 신앙인의 신앙 성장체험기이기도 하다. 실화에 근거하고 있는 한 사람의 굴곡진 인생을 오롯이 드러낸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작품 「베데스다」는 어두운 광란의 시대에 미친 동생을 사랑하면서 자신도 미쳐가는 형의 이야기이다.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기로 마음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이 바로 미치는 순간이다. 이러한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작가 자신도 당황했다고 고백한 작품이기도 하다. 또한 이 작품은 종교의 병리적 현상을 통해 광신적 사회의 제 문제를 드러내 놓고 있다.¹⁷⁶⁾ 조성기의 소설은 의식적으로 서사의 과정을 실제 역사적 사건과 나란히 병치시켜 구성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동생 홍석의 예언처럼 박정희대통령이 죽음을 맞는 사건으로 종결 짓는다. 어쨌든 이 작품에서도 동생의 병을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하려는 형의 신앙을 ‘신유’와 관련지어 논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를 이어 나갔다. ……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 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홍규는 정신없이 눈앞에 영상체로 떠오르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회개해 나갔다. 그러는 중에 육체적인, 심령적인 고통들이 차츰 잦아들었다. ¹⁷⁷⁾

홍규는 동생 홍석과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현신에 권사를 만나고 오는 길에 자신이 체험했던 신유의 사건을 떠올려 보았다.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할 때 있었던 신유의 체험이다. 하루는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몸의 관절들이 다 빠진 듯 전신이 흐늘거렸다. 더불어 변과 함께 시뻘건 피가 계속 쏟아져 나왔다. 그는 수도 통합 병원에서 왼쪽 폐에 흑이 자라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된다.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는다는 것이다.

176) 조성기, 앞의 책, 작가의 말 중에서.

177) 조성기, 앞의 책, 167쪽.

홍규는 병실에 있으면서 어떤 부인으로부터 “조 중위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을 믿어요?”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 그는 부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망설여졌다. 그 때에 부인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적도 가능하다”¹⁷⁸⁾는 말을 하였다. 홍규는 부인이 엄청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제는 양쪽 폐에 혹이 자라고 있는데 그러한 병을 기도로 치료하다니. 그건 광신적인 행위로서 사람 죽이기 십상이라고 여겨졌다. 홍규는 한 달 쯤 뒤에야 잡힌 수술예정일에 아내에게 올라오도록 한다. 수술 전 날 아내와 함께 여인숙에서 기도를 한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신유의 복음이 임하였던 것이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수술실에서 이상한 일이라며 의사들은 엑스레이 기계 위에 홍규를 올려놓고 이리저리 돌리며 의아해 한다. 혹은 보이지 않고 늑막염 증세로 전이됐다는 것이다.

홍규는 아무래도 기적이 일어난 것만 같았다. 어젯밤에 회개 기도를 드릴 때 가슴의 혹들이 녹아 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중복음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중생의 교리는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이다. 홍규는 질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였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서 자신의 죄악들을 쏟아놓게 된다. 그 죄악 가운데에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충만 된 기도가 신유의 이적(異蹟)을 만들었다. 홍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룩한 생활로서 성결의 교리를 따랐다. 그가 회개한 기도에서 자신의 근본적인 죄악들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선의 행함이 요구된 것이다. 홍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 가운데 신유의 체험을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는 질병의 원인과 그 치유의 방법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는 다른 차원의 해답을 제시한다. 즉, 질병의 원인은 죄의 결과라는 도식이다. 그러나 구원(중생)의 과정을 지나 성결의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질병의 원인은 자신의 죄악만이 아니다. 특수한 공간인 교도소 내에서 진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무기수에서 가석방에 이른 그의 삶이 이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의 아픔에 대한 신유의 복음은 예수로 인한 자유로움의 치유였다. 진수는 중생의 과정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얻는 신유의 복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유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홍규 또한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적이라 할 수 있다. 이

178) 조성기, 위의 책, 163쪽.

세상에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홍규가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인 것이다. 그는 원초적인 자신의 죄악만이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던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었다. 그는 구원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유의 복음이 아니고, 성결된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유의 체험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진수와 홍규는 성결의 서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유의 복음을 체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기독교와 세태소설

기독교 소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모티프에 대한 논의와 담론 서사 양식에 따른 양식사(樣式史)의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서사 양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기독교 소설로 형성되는가가 이들 연구의 주된 논점이었다. 그리고 논의의 결론은 대개 한 편에는 종교적 신념과 당위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실과 내면 고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조성기 소설에서 ‘사실성’과 ‘허구성’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지점이 여기다. 종교적 신념과 당위를 강조할 경우 작품 해석은 허구성의 강조로 이어지게 되고, 반대로 객관적 사실과 내면 고백을 강조할 경우 사실성의 강조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기독교를 배경으로 묘사하는 조성기의 종교 소설이 사실성을 그 형식의 기본구조로 삼아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그의 전 작품에서 특기할 점은 어떤 형태로든 역사적 사실이 사건의 배경으로서 개입하고 있고, 그 사실들과의 관련 속에서 작가의 종교 의식이 작품 속에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성기의 소설을 기독교 세태소설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도 이 지점이다.

그러나 임화도 지적했듯이 세태소설은 그 묘사와 제시에 치중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세태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되도록 지양하고 그것의 객관적 기술에 몰두하는 것이 세태소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 관건이 되는 것이 세태의 묘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세태소설은 그 묘사가 잘 된 작품일수록 독자에게 주는 감동의 깊이가 다를 것이다. 여기에서 세태소설의 소설사적 위상이 가지는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세태소설은 ‘어느 특정 시기의 자질구레하면서도 심각한 사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소설’로서 소설의 문체 중 묘사를 그 특징으로 삼는다. 묘사는 작가가 객관적인 위치에서 인물·배경·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재현시켜준다.¹⁷⁹⁾ 조성기의 기독교 소설이 이런 점을 세태 소설과 공유하고 있는데, 그의 작품들은 그것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당대 한국 기독교의 다양한 세태들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조성기의 소설에 나타난 당대 한

179) 정주동, 『고대 소설론』, 형설출판사, 1966, 196~225쪽 참고.

국 기독교의 양상과, 그의 소설에 나타난 당대 정치의 세태를 고찰할 것이다.

1. 한국 기독교 세태 묘사

조성기의 기독교 소설 『에덴의 불칼』은 역사적 사실성의 구현으로 작품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1970~80년대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조성기는 작품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을 다방면으로 제시하면서 한국 기독교내 여러 분파들의 세태를 낱낱이 묘사하는 데 많은 작가적 역량을 발휘한다.

작품 『에덴의 불칼』에서 주인공 성민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층위의 인물들과 조우함으로써 다양한 종교적 성찰을 진행한다. 그는 가족, 동료, 여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증인, 순복음주의, 무교회주의, 노장사상, 불교 등의 종교를 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관을 정립해가는 성장의 서사 속에 한국 종교계의 세태가 삽화적으로 등장하여 당대 기독교계의 이러저러한 세태들을 묘사하는 구조를 취한다. 기독교 성장 서사와 기독교 세태 소설이 교묘하게 중첩되어 있는 것이 그의 소설의 특징이다.

작품 「갈대바다 저편」에서 주인공은 할머니를 통하여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을 알게 된다. 성민은 중학교 방학 때에 동생들과 함께 고성에 사는 외할머니 댁에 내려간다. 외할머니는 그 때마다 그를 극장과 교회에 데리고 갔다.

그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은 목사 같은 냄새도 안 풍기고 수수한 모습으로 논리정연하게 성경을 풀어나갔다. 그 요지는 이 땅에 천년왕국이 건설된다는 것이었다. 일반교회에서는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 땅에 건설될 천당에서 권세자로 다스릴 사람의 수는 십사만 사천 명으로 지금 속속 모이고 있다고 하였다.¹⁸⁰⁾

그런데 인용문에서는 성민의 외할머니가 그를 예전과 다른 교회에 데리고 갔음을 알 수 있다. 그곳 신도들은 허름한 초가집을 개조하여 만든 교회에서 천년 왕국의 건설에 대한 성경공부를 한다. 그들은 “일반교회에서

180) 조성기, 앞의 책, 148쪽.

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들 있는데 그것도 헛된 일이라고 하였다. 예수는 이미 영적으로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 때 재림했다면서 일반 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 정부들은 다 사탄의 조직이라고 하였다.”¹⁸¹⁾ 성민이 보기에 이곳 교회에는 대부분 외할머니처럼 일반교회에 다니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모여든 것 같았다. 현실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어 억눌린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였다.

그러던 중 외할머니가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진다. 성민의 어머니는 중풍에 효험이 있다는 동물의 피를 외할머니의 입에 넣는데,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외할머니는 거부의 몸짓을 하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자신의 피가 아닌 피는 여호와가 주신 자신의 피를 더럽힌다는 이유다. 그들은 피를 먹는 것과 수혈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수혈행위는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죄가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수혈을 금지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피를 멀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¹⁸²⁾. 이렇게 종교인의 수칙을 실천하였던 외할머니가 변화를 보이는 사건이 발생한다. 치유의 은사가 외할머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반신자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좀 독특한 데가 있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집이 떠나갈 듯했다. 주위 사람들의 눈치나 태도에 구애됨이 없었다.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행하였다.¹⁸³⁾

외할머니는 언젠가부터 찾아오는 이들의 방문을 은근히 기다렸다.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할머니는 병 고침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그동안 10년 넘게 다니던 여호와 증인 왕국 회관에서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교인들은 그런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외할머니에게 실제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181) 조성기, 위의 책, 148쪽.

182) 황현주, 「나는 지상낙원에서 살고 싶다 : 여호와의 증인 A회중 신자들의 종교적 믿음과 실천」,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12, 59쪽 참고,

레위기 17 : 11 “육체의 영혼은 그 피에 있다.”

창세기 9 : 3, 4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이 너희를 위한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초목처럼, 내가 정녕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준다. 다만 고기를 그 영혼 -그 피-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에 근거를 두어 설명되며 수혈은 피를 먹는 것과 동일하게 여긴다.

183) 조성기, 앞의 책, 233쪽.

“예 - 수 - 승 - 리-”

그것은 그 교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호였다. 외할머니는 그렇게 그들의 구호를 힘차게 복창하며 벌떡 일어났다. 상체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3개월 여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로 방바닥을 딛고 일어난 것이었다.¹⁸⁴⁾

외할머니는 평상시처럼 늘어진 채 누워서 머리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저 말만 몇 마디 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그 처진 입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스스로 일어 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외할머니는 서대문에 있는 그 무리들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기적들을 열거하였다. 그때마다 외할머니는 가족들에게 그 신앙은 무당신앙이요, 기복신앙에 불과하다고 공격을 당하였다. 무당이나 사교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게 할 수 있다고 성민도 맞대결을 하였다. 외할머니는 성민이 다니는 선교단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고 나무란다. 한편 성민은 외할머니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데에 생각이 미친다. 그리하여 그는 어느 날 외할머니가 가지 않은 저녁예배 때 그 교회를 몰래 찾는다.

나는 사람을 비집고 겨우 입구를 통과하여 그 교회 지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발붙일 곳을 더듬어 찾았다. 그 사람의 음성이 후덥지근한 교회 전체에 맑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마침 자신의 신앙 체험담을 간증하고 있었다. 대부분 신비적인 체험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¹⁸⁵⁾ 「갈대바다 저편」 중에서

그 목사의 말이 과연 참말이라면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지금 현실에서도 문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셈이었다. 그 동안 성경을 주로 도덕교과서처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데만 사용해온 성민은 성경 속에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¹⁸⁶⁾ 「길갈」 중에서

오직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조용기 목사밖에 없는데,

184) 조성기, 앞의 책, 236쪽.

185) 조성기, 위의 책, 254쪽.

186) 조성기, 『에텐의 불갈 제3부, 길갈』, 민음사, 1992, 61쪽.

그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다 하니 믿어볼 사람이라곤 여기서 하나도 없는 셈이었다. …… 형규는 홍석이 비행접시라고 표현한 그 교회의 형체가 거대한 공갈빵처럼 여겨지기만 했다.¹⁸⁷⁾ 「베데스다」 중에서

인용문에서 보듯, 작가 조성기는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¹⁸⁸⁾를 텍스트의 여러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작가는 성민으로 하여금 외할머니의 신앙을 통하여 자신의 선교단체와 조용기 목사의 신앙을 비교하게 만든다. 그러나 작가는 세태소설이 흔히 그러하듯 작품에 개입하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과연 어느 곳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곳인지를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성민은 목사가 말한 기적이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순절의 현상(The Phenomenon of Pentecost』이라는 원서를 읽게 된다. 여기서 그는 방언체험을 기초로 한 기적운동을 가리켜 오순절운동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순절운동도 세례문제로 인하여 분열을 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성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연합오순절’파로 나뉘어 있었던 것이다. 그중 하나님의 성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여의도에 순복음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성민은 “오순절 없는 기독교는 불가능하며 사실상 모순이다. 이는 기독교가 아니며 교회집단(churchanity)에 불과하다.”¹⁸⁹⁾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다니는 회관에서 교회들은 썩었다고 비판하는데, 오히려 회관도 책에서 말하는 교회집단에 불과하지 않은지 회의한다.

187) 조성기, 『에덴의 불칼 제6부, 베데스다』, 민음사, 1992, 207쪽.

188) 조용기 목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들 가운데 ‘신유의 복음’이 처음자리에 놓이게 된다. 조용기 목사가 시무하던 당시 여의도 교회의 주일 예배 후에는 그의 치유의 기도를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실 뒤편에 모여 들었다. 그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삼서 1:2)의 기도로 신유기도를 하였다. 또한 그가 인도하는 예배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병자들이 치유 받는 것은 수 십 년 간 일상적인 일이었다.

조용기 목사는 17세가 된 고등학교 2학년 때 각혈로 쓰러져 폐결핵진단을 받았다. 6·25 전쟁의 전후시기에 한국적 상황이 그렇듯, 그 병은 죽음에 이르기 쉬운 병이었다. 그러나 그는 소녀가 준 성경말씀을 보면서 말끔히 낫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개종과 동시에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과 치유”는 항상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졌다. 신유체험을 하고 난 그는 성서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의학이나 약으로 치유받지 못하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치유는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교회준, 앞의 논문, 88~90쪽 참조.

189) 조성기, 앞의 책. 63쪽.

작품 「베데스다」에도 조용기 목사는 등장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 형제는 동생 홍석의 정신병을 치유키 위해 한국에서 가장 능력자라는 조용기 목사를 찾아가는 길에 당대 한국의 교회에 대해 성찰한다. 성장소설과 세태소설이 섞여 있는 구조이다. 성민은 외할머니가 늘 염려하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회관을 다니고 있다. 그는 외할머니의 교회를 반박하면서도 늘 자신의 종교에 회의적이다.

『에세네파에 관한 한 연구』라는 소책자를 읽으며 그 공동체의 매력에 점점 이끌려갔다. 에세네파와 회관 간에 상이점들도 많았지만 그 정신에 있어 유사점들도 많이 있음을 발견했다. 문화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구성원 상호간의 결속력, 시대의 남은 자라는 자부심, 철저한 공동체 훈련, 엄격한 서열 등이 그것이었다.¹⁹⁰⁾

첫째는 회관이 기독교 역사에서, 특히 교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관에서는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동안 훈련을 많이 받아온 목자들이 모두 폐인이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 역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범법행위도 목과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¹⁹¹⁾

조성기는 성민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를 위와 같이 묘사한다. 성민은 그 어원이 ‘경건한, 치료자’라는 뜻을 가진 유대의 에세네파에 대한 책을 읽는다. 수십 가지의 서약에는 신을 향하여 경건을 실천할 것, 아무것도 이 종파의 단원들에게 숨기지 않을 것, 고문을 받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종파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등과 같은 수칙들을 보면서 자신의 회관과 닮은 점을 발견한다. 그러던 중 서울, 대전, 전주, 광주 등의 지역 책임 목자인 시니어 목자들이 총책임목자에게 반항을 피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들은 책임 목자인 민식을 향하여 공개서한을 작성했다. 그런데 노회한 민식은 그들의 공개서한을 받아들일 듯하다가 오히려 그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결단을 한 듯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0) 조성기, 『에텐의 불칼 제3부, 길갈』 민음사, 1992, 44쪽.

191) 조성기, 앞의 책, 163~164쪽.

하나님은 저의 개인 생애에서만뿐만 아니라 이 민족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도 “길갈”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 중략

이렇게 “길갈”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선교를 위해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 중략……

“목자님은 어찌면 그렇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척척 합리화시키기를 잘합니까?”¹⁹²⁾

성민은 그동안 스텝미팅 역사상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시니어들도 자기들끼리는 반란을 일으켰지만 스텝미팅에 참여하기는 꺼렸다. 따라서 성민의 발언은 시니어들의 반란보다 더 엄청난 반란에 해당된다. 본 텍스트의 제목처럼 “길갈”은 성민의 갈 길이었다. 성민은 이곳을 떠나면서 공동체 생활에 대한 회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이상적인 교회라는 개념을 떠올리면서 《무교회》라는 잡지를 펴낸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와 한국의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간행한 김교신을 묘사한다.

인간해방이란 교회제도로부터의 해방도 포함하는 말이지. 그의 무교회주의는 대략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거야. 첫째는 공간을 점유하는 눈으로 보이는 회당을 진정한 교회로 여기지 않고 신자들의 친밀한 교제 속에 교회가 있다고 본 거지. 둘째는 성직제도나 신자들의 조직을 부인하고 직분을 빙자한 권위들을 인정하지 않았지, 셋째는 교회나 목사의 성서해석권을 인정치 않고 신자 각자가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강조했지. 그 다음 세속적인 직업에 충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길임을 역설하면서 뚜렷한 직업관을 가지고 일하라고 격려했어.¹⁹³⁾

성민은 회관이 분열되는 사건을 통하여 똑같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임에도 얼마나 그 보는 눈들이 다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성경의 해석 여하에 따라 교회주의자들이 교회제도를 방편화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무교회주의야말로 전적으로 교회적이라는 역설에 이르게 된다. 무교회주의는 철저한 부정을 통하여 진정한 원형을 찾아가게 하는 통로인 셈이다. 조성기는 주인공 성민을 통하여 ‘진정한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독

192) 조성기, 앞의 책, 258~260쪽.

193) 조성기, 위의 책, 266~267쪽.

자들에게 제기한다. 여기에 더해 작가는 작품 「하비루의 노래」에서 주인공 성민과 가깝게 만나는 기독교인이며, 출판사에 근무하는 진기를 통해 한국의 무교회주의를 대표하는 김교신의 사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두 등장인물¹⁹⁴⁾은 뚜렷하게 다니고 있는 교회가 없으며, 고등보통학교 교사로서 《성서조선》(聖書朝鮮)¹⁹⁵⁾이라는 잡지를 만들기까지 한 김교신을 추종한다.

일본의 우치무라는 제도적인 교회에 대항하여 《무교회》라는 잡지를 발행하며 원시 기독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운동을 전개해 갔다. 한국의 김교신은 19살 때 자기가 속해 있던 교회의 내분을 보고 회의하게 된다. 그런 중에 우치무라를 만나 신앙을 회복하고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였다. 그는 무교회주의를 펼치면서 가장 먼저 ‘인간해방’을 역설하였다. 곧 ‘교회 제도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에덴의 불갈』이 1980년대의 작품인 점을 고려할 때, 작가 조성기는 이처럼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인물들을 주인공 성민으로 하여금 접하게 함으로써 한국기독교 교회를 사화적이거나 통시적으로 보여주고자 의도했던 듯하다. 전형적으로 세태소설적인 방식이다. 그는 와중에 한국기독교의

194) 성민은 작품 『에덴의 불갈 제4부 하비루의 노래』에서 번역 일을 하면서 선교단체를 출입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노진기는 몸을 담고 있는 교회가 있지 않다. 이들은 김교신의 ‘무교회주의’를 은연중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민은 본 텍스트(4부작품)에서는 선교단체와 큰 갈등이 묘사되지도 않고 적극성도 없었지만 이전 텍스트(3부작품)에서는 대표목자와 충돌을 하고 돌아서는 과정을 드러내었다.

195) 《성서조선》은 1927년 7월에 창간되어 1942년 3월에 폐간 당했다. 근 15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중간에 휴간, 복간 등의 파란들을 겪기도 했지만 그 시대에 한 고보교사가 거의 단독적으로 40쪽짜리 월간 잡지를 제 158호까지 발행하였다.

김교신의 제자 노평구가 편집책임자로, 편집위원은 함석헌, 송두용, 유달영, 정태시, 홍승면 등이 성서조선 158권의 글들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10년에 걸쳐 6권으로 1975년 4월에 『김교신 전집』을 출판하였다. < 1930년 5월 17일자 김교신의 일기>

“아침에 정형과 함께 활인동(活人洞)제염소 모퉁이를 지나 인간지옥을 상징하는 형무소 대문 앞을 거쳐 10분 이내에 보장(步杖)을 끌 수 있는 효창원 솔밭에 이슬을 차면서 경성역으로 달음박질하였다. 백골표본으로 제작되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운반되는 남강 선생의 유골에 최후의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었다. 기관차 뒤에 연한 영구(靈柩) 열차가 백기를 날리면서 역구내로 돌입할 때 경례보다 나의 가슴을 진정시키기에 전력하지 아니치 못했다. 저 표본을 지적하며 교수할 선생과 그 단하에서 이를 쳐다보며 필기할 생도들의 광경을 추상(推想)하노라니 남산(南山)이 안개로 조복(弔服)을 두르고, 이슬비 내리는 쓸쓸한 비바람에 더욱 수심을 깊게 하는 장안을 거쳐 선생의 영구차는 일로(一路) 해부실을 향했다.” 오산학교 설립자이고 8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면서까지 조선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한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의 유골이 의과대학 강의실 표본으로 제작되기 위해 실려 가는 장면을 기록한 김교신의 일기이다. ‘김교신 전집 5권 8쪽 부분’을 조성기는 그대로 작품에 수록하고 있다. 조성기, 앞의 책, 59~60쪽.

전통적 악습인 ‘교권주의’¹⁹⁶⁾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무엇보다도 1970~80년대 폭발적인 기독교인의 증가로 발생한 종교계의 어두운 부분과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작품 속에서 형상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김교신의 무교회주의를 참조함으로써 찾으려는 시도도 보여준다.

다른 작품 「길갈」과 「회색 신학교」에서 성민은 이번에는 선교단체의 공동체 생활에서 뛰쳐나와 신학생의 길로 들어선다. 그동안 폐쇄적인 회관의 영향 하에서 신학교는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는 신학 이론들만 가르치는 곳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그였다. 조성기는 이 작품에서도 신학생인 성민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양한 종교들을 망라하여 나열한다. 성민은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자』를 읽는다. 그 책을 읽다가 아버지의 필체로 된 “無 →德→命 →形→性”이라는 글씨를 발견하고 그 해석부분을 읽는다.

“태초에 무가 있었다. 따라서 일체의 존재가 있을 리 없고 그 명칭 또한 없었다. 이윽고 무에서 하나[一]가 생겼으나 그 또한 형태는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물은 그 하나로 하여 나게[生] 되었으니 그러한 것을 덕(德)이라고 말한다. 이 형태도 없는 하나는 이윽고 다시 하나하나 갈라져나가는바 그것을 명(命)이라 하는데,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하나는 머물고 움직이면서 문득 하나의 물(物)을 낳는데, 그 물이 나서 살아가는 이치가 따르게 되는 것을 형(形)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형이 정신을 가지면서, 형과 정신이 자연히 따르게 되는 자연의 법칙을 성(性)이라고 한다.”¹⁹⁷⁾

이어서 성민은 ‘장자의 사상’을 요약한 머리말을 읽는다. 거기에는 ‘양행(兩行)’이라는 개념이 설명되어 있다. “양행이란 일체의 모순과 대립이 모순한 채 긍정되고, 대립된 채 의존한다는 무한히 자유로운 경지를 의미하는 말로, 『장자』는 바로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씌어졌다는 것”¹⁹⁸⁾이었다. 성민은 ‘대극의 통일’이야말로 칼 융의 분석심리학의 목표점이라고

196) 교권주의란 중세 교회 때부터 내려온 말이다. 교리나 성서적 권위로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을 무조건 요구하는 권리에서 형성되었다.

197) 조성기, 『에텐의 불갈 제5부, 회색신학교』, 민음사, 1992, 62~63쪽.

198) 조성기, 위의 책, 66쪽.

여긴다. 장자가 이천 여 년 전에 ‘양행’이라는 개념으로 칼 융이 말한 내용을 강론한 셈이다. 곧 ‘대극의 통일’속에 정신치료의 비결이 있고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숨겨져 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유를 더 진척시켜 이를 신플라톤학파의 유출설과도 연결시키고, 요한복음 1장199의 내용과도 연결시켜 생각한다. 그가 보기에 장자가 말한 무(無)라든지 도(道)라든지 하는 것은 신(神)으로만 대체한다면 성경구절과도 흡사한 논리인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장자의 신학’도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여긴다. 그는 서양의 신학만을 고집하는 것은 신학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조성기는 신학교에서 ‘신학’이론과 ‘종교심리학’을 공부하는 주인공 성민에게 ‘노장의 사상’을 통하여 좁은 신학이 아닌 광의의 신학이론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그는 서양의 철학사상과 신학의 이론들보다는 동양의 철학과 고전이 신학 이전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작품 「회색 신학교」의 서두부분에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성민의 여행길에 만난 청학동 청년과의 대화다. 이 청년을 통해 성민은 이번에는 “시운기화 유불선 동서학 합일 대도 대명 다경 대길 유도 갱정 교화 일심”이라고 하는 사이버 신흥 종교를 대하게 된다.

“우린 지리산이 이 산 저 산 배척하지 않고 다 품어서 우람한 형세를 이루듯이, 유교 · 불교 · 도교 · 기독교 · 동학 천도교 · 증산교 · 주역 · 정감록 등 동서양의 종교 사상들을 다 받아들여 큰 길을 밝혀 인생들을 이롭게 하면서 우주의 기운이 일어나는 때를 기다리는 거지요.”²⁰⁰⁾

성민에게 그 청년은 그들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강대성이 하늘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쓴 「부웅경」이라는 경전과 예배나 기도 때에 사용하는 「해인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소망은 “봄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주에 봄이 오면 강대성이 부활하여 예수와 석가, 공자와 맹자, 노자 같은 성현들이 공난간에 있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합동해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이 그의 논리다. 그들은 봄

199) 요한복음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건을 단순하게 기록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200) 조성기, 위의 책, 79쪽.

의 문턱에 있으며, 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이 청학동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한편 조성기는 또한 성민으로 하여금 여행길에 『장자』와 함께 챙겨온 『도덕경』의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의 원리를 통하여 ‘신은 영원 불변의 신이 아니라’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 천 년 동안 불렀던 여호와와 신은 한계가 있는 불안한 신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일도록 하기도 한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불변의 도가 아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불변의 이름이 아니다. 이름붙일 수 없는 것은 천지의 처음이고,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그런 까닭에 상무(常無)에서 그 지극히 미묘한 것을 보고자하고, 상유(常有)에서 그 귀착을 보고자 한다. 이 유(有)와 무(無) 두 가지는 같은 것에서 나와서 이름이 다를 뿐이다. 그 같은 것을 유현(幽玄)이라고 한다. 유현하고 또 유현하여 모든 미묘한 것이 나오는 문이다.” 201)

아서 단토는 『일상적인 것의 변용』에서 예술과 철학의 경계들은 소멸 될 위험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술의 정의가 곧 철학의 정의가 된다²⁰²⁾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곧 “무엇이 예술인가”라고 묻는 시점에서 예술은 철학이 되며, 예술과 철학은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민의 논리는 이와 유비 가능하다. 예술이 자기를 성찰할 때에 예술의 종언이 도래하듯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의 선상에서 성민은 여호와와 신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면 노자의 이론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이 되어 자신에게도 불만스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에까지 이른다. 그렇게 이름을 밝혀버린 신이 요즈음 교회가 썩어갈 대로 썩어가도 침묵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러나 “도는 빈 그릇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얼마든지 퍼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언제나 넘치는 일이 없다. 깊고 멀어서 천지만물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 그 도는 천지를 주재하는 상재보다도 먼저 있었다.”²⁰³⁾라는 생각도 역시 성민의 것이다. 노

201) 조성기, 위의 책, 107쪽.

202) 아서 단토, 김혜련 옮김, 『일상적인 것의 변용』, 한길사, 2008, 161쪽.

203) 조성기, 앞의 책, 107~108쪽.

자는 도덕(道德)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국가와 국민 사이에 적용시킨다. 그리하여 성민은 요즈음 목회자들더러 성경을 읽기 전에 노자의 『도덕경』부터 읽으라고 주장한다. 이런 방식으로 작가 조성기는 서양에서 직수입된 목회신학 이론들이 한국적인 토양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지에 대한 의구심과 동양철학이 주는 매혹을 다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성민의 탐구가 계속됨에 따라, 한국 종교계의 이러저러한 세태는 더 나열된다. 작가는 기성교회의 목사들이 정통교리를 내세워 교주노릇을 하며, 자기 교회의 왕처럼 군림하는가 하면, 교파간의 분쟁으로 개교회주의라는 무서운 병폐를 불러일으킨 사실을 열거하면서, 이번에는 장막성전 교주 유재열을 묘사한다. 그는 “1966년 3월 1일부터 계산하여 1천2백60일이 지나면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불바다가 된다. 이 불바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과천의 청계산 기슭 장막성전으로 모여야 된다.”²⁰⁴⁾라고 예언을 하였지만 심판 날에는 전쟁은커녕 비바람도 없었다. 장막성전은 현재 대한기독교 장로회 이삭교회로 명칭을 바꾸어 지교회들을 형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조성기는 국제기독교학생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통일교를 알리는 이들을 덧붙여 묘사한다. 그들은 문선명 교주가 영감을 받아 성경을 해석하였다는 ‘원리강론’을 경전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천사와 인간이 성적인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무당들도 죽은 최영 장군이니 강감찬 장군 같은 분들의 혼령이랑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고들 한다. 조성기는 광신적인 통일교의 학생들을 등장시켜 한국의 종교적 세태 묘사를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작품 「베데스다」는 1970~80년대의 한국의 교회사를 횡적으로 고찰 할 수 있는 세대묘사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교회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급성장²⁰⁵⁾하였다. 교회가 팽창하면서 어두운 면

204) 조성기, 앞의 책, 118쪽.

205) 민경배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시대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제1기는 길선주(1869~1935)의 활동시기로 보았다.

제2기는 김익두의 활동시기이다.

제3기는 이용도(1901~1933), 임종순(1875~1947), 정남수로 보았다.

제4기는 1950년대 중반 부흥운동이다.

제5기는 1970년대로 보았다.

민경배, 『일제하의 한국기독교 민족 신앙 운동사』, 대한기독교서회, 1991, 280쪽.

이 드러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불교와 유교의 습합 속에서 샤머니즘까지도 숭배하는 문화였다. 그러한 토양에 정착하게 된 기독교는 성장만큼이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베테스다」는 등장인물의 정신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치유자를 찾아가는 과정이 곧 한국의 다양한 기독교의 모습을 추적하는 행위가 되는 구조를 취한다.

「베테스다」는 우선 그 공간적 배경에 주의를 요한다. 배경이 되는 경주는 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아 온 곳으로 고인돌, 청동검 등, 청동기 유물과 유적이 집중된 고대의 숨결이 깃든 지역이다. 그리고 1000여년에 걸친 신라의 수도이며 현재까지 수천 년이 넘은 고대 왕릉들이 시가지의 중심지를 점령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작중 화자인 홍규는 경주역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한복판에 군림하고 있는 무덤들을 보면서 “살아 있는 사람들이 무덤의 그늘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경주”라고 하면서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집들은 “산자의 집들이라기보다 무덤의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행랑채”라고 묘사한다.

“형, 경주는 죽은 자가 산 자를 지배하는 곳이야. 그도 그럴 것이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

“죽은 자를 의식한다는 건 삶을 겸손하게 하는 거 아닐까. 영원히 살 것처럼 팔팔 거리는 인간들에게 죽는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으니까, 저 무덤들이 말이야.” 홍규는 무덤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이런 식으로 강조해 보았다.

“형, 삶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눅 들게 하고 있는 거야. 너무도 위압적으로 인간의 허무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²⁰⁶⁾

홍석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경주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지배하는 곳’이며 또한 경주에 사는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무덤들은 너무도 ‘위압적으로 인간의 허무를 선포’하고 신라의 유령들은 밤마다 걸어 나와 사람(자신)들의 목을 조른다고 주장한다. 홍석의 인식처럼 경주라는 도시는 ‘삶과 죽음’을 병존하게 만든다. 어차피 인간의 삶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206) 조성기, 앞의 책, 65쪽.

데 ‘경주’라는 작품의 배경은 홍규와 홍석 형제의 가정에 대한 은유로 읽힌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들의 가정은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지배하는 곳’이다. “의식 불명인 상태로 죽은 듯이 누워있는 어머니를 중심한 집안의 모습은 무덤을 중심한 경주의 풍경과 닮은 점”²⁰⁷⁾이 있다. 홍석의 말마따나 ‘죽은 자가 산 자를 지배하고 있는 집’이다.

그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형제가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현신에 권사가 주재한 대구의 집회였다. 그런데 그곳은 정신 질환자는 받지를 않았다. 그 이유는 중환자들이 많아서 정신 질환자가 소란을 피울 경우 중환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었다. 장내는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로 초만원이었다. 홍규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자비의 집’이라는 베테스다 못가의 정경²⁰⁸⁾을 떠올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에 시달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무화과 한 몽치를 히스기야의 몸에 붙여 줌으로써 낮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한 몽치가 히스기야를 낮게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믿음이 자신을 낮도록 한 것입니다.” …… 몸이 무너진 자들에게 정신 운동을 아무리 부르짖어 보았자 소용이 없는 일일 것이었다.²⁰⁹⁾

현 권사의 대구 집회에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의 간증²¹⁰⁾과 집회는 한국교회사에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평신도 신유

207) 조성기, 앞의 책, 66쪽.

208) 베테스다는 그리스(헬라)어 Βηθσαθα 또는 Βηθεσδα (영) bethesda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수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장소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못이 이름이다. 요한복음 5장2절에서 9절에 기록된 사건의 성경말씀으로 다음과 같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테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낮게 됴이러라] 거기 서려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낮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거 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209) 조성기, 앞의 책, 140~141쪽.

210) 현신에 권사의 간증은 현재까지도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녀는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었다. 현신에 권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70여만 명을 치유하였다. 그녀가 치유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병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존재한다.²¹¹⁾ 그럼에도 홍석의 정신질환은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던 차 홍규는 이번에는 1970년대에 한참 부흥을 일으켰던 새마을운동과 정신 운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김용기 장로를 집회에서 만난다. 그 후 그는 김용기 장로가 지도자로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²¹²⁾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장로는 하루도 빠짐없는 새벽기도회 시간마다 폐부를 찌르는 말들을 내뱉는다. “온 겨레가 요구하는 인물이 되시오. 한마디 말이 약속수표로 대신하는 인물이 되시오. 누구 앞에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떳떳이 밝히는 인물이 되시오, 아무리 낮고 천한 직업이나 노동이라도 열등감을 갖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는 인물이 되시오……”²¹³⁾ 홍규는 김용기 장로의 정신 운동과 현 권사의 신유 운동을 비교해 보는데, 결론적으로 그는 몸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정신 운동 보다는 신유 운동이 희망적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다행히도 홍석은 현 권사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 정신병이 순간적으로 치유된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금 예전과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 형제는 다시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대구의 장 집사를 찾아간다. 그녀는 홍석의 등을 탁 치면서 “꼼짝 마! 너 움직이면 죽는 줄 알아. 오늘, 너 혼 좀 나봐라.”하였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홍석은 무섭게 샷대질을 하며

서는 그 유명한 현신에 권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다. 이에 놀란 현신에 권사는 “아니 예수님 저를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현신에 권사를 모른다고 하셨다. 그래서 현신에 권사가 “그럼 예수님,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누구와 서울의 모모 목사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여전히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을 한 후에 현신에 권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깨어난 후에 자신의 재산을 털어 ‘북한 선교회’를 설립하였다.
<http://blog.naver.com/dfgiyo>.

211) 이회철, 『능력의 증언』, 신애출판사, 1974, 26~27쪽.

212) 김용기(1912~1988)장로는 1929년 양주 광동학교를 졸업하고 22세 약관으로 ‘농민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는 봉안이상촌(奉安理想村), 삼각산농원(三角山農園), 에덴향을 건설하고 이어서 1954년 광주군(廣州郡)에 가나안 농장을 설립하여 농장장과 가나안교회 대표 장로를 지냈다. 1962년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이 되고 1973년 원주시에 제2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일생동안 농업을 통해 근검절약의 윤리를 강조하고, 이를 몸소 실천해 보임으로써 ‘농민운동을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1966년 막사이사이 사회공익상을 수여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참 살길 여기 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등이 있다. naver.지식백과. 두산백과 참조.

213) 조성기, 앞의 책, 87쪽.

맛고함을 쳤다. 그리고 장 집사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왔다. 홍석은 식칼을 향하여 돌려차기를 하였다. 그 식칼은 그녀의 발등에 꽂혀 버렸다.

이후로도 홍규는 동생 홍석의 정신 질환을 치유하고자 전국적으로 능력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동생은 기도원에서 기도 가운데 얻어진 병에 걸린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독교의 능력자를 찾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신유와 헛된 약속을 둘러싼 당대 한국 기독교의 세태 속을 걸어다니는 여정 자체가 되는 것이다. 역시 성장소설과 세태소설이 중첩되어 있는 구조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당대의 유명한 신유 치료사인 현신애 권사, 장집사, 조용기 목사 등을 찾아다녔지만 홍석의 정신병은 더욱 깊어만 갈 뿐, 낫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가가 직접 개입하여 단언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에게 신앙이란 현세에서의 손쉬운 치유와 무관한 어떤 것이었으리라 짐작 가능한 대목이다.

이처럼 작품 「베데스다」는 치유의 은사를 다룬 종교소설이지만 사회적 억압이 종교적 병리현상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소설이면서 당대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조명해주는 세태소설이기도 하다. 조성기는 종교적 서사 안에서 사회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고 사회적 배경 안에서 종교적 주제를 다룬다.

이상 조성기의 문학에 나타난 70~80년대 한국 기독교의 세태를 작품의 주인공인 성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는 작품 「갈대바다 저편」, 「길갈」에서 주인공인 성민의 외할머니를 통하여 ‘여호와 증인의 왕국회관’과 ‘순복음 교회와 조용기 목사’를 묘사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작품 「길갈」, 「회색 신학교」에서는 성민 이 몸담고 있던 반교회적인 ‘선교단체’를 진단하면서 ‘무교회주의’를 묘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의 다양한 신흥 종교들인 장막성전과 통일교에 대한 묘사들도 찾을 수 있었으며 동양철학에 대한 작가의 흥미도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작품 「베데스다」의 주인공 형제인 홍규와 홍석이 동생의 정신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신유의 치료자를 찾아나서는 길을 추적하여 한국교회의 시대사적 배경까지도 살펴보았다.

이처럼 여러 다양한 철학과 종교 분과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진정한 참종교는 무엇이며, 동양철학과 서양의 신학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를 가능하는 것이 이 작품들의 기본적인 구조였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여기서 발견되는 조성기 소설의 특징이다. 그의 소설들은 성장 서사와 세대 소설의 결합 양상을 보여준다. 신앙관을 정립하는 과정이 곧 당대 한국의 다양한 종교적 세대들을 일별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조성기의 소설들을 기독교 세대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2. 한국의 정치 세대 묘사

조성기의 작품 『에텐의 불칼』은 역사의식에 바탕을 둔 작가의 사회적 태도 또한 반영되어 있는 소설이다. 그의 기독교소설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사의 격동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조성기는 작품의 주요한 특징들 중 하나가 소설적 장치로서 사회적 배경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 『에텐의 불칼』은 한국 현대사에서 극도의 혼란기였던 1970~80년대를 배경의 테두리로 설정하고 있다. 작가의 기독교 소설이 대부분 1980년대에 발표된 사실도 주의를 요한다. 그는 우선 자전적인 성장소설들에서 아버지를 통한 아픔의 역사²¹⁴⁾를 사실적 배경으로 삼는다. 실제로 작가는 최초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작품 「갈대바다 저편」²¹⁵⁾의 서두에서 사회적 배경인 “4·19와 5·16”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

214)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4·19가 터졌다. 나는 동아일보에서 김주열의 눈에 최루탄 같은 것이 박혀 있는 사진을 보았다. …… 얼마 후, 우리가 종종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 태극기를 흔들며 주었던 하얀 머리의 대통령이 물러갔다. <이승만은 물러가네>하는 구슬픈 노랫가락이 유행가처럼 사람들의 입에, 우리의 작은 입에 오르내렸다. 아버지는 이러한 시대를 사실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역사의 길에서 ‘교원노조’를 조직하고 이전에 고시공부를 해 온 경력과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부산지부 초등학교 교원 노조 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5·16 이후 감옥살이를 하던 중 불기소처분으로 출감은 되었지만 실업자가 되었다. 조성기, 앞의 책, 108~109쪽.

5·16 : 1961년 5월 16일 새벽3시 제2군 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등이 장면 내각 무능과 사회혼란명문으로 제2 공화국 무너뜨림. 1623년 4월11일(음3월12일) 인조 반정 이후 338년만에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한 쿠데타이다.

215) 『야훼의 밤』 연작 중 제 1부를 이루고 있는 『갈대바다 저편』은 『소설문학』지의 1983년도 장편소설 공모 입상작인 『자유의 종』을 그 원형으로 삼고 있다. 그보다 12년 전인 1971년도의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만화경」이 당선한 것을 계기로 소설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나 그 후 오랫동안 신앙의 세계에 몰입하면서 절필상태에 있었던 그는 이 『자유의 종』을 통하여 소설계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 그는 신앙인이 되어 성결의 과

급하기도 한다. 216)

① 5학년 때 4·19가 터졌고 6학년 때 5·16이 터졌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즐기치게 중학 입시준비를 하였다.217)

② 나의 아버지는 5·16 군사혁명이 터진 후 교사직에서 쫓겨났다.218)

③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4·19가 터졌다. 나는 동아일보에서 김주열의 눈에 최루탄 같은 것이 박혀 있는 사진을 보았다.219)

④ “거, 4·19 때부터 그렇게 된 거 아이다. 그 무렵에 저 양반은 거제도에서 전근을 가 마산 장군동 파출소에서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기라. 그때 저 양반도 다른 순경들처럼 학생들에게 총을 쏠 수밖에 없었제.”220)

조성기는 작품 『에덴의 불칼』 전권의 곳곳에서 4·19와 5·16을 시대적 배경으로 활용한다. 4·19혁명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에서 민중들의 저항운동으로 국가권력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소멸되다시피 한 사회운동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19혁명의 기억과 의미는 정치체제의 변동 및 저항 공동체의 세력 관계에 따라 몇 차례 반전을 거듭하였지만 오늘날까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221) 「갈대바다 저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배경은 작가 자신의 인생에 많은 불편함을 끼친 것으로 묘사된다. 그의 아버지가 교직에서 교원노조 활동을 벌이다가 파면을 당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파면은 가족들의 평화로움을 파괴하고도 남았다222).

정에서 발표한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하, 앞의 책, 61쪽.

216)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공부를 하였다. 5학년 때 4·19가 터졌고 6학년 때 5·16이 터졌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즐기치게 중학 입시 준비를 하였다. 조성기, 앞의 책, 5쪽.

217) 조성기, 앞의 책, 5쪽

218) 조성기, 위의 책, 17쪽.

219) 조성기, 앞의 책, 101쪽.

220) 조성기, 앞의 책, 262쪽.

221) 정호기,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2002, 71쪽.

222) 처음으로 <쿠데타>라는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익히는 데 꽤 시간이 걸렸다. 신문에는 온통 검은 안경을 쓴 장군의 모습으로 가득하였다. 조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자신의 문학 인생 가장 초반부에 ‘아버지’와 관련된 외상적 체험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프로이트는 『정신분석강의』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상적 체험을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지탱해 왔던 토대가 흔들리는 사건으로 경험하면서 완전히 정지 상태에 놓인다. 그들의 정신은 현재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를 포기하고 지속적으로 과거에만 매달린다”고 말한다.²²³⁾ 조성기에게는 바로 4·19가 그런 외상적 체험에 속한다. 위 인용문의 ①, ②, ③ 작가 자신의 외상적 체험에 해당되고 ④는 ‘민주주의와 순수’를 위해 자살한 친구인 영철아버지의 사건과 관련된 외상적 체험이다. 영철은 죽기 전 정신질환을 앓았다. 영철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자기 아버지 죄 값을 대신 치른다고 그 미친 짓을 했을 것”²²⁴⁾이라고 말한다. 영철의 아버지는 4·19당시 반혁명 세력 편이었다. 조성기는 영철의 가족을 통하여 4·19의 진상을 다시 한 번 재연한다.

① “4·19 땀새 신서방 마음이 들뜬기라.”

구슬택은 그때 무렵의 일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쓰라려 움을 느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신서방의 변신, 일본처럼 교원노조를 결성해야 된다고 동분서주하던 신서방의 광기, 5·16 군사혁명과 동시에 행방불명이 된 신서방을 딸과 함께 찾아 헤매던 일, ……²²⁵⁾

② 성민은 그 죄수가 언제 감옥에 들어갔나 하고 속으로 계산을 해보았다. 칠십사 빼기 십삼 하면 육십일이었다. 1961년이면 5·16 군사혁명이 나던 해가 아닌가.²²⁶⁾

③ 그럴 무렵 4·19가 터졌다. 학교에 가기만 하면 주위에서 학생들이 충동질을 하였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이복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면서 같이 쫓기하자고까지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²²⁷⁾

④ 진수는 4·19와 동생의 죽음을 목도한 이후로 솔직히 말해 경찰들을

성기, 앞의 책, 103쪽.

223) 프로이트, 임홍빈·홍혜경 역, 『정신분석강의』, 열린 책들, 2007, 376쪽.

224) 조성기, 앞의 책, 263쪽.

225) 조성기, 『에덴의 불갈 제3부, 길갈』, 민음사, 1992, 56쪽.

226) 조성기, 『에덴의 불갈 제7부, 가시동지』, 민음사, 1992, 11쪽.

227) 조성기, 앞의 책, 261쪽.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들도 대학교 배지를 단 학생들만 보면 슬슬 피하는 형편이었다. 4·19 혁명이 성공한 후 한때는 학생들이 경찰들을 지휘한 적도 있었다.²²⁸⁾

①의 경우 작품 「길갈」에서 성민의 외할머니가 신서방만 생각하면 가슴이 쓰라려 움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장면이다. ②는 작품 「가시둥지」에서 주인공 진수가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던 순간의 묘사다. ③, ④는 진수의 남동생이 중학교 2학년으로서 청와대 근방으로 몰려가 데모를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던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4.19는 작품 곳곳에서 인물들의 심리를 압박하고 제한함으로써 작가 조성기에게는 유년기의 행복 전체를 무너뜨린 흑독한 시련이었음을 암시한다. 이 사건과 함께 아버지의 무너짐은 자신의 무너짐이 되었던 것이다. 정치적 사건이 자신의 유년기에 강력한 외상적 체험으로 작용했던 만큼, 이후 그의 작품들은 항상 중심에건 주변에건 역사적 사건들을 적절히 배치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런 점이 그의 소설을 당대 한국의 정치적 세태를 기록한 세태소설이게 한다. 아래는 작품 속에서 찾은 당대 한국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묘사다.

그 무렵 김신조 일당이 북한에서 내려와 세검정 자하문을 거쳐 청와대로 진행하려다 실패한 직후여서 온 거리는 으스스한 분위기였다. ²²⁹⁾

한일 회담은 제2의 한일합방이라고 외쳐대었다.²³⁰⁾

권오병 문교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과 교련 반대, 그리고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내용이였다.²³¹⁾

5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후 죽순회 회원들은 모두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 ²³²⁾

228) 조성기, 앞의 책, 262쪽.

229) 조성기, 앞의 책, 7쪽.

230) 조성기, 앞의 책, 108쪽.

231) 조성기, 앞의 책, 100쪽.

232) 조성기, 앞의 책, 204쪽.

동과키스탄(지금의 방글라데시)의 벵갈만 해안에는 그해 여름 큰 해일이 일어났다. 마헤쉬크할리, 치타공, 노아크할리, 바리살 지방이 해일에 강타당하여 수백만의 이재민을 내었다.²³³⁾

제3공화국의 제7대 대통령의 4년 임기는 이번 해에 시작되는 것이었다.²³⁴⁾

서울 전역에 위수령이 내려지고 12월 6일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²³⁵⁾

70년, 3학년 2학기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죽고 술제니친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고 할 무렵, 학교 교정은 삼선개헌 반대, 교련 반대 등의 구호들로 가득 차 술렁거렸다. 거기다가 월간 『사상계』 등록을 취소한 정부의 조치……²³⁶⁾

“신민당, 통일당 의원 69명 전원이 사퇴서를 냈으니 국회는 문 닫아야 되겠군.”²³⁷⁾

조성기는 이처럼 작품의 배경이 되는 70~80년대 한국에서 일어난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을 마치 일기를 기록하듯 매번 작품 속에서 언급하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 성민이 법대 시험에 합격하던 때는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실패하던 때와 일치한다. 이후 그의 가족사나 개인사는 항상 한국의 정치사와 맞물려 변화한다. 이러한 묘사의 배후에서 작가의 정치적 감각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조성기는 세태소설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세태 그 자체를 원거리에서 삽화적으로 보여줄 따름이고 역사나 사회에 대해 자신만의 주관으로 개입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는 세태소설의 서사 원리에 따라 정치의 흐름을 충실히 묘사하는 데 힘 쓸 뿐이고, 해석이나 평가는 배제하고 있다. 가령 그가 즐겨 사용하는 마스크 인용식 묘사방식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233) 조성기, 앞의 책, 230쪽.

234) 조성기, 앞의 책, 238쪽.

235) 조성기, 앞의 책, 314쪽.

236) 조성기, 『에텐의 불갈 제3부, 길갈』, 민음사, 1992, 10쪽.

237) 조성기, 『에텐의 불갈 제6부, 베테스다』, 민음사, 1992, 118쪽.

차내의 라디오 방송소리가 갑자기 꺾전으로 몰려왔다. …… “영락교회 당회장 목사인 그는 신병 치료차 출국을 하려다가 김포공항에서 ……”²³⁸⁾

“긴급뉴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외신에 의하면, 스페인의 한 휴양지에서 미국 여객기와 네델란드 여객기가 충돌하여 570명이 사망하는 민간항공 사상 최대의 참사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²³⁹⁾

라디오에서 여가수의 간드러진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 “그때 그 사람”으로 마무리를 지었다.²⁴⁰⁾

운전사가 라디오를 켜는지 대중가요 가락이 흘러나왔다. 몇 노래가 이어지더니 또 “그때 그 사람”이라는 간드러진 노래가 방송되었다.²⁴¹⁾

택시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 “박정희 대통령은 26일 오후 7시 50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쓴 총에 맞아 서거하셨습니다.”²⁴²⁾

조성기는 자주 작품에 세태 묘사를 끼워넣을 때 라디오의 보도를 인용하듯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때 라디오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가급적 개관적 관점에서 전하는 매체가 된다. 심지어 작가는 대통령의 서거라는 대 사건마저 라디오 방송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는 학생들의 시위를 묘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① “민주주의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일이야. 무슨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야.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순수를 위해서도 나를 소멸시키는 거야. 민주주의와 순수를 위해서.”²⁴³⁾

238) 조성기, 『에덴의 불칼 제5부, 회색신학교』, 민음사, 1992, 52쪽.

239) 조성기, 『에덴의 불칼 제4부, 하비루의 노래』, 민음사, 1992, 186쪽.

240) 조성기, 『에덴의 불칼 제6부, 베데스다』, 민음사, 1992, 133쪽.

241) 조성기, 앞의 책, 190쪽.

242) 조성기, 앞의 책, 238쪽.

243) 조성기, 『에덴의 불칼 제1부, 갈대바다 저편』, 민음사, 1992, 134쪽.

② 나는 의식 있는 개인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던진다. 나의 죽음을 미화시켜 어떤 운동에 이용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나의 죽음을 그냥 나의 죽음으로 머무르게 해달라…….244)

③ 광주사태 때 즐병으로서 도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씻기 위해 신학교에 왔다는 진우가, 이번에는 누구 못지않게 용기를 내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전경들이 진우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기우똥, 중심을 잃은 진우의 몸이, 달려온 관성에 의해 앞으로 쏠리면서 그만 물러와 함께 뒹굴었다.245)

조성기 작품에 등장하는 위의 세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꽃이요, 청춘의 꽃으로 죽음으로 생을 마무리를 한다. ①의 영철은 자신의 아버지가 순경으로서 4·19 때 학생들에게 총을 쏜 사실로 인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 아버지 또한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몸져누워 지낸다. 영철은 ‘민주주의와 순수’를 외치면서 자신을 태운다. 그의 ‘순수’에는 어머니의 말처럼 “아버지 죄 값을 대신 치른다”는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다. 역사가 남긴 시대의 고통을 영철은 죽음으로 불태웠던 것이다.

②의 채수는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와 함께 캠퍼스가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찰 때, 도서관을 빠져나가 사라져 버렸다. 그 역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는 리포트 용지의 한 면에 위와 같은 글을 남겨 두었다. 70년대 아홉 차례나 발동했던 긴급 조치는 채수를 죽음의 시위대 현장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③번의 도진우는 80년 봄, 특수 부대에 근무하면서 광주지역으로 출동 명령을 받았다. 그는 완전무장을 하고 광주시민들과 총격전을 벌였다. 그는 무조건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진우는 “단도를 가지고 여학생의 가슴을 도려내기까지…… 아아…….”246)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 그는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신학교에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군사독재 종식과 광주사태 진상규명, 개헌 요구”247)와 관련된 데모에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다. 5·18민주화 항쟁의 역사적 가해

244) 조성기, 『에덴의 불칼 제3부, 길갈』, 민음사, 1992, 155쪽.

245) 조성기, 『에덴의 불칼 제5부, 회색 신학교』, 민음사, 1992, 223쪽.

246) 조성기, 앞의 책, 187쪽.

247) 조성기, 앞의 책, 214쪽.

자로서 고통스런 트라우마를 죽음으로 벗어나게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작가 조성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들을 거의 하나도 빠짐 없이 작품 속에 끌어들인다. 특히 각각 4.19와 긴급조치, 그리고 80년 광주와 관련된 위 세 학생들의 죽음은 작품의 서사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인공 성민의 고뇌가 바로 저 세 학생들의 죽음을 통해 진척되기 때문이다. 어떤 측면에서 세 청년의 죽음은 조성기의 작품 전체적 구조를 아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품 『에덴의 불칼』은 이외에도 곳곳에서 역사적 사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드라지는 작품 「베데스다」는 한국사회가 극도의 혼란기였던 1979년 10·26에서 12·12사태를 거쳐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상황을 서사의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텍스트 안에는 두 종류의 서사가 겹쳐 설정되어 있는데 외적으로는 사회적 정치체계의 붕괴와 관련된 서사가 전개되고, 내적으로는 한 가정의 몰락의 서사가 전개된다. 사회적 배경을 이루는 서사의 골격은 18년 동안 유지되던 한 정권의 몰락이다. 그에 더불어 사회적 격변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개인의 몰락이 겹쳐진다. 아버지의 죽음과 독재자의 죽음을 겹쳐 놓은 알레고리적 구성이다.

이와 유사한 시대적 배경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 「가시둥지」다. 작품 「가시둥지」는 조성기가 1987년 발표한 소설로 살인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수의 출옥 과정을 통해 기독교적 구원의 과정을 서사화한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시대적 배경은 작품에서 중요한 소설적 장치 구실을 한다. 아버지의 사건과 시대적 사건이 교차되는 구조가 그것이다.²⁴⁸⁾

조성기가 서사적 배경으로 삼은 시간대는 1961년 봄부터 1980년 겨울

248) 작품의 주인공인 김진수가 처음 수감될 무렵인 1960년대는 4·19와 5·16의 영향으로 한일회담 반대 사건이 일어난다. 이로 인하여 정치범들이 교도소에 들어오더니 이어 산업화의 결과물인 경제사범이 들어온다. 두 번째로 갔던 영등포 교도소에서 만난 시국사범들을 통하여 유신정권의 압제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들 정치범과 경제사범, 사상범과 시국사범이라는 죄수명은 1960~70년대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정치, 사회적 단면을 읽을 수 있는 상징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죄수들의 죄명과 면회객들을 통해서 감옥 밖의 시간에 흐름을 알 수 있는 서사적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작가의 '아버지의 사건(4·19에 이어 노조를 결성하고 5·16이 후 감옥생활과 교사직파면)'을 발단으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하는 서사적 배경의 구조를 작품 『가시둥지』도 취하고 있다.

까지다. 주인공인 김진수의 수형기간이 1961년 봄부터 1979년 봄까지 18년 18일간이다. 이 역시 알레고리적인 배경 설정인데, 김진수의 수형생활은 독재자의 통치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1980년 5월의 새로운 정권 출범과 동시에 주인공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의 상징성은 주목을 요한다.

공간적 배경을 감옥으로 설정한 것도 알레고리적이다. 푸코에 의하면 감옥은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된 공간으로서 엄격한 일과표에 따라 끊임없이 감시받는 장소다. 아마도 근대적 규율권력의 모델이 바로 감옥일 것이다. 그리하여 근대적 감옥과 사법제도는 범법자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을 선량한 시민으로 변화시키려는 커녕 새로운 범죄자들을 만들어내는 제도적 장치라 되었고 권력은 이것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이용했다고 파악한다. 즉 과거에는 위험한 범죄자들을 단순히 격리시키는 것에 불과했던 감금이 수감자에 대한 미시적 권력의 감시로 확산되었고, 이러한 권력의 전략으로 인간은 개인화 되고, 일방 감시 장치의 구조와 같은 감시체제 속에서 합리적인 예측화의 길로 빠져들었다고 판단한다.²⁴⁹⁾

근대에 이르기까지 감옥은 폭력의 교화공간으로 자유와 인권이 억압된 갇힌 공간이다. 이러한 감옥이 근대적 사회의 진정한 축소판이란 사실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그 갇혀진 공간을 조성기는 「가시등지」에서 배경으로 구축하고 특수한 이를 알레고리적 장치로 활용한다. 그가 박정희 치하 한국의 개발독재 시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가시등지」에는 한국교도소의 일반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경찰서 유치장의 풍경부터 미결수를 수용하는 서울 구치소의 감방, 떡(벌)방, 교수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형장, 사형 기구, 영등포 교도소의 출판 공장과 인쇄소의 과정까지도 자세히 진술된다. 진수가 첫 교도소 생활을 시작한 서울 구치소 미결 감 4사(솥) 11방은 15층의 누런 전등이 초생달빛 보다는 더 어둡고, 두 평 남짓한 방안에 곰팡내 나는 푸른 이불과 새우 젓 독 같은 변기가 나란히 옆에 놓여있는 공간이다. 그는 캄캄한 떡방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움 속에서 TV 시청이 허용되는 종교방까지 수형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교도소 내 공간들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교도소에 들어온 얼마 후에 찾아갔던 사형장은 소름을 돋게 한다. 이처럼 다소 과도하다 싶은 감옥 묘사는 작가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249)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1994, 13~15쪽. 역사서문 중에서.

집착하게 한다. 그에게 당시 한국의 사회는 감옥과 같은 미시 권력의 지배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 작품이 주목받아야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최근대사를 감방의 행정제도 및 법적 절차를 통해 극명하게 프레임화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적 억압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 그것이 진수의 신앙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수는 바로 이 새로운 판옵티콘을 신앙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지는 축복은 18년 18일 간의 복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조성기의 소설을 단순한 정치적 세태소설이 아닌 ‘종교적 세태소설’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V. 기독교 성장·세대 소설로서의 <에덴의 불칼>

1. 조성기 문학과 종교적 성장소설

조성기의 기독교 소설은 신학적인 교리들을 서사적 담론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복음의 교리는 등장 인물들의 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까지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곧 작품 『에덴의 불칼』은 종교적 성장소설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셈이다.

웨슬레의 복음 교리에 따라 살펴본 조성기의 종교적 소설은 작가의 종교 체험을 시간적 계기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성한 성장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곧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소설에서 나타나는 작가의 고뇌와 갈등은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체험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의 공감을 살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우선 중생의 서사에서는 작품 「갈대바다 저편」에서 ‘나’로 등장하는 주인공 신성민을 통해 드러나는 구원에 이르는 서사과정을 고찰하였다. 무던히도 방황하던 한 영혼이 기독교에 입문하여 말씀을 전할 ‘자유의 종’이 되는 서사를 통하여 작가의 자전적 사실들이 종교적 성장소설로 서사화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었다. 또 작품 「하비루의 노래」에서는 다양한 하층민(민중)들이 구원에 이르는 서사과정을 통하여 구원 방식의 다양성을 보여 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가시둥지」에서는 감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서사를 작품화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조성기의 기독교 소설에 형상화 되어있는 중생의 서사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먼저는 그 구원의 교리로서 성경 말씀이 작용하였던 작품으로, 작가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민과, 특수 공간에서 구원함을 체험한 김진수와 여승이었던 문한숙의 인생 역정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가 대학생의 전력이 있었던 이들로 지식인에 속하는 탓에 성경말씀을 매개체로 하는 지적인 통로로 구원을 이루는 정적이며 이성적인 서사형식을 취한다.

나머지 하나의 서사형식은 작품 「하비루의 노래」에 등장하는 다양한 층위의 등장인물들이 그려내는 인생행로다. 이들은 신비체험에서, 전도 구호

에서, 방언의 통성기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들을 매개체로 하여 동적이며 감성적인 구원을 이루는 서사형식을 취하였다.

성결의 서사를 다룬 절에서는 작품 「라하트 하헤렘」, 「회색 신학교」에서 웨슬레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결 교리의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작품의 서사과정에서 성민은 성결의 갈등 양상으로 자신의 결단을 요구하며, 신학과 신앙사이에서 끝없이 충돌한다. 성결 교리를 오히려 지양하고 있는 듯한 작품의 형상화를 통하여서 성결의 중요도를 역설적으로 추적토록 한 것이다. 이는 작품의 인물과 신학의 교리를 통하여서 조성기만이 고유하게 주장하는 심리적인 흐름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케 한다. 그는 종교의 밝은 부분을 드러내기 보다는 왜곡되고 어두운 부분을 들춰내어서 독자로 하여금 답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결의 서사부분을 작품화하는 방식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는 작품 「갈대바다 저편」을 통하여 성민, 중환, 외할머니, 조용기 목사에게 임하였던 신유의 서사과정을 살폈다. 그리고 작품 「가시등지」의 주인공 진수의 굴곡진 삶에 찾아온 신유의 서사적 교리를 살펴보았다. 작품 「베테스다」에서는 홍규에게 이적이라 할 수 있는 질병의 치유를 통하여서 묘사되는 신유의 서사를 추출해 보았다. 안타깝게도 홍석은 시대의 예언자적 외침만 남기고, 신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의 세계로 떠나버린다.

이들은 신유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같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먼저였다. 곧 성경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공통점이 주어진다. 중환과 외할머니, 조용기 목사는 개종과 동시에 신유의 교리를 체험한다. 중환은 뚜렷하게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소설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니코틴 중독에서 해방(치유)이 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수용하게 되는 서사과정을 보여준다. 진수는 중생의 과정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얻는 신유의 복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유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었다. 홍규에게 일어난 일 또한 성화의 서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적이라 할 수 있다. 진수와 홍규는 성화의 과정에서 신유의 교리를 체험하게 되는 서사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이상 조성기의 작품 『에덴의 불칼』을 통하여 중생·성결·신유의 교리

적 서사가 형상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세 교리를 축으로 주인공의 종교적 성장과정을 자전적인 재료들을 가공하여 그려내고 있는 이 작품은 ‘종교적 성장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작품의 서사 전개 과정에 작가가 체험한 신앙적 교리가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종교적 체험소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독자라면 간접 체험이 충분히 가능한 작품이기도 하다. 종교인으로 인간의 실재적인 고뇌와 번민을 초월적인 신과의 사이에서 가감 없이 보여주는 서사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조성기의 기독교 성장소설을 통하여서 작품에 주인공인 성민은 1970~80년대의 일반적인 한국 기독교 교회의 복음적 교리를 따르기 보다는 웨슬레의 메도디스트 사상에 가까운 교리를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의 규범을 보여준다. 이러한 『에덴의 불칼』은 한국문학사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대한 규모의 종교적 성장의 서사를 보여줌으로써 한국문학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교양소설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하다.

2. 조성기 문학과 종교적 세대소설

조성기의 소설 『에덴의 불칼』은 한국 기독교와 한국 현대사의 1970~80년대를 삽화적인 방식을 취해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작품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시기이며, 그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그리고 빈부격차와 계층별 소외의 심화가 이 시기 한국 사회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현상에 발맞추어 한국기독교 역시 외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된다.

조성기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작품 속에 고스란히 아우르고 있다. 그에게 4·19는 아버지의 것이자 자신의 것이며, 한국 정치사의 아픔이자 고통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고난은 그의 성장 과정에서 일종의 트라우마로 고착화되었다. 그는 아버지와 자신의 정치사적 아픔을 작품에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조성기의 작품은 60년대 이후 굴곡진 한국 현대사에 대한 기록이기도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조성기는 이와 같은 세대소설적 구조에 한국 종교계에 대한 비판적 세대 묘사를 보탠다.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두가

지 세태소설적 양상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 기독교의 세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다양한 종교적 분파들이 작품에서 어떻게 묘사되는가를 살펴보았으며, 와중에 그 종교를 믿는 인물간의 갈등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작가는 『에덴의 불칼』 전작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주인공 성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층위의 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종교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소설을 구조화한다. 이러한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순복음교회, 무교회주의, 노장사상, 현신애 권사, 조용기 목사 등이 삽화적으로 등장하면서 당시 한국 사회의 각종 종교들의 세태가 묘사된다.

작품 「갈대바다 저편」에서 성민은 외할머니를 통하여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을 알게 된다. 이들은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는 수혈은 물론 피를 먹지 않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신유의 은사가 없음을 살필 수 있었다. 여기에 반하는 ‘순복음 교회’는 신유의 교리를 보여주었다. 그곳의 목사인 조용기는 방언체험을 기초로 한 기적을 가리키는 오순절운동을 주요하게 생각하는 순복음 교회의 목사였다. 그는 청소년 시절 신유의 은사를 통해 죽음에서 살아남는 기적을 체험한다. 여기에서 과생된 신유의 은사가 그가 이끄는 교회의 중요한 교리가 되었음을 볼 수 있었으나, 조성기는 이와 같은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도 회의를 던진다.

작품 「길갈」에서는 성민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를 유대의 경건주의자들이었던 예세네파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 공동체의 목자들은 자꾸만 시대적 폐인이 되어가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조성기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로 잡지 《무교회》를 펴낸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와 한국의 잡지 《성서조선》을 간행한 김교신을 통하여 ‘교회 제도로부터의 해방’을 설파하기도 한다. 아울러 작품 「회색 신학교」에서는 한국 사이비 신흥 종교들의 교리를 묘사하며, ‘장자의 사상’과 노자의 『도덕경』을 통하여서 서구의 신학이론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종교적 세태의 묘사를 고찰해 본 결과 작가 조성기는 보편적인 한국 기독교를 따르기보다는 제도로부터 자유로운 ‘무교회주의’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웨슬레의 메도디스트 교리와 비슷한 선교단체의 규범을 따른다. 물론 그는 선교단체의 규범이 가지는 우수성과는 별도로 그곳에 속한 목자들의 모습에서 부조리한 점을 드러내는 묘사의 섬세함을 놓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조성기의 소설을 종교적 성장소설

이자 종교적 세태소설로 읽게 하는 근거가 된다.

세태소설에 대해 임화는 플롯의 결여를 지적하며 그 원인을 사상성의 부재로 인식하였고, 김남천 역시 완결성의 제시와 다양성을 아우르는 소설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세태소설의 이와 같은 일반적 한계에서 조성기의 세태소설 역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 가령 그는 소설적인 변용을 거의 거치지 않고 ‘무교회주의’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잡지 《성서조선》의 김교신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차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종교적 세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자신의 삶의 근원적인 방향과 관련지어 다양한 종교와 철학의 사상까지를 통합적으로 연결 짓고 있었다. 그와 같은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고뇌가 이 작품에 종교적 세태소설로서의 품격을 부여한다.

이어서, 한국 현대사 특유의 정치적 격변이 조성기의 작품들에서 어떻게 묘사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4.19는 작가 조성기에게는 일종의 외상적 체험임이 드러났으며, 이후 5.16. 긴급조치, 한일회담, 10.26, 12.12. 오월항쟁 등 굵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이 모두 소설의 시대적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역사적 진행태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시대사적으로 묘사하여 『에텐의 불칼』에 정치적 세태소설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정치적 사건들이 작품 속 개인사와 맞물리면서 일종의 알레고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예를 들어 「가시둥지」의 경우 진수의 수감기간은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조성기의 작품을 단순히 정치적 세태소설이라고 할 수 만은 없는데, 왜냐하면 진수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것처럼 당대 한국의 억압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작가는 신앙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기의 소설을 역시 종교적 세태소설로 분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VI.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조성기 작품들 중에서 기독교 소설로서의 의의가 다분하다고 생각되는 『에덴의 불칼』 연작을 대상으로, 종교적 성장소설의 관점에서 신학적 교리가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 되는지를 조명하는 데에 있었다. 다음으로 종교적 세태소설의 관점에서 작품이 다루고 있는 당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세태 및 한국 기독교의 세태들을 찾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조성기 기독교 문학의 집약판이라 할 수 있는 『에덴의 불칼』 전작을 중심으로 작품에서 드러나는 기독교 교리의 성장 서사를 간추려서 신학적인 방법(웨슬레의 복음)을 원용하여 주인공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신앙관을 정립해 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의 작품은 자전적인 특색을 지닌 기독교 소설로서 한국 기독교의 세태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세태를 고발하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일반적인 세태소설의 경향과 달리 씌어진 기독교적 세태소설의 관점에서 그의 작품들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성기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세태소설적 측면은 종교적이요, 정치적이면서 역사의 기록물이리만큼 사실적인 묘사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I장에서는 우선 한국 기독교 문학사에서 조성기가 점하는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 한국 기독교 문학의 전개과정과 이에 따른 ‘기독교 문학’ 개념의 변모양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1970~80년대 한국 기독교 문학에서 조성기 문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살폈다. 아울러 『에덴의 불칼』이 조성기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논했고, 이 작품이 종교적 성장소설이자 종교적 세태소설의 특성을 더불어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III장에서는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중생·성결·신유의 교리로 조성기 특유의 종교적 성장 서사 속에서 형상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성기의 작품은 자전적인 특수성을 취하는 종교적 성장소설이며, 작가가 체험한 신앙적 교리가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종교적 체험소설이었다. 주로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웨슬레의 교리(중생, 성결, 신유)가 어떤 방식으로 서사화 되었는지를 살폈다. 중생(구원)의 서사로는 크게 지적 구원과 동적 구원을 구별해 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적 구원자는 구원의 매개체로 설교와 성경을 통한 직접적인 인용을 차용하며, 지극히 이성적인 서사적

구조를 취하고 있었. 또한 동적 구원자는 체험을 통한 간접적 진술과 고백적인 형식으로 감성적인 서사적 구조의 방법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성기 문학에서는 중생 이후 성결의 과정과 신유의 과정 역시 복잡다기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웨슬레의 교리에 따른 작품 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조성기의 이 작품은 주인공이 중생과 신유와 성결의 과정을 거치며 온전한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는 종교적 성장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IV장에서는 세태소설의 관점에서 『에덴의 불칼』을 분석했다. 크게 두 가지 분류가 가능했는데, 그의 작품에 묘사된 당대 한국의 종교적 세태와 정치적 세태가 그것이다. 조성기 소설의 특징은 종교적 성장의 서사에 세태소설적 삽화들을 등장시켜 종교적 세태소설로서의 면모도 보여준다. 이를 성장소설과 세태소설의 중첩구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의 과정이 고스란히 세태 묘사의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분석과정에서 조성기 소설에 당대 한국의 여러 종교분파들과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들이 서사 전개에 있어 중요한 배경이자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함으로써 기독교 성장·세태소설로서 『에덴의 불칼』이 갖는 특징과 조성기 문학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국 『에덴의 불칼』은 한국 문학사에서는 이례적으로 방대한 종교적 성장소설이자 종교적 세태소설이다. 그리고 이 양 특징을 아우를 때라야 조성기 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간 조성기 문학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이고 부분적이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본 논문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한계 또한 적지 않은데, 우선 기독교를 소재로 한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고는 조성기의 기독교 문학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표로 설정한 탓에 타 작가와의 비교연구 그리고 전체 한국 기독교 문학사에서 조성기의 위상과 같은 거시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한계가 남아 있다. 아울러 『에덴의 불칼』을 주로 인물과 주제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서사구조상의 특징이나 문체, 혹은 자주 바뀌는 시점 등과 같은 형식적 차원의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다. 이 점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조성기, 『에덴의 불칼 7권』, 민음사, 1992.
조성기, 『야훼의 밤1, 갈대바다 저편』, 고려원, 1986.
조성기, 『야훼의 밤2, 길 갈』, 고려원, 1986.
조성기, 『야훼의 밤3, 하비루의 노래』, 고려원, 1986.
조성기, 『야훼의 밤4, 회색 신학교』, 고려원, 1988.
조성기, 『라하트 하해렘』, 민음사, 1985.
조성기, 『가시둥지』, 민음사, 1987.
조성기, 『베데스다』, 고려원, 1988.

2. 국내단행본 및 번역서

- 구중서, 『한국문학과 역사 의식』, 창작과 비평사, 1985.
권영민, 『한국 현대 작가론』, 문학사상사, 1991.
_____, 『한국 현대 문학사』, 민음사, 1994.
김만수, 『문학의 존재영역』, 세계사, 1994.
김병욱, 『현대 소설의 이론』, 대방 출판사, 1983.
김병익, 『기독교와 문학』, 종로서적, 1992.
김병희,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구조와 의미망』, 한국학술정보, 2007.
김상준, 『사중교리』, 동양선교회, 1921.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4.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 연구 방법 입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_____, 『한국 현대문학 비평사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김윤식, 김현, 『한국 문학사』, 민음사, 1973.
김재남, 『김남천 문학론』, 태학사, 1991.
김주연, 『문학과 정신의 힘』, 문학과 지성사, 1990.
김학중, 『감리교를 창시한 위대한 신학자 존 웨슬리』, 넥서스, 2012.
김희보, 『기독교 문예 사조사』, 종로서적, 1988.
_____, 『현대문학과 기독교』, 현대사상사, 1979.
민경배, 『일제하의 한국기독교 민족 신앙 운동사』, 대한기독교서회,

1991.

- 박명수, 『근대 복음주의의 주요 흐름』, 대한기독교서회, 1998.
_____, 『근대 복음주의의 성결론』, 대한기독교서회, 1997.
신희교, 『한국현대 성장소설』, 신아출판사, 1998.
이남호, 『문학의 위족2 - 소설론』, 민음사, 1990.
이동하, 『한국소설과 기독교』, 국학자료원, 2003.
이보영외,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이상열외, 『한국사회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한울, 2000.
이상설, 『한국 기독교 소설사』, 양문각, 1999.
이성주, 『사중복음』, 성결대학교출판부, 2001.
이재선, 『한국 현대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이희철, 『능력의 증언』, 신애출판사, 1974.
임영천, 『한국 현대소설과 기독교 정신』, 국학자료원, 1998.
_____, 『기독교 문학과 현대 평론』, 국학자료원, 2002.
_____, 『기독교와 문학의 세계』, 대한기독교서회, 1991.
_____, 『현대소설의 비평적 성찰』, 창조문학사, 2001.
임화, 이광희편집. 『문학의 논리』, 서음출판사, 1989.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조동일, 『문학 연구 방법』, 지식산업사, 1980.
_____,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94.
조성기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 문학사상사, 1990. (수필)
_____, 『누가 나를 건져내랴』, 랜덤하우스 코리아, 2010.
_____, 『십일조는 없다』, 평단문화사, 2012.
_____,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열화당, 2004.
조신권, 『성서문학의 이해』,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8.
조연현, 『문학과 생활』, 탐구당, 1964.
조용기, 『삼박자 구원』, 영산출판사, 1979.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출판사, 2003.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컨콜디아사, 1972.
최종수, 『기독교 문학 고전의 이해』, 현대지성사, 1997.
현길언, 『한국현대 소설론』, 태학사, 2002.

_____, 『문학과 성경』,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노오트롭 프라이, 김상일 역, 『신화 문학론』, 을유문고, 1971.

르네 웰렉, 오스틴 워렌, 이경수 역,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마르틴 마티, 배한국 역, 『본회피의 사상』, 컨콜디아사, 1982.

마서 헌트리, 차중순 역, 『한국 개신교 초기의 선교와 교회성장』, 목양사, 1985.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1994.

스티븐 켄, 남경태 역, 『문학과 예술의 문화사 1840~1900』, 휴머니스트, 2005.

아니카 르메르, 이미선 역,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1994.

아서 단토, 김혜련 역, 『일상적인 것의 변용』, 한길사, 2008.

알 앱스터, 라종혁 역, 『문학이론 연구입문』, 동인출판사, 1999.

앤소니 기드슨, 배은경, 황정미 공역,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2001.

앤소니 스토, 이종인 역, 『용』, 시공로고스, 1999.

위르겐 몰트만, 김균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한국 신학 연구소, 1987.

윌리엄 케논, 남기철 역, 『웨슬레 신학』,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6.

유스토 곤잘레스, 서영일 역, 『근대 교회사』, 은성출판사, 1988.

조셉 칠더즈, 게리 헨치, 황종연 역, 『현대문학 문화비평 용어사전』, 문학동네, 2007.

존 토마스, 홍용표 역, 『존 토마스의 성경적인 성결신학』, 프라미스 키퍼스, 2011.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홍빈 · 홍혜경 역, 『정신분석강의』, 열린책들, 2007.

차알스 클릭스버그, 최종수 역, 『문학과 종교』, 성광문화사, 1981.

테리 이글턴, 김명환, 정남영, 장남수 공역, 『문학이론 입문』, 창작과 비평사, 1986.

토마스 스텐스 엘리어트, 최종수 역, 『문예비평론』, 박영사, 1974.

폴 틸리히, 김경수 역, 『조직신학』, 성광문화사, 1985.

폴 틸리히, 남정우 역, 『문화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케네스 콜린스, 박창훈 역, 『진정한 그리스도인: 존 웨슬리의 생애』, 서울 신학대출판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 한스 슈바르츠, 최주훈 역, 『기독교화 현대사회』, 크리스천헤럴드, 2007.
- 한스 쾨링, 발터 예스, 김주연 역, 『문학과 종교』, 분도출판사, 1997.

3. 논문 및 기타 자료

- 강미희, 「성장소설에서의 배경의 역할」,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06.
- 강요열, 「한국 현대 기독교소설」,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1.
-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양상」,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12.
- 고희준, 「복음적 신유론과 장애인 신학」, 성결대학교 박사논문, 2012.
- 공화순, 「박완서 소설 연구 : 전쟁 · 세태 · 가족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11.
- 기애도, 「198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담론 양상」, 송실대학교 박사논문, 2010.
- _____, 「한국 소설에 표현된 기독교인의 모습」, 송실대학교 석사논문, 2004.
- 김경수, 「한국 세태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1993.
- 김경완, 「한국개화기 기독교 소설 연구」, 송실대학교 박사논문, 1999.
- 김나정, 「장편소설의 서사 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3.
- 김성영, 「개화기 기독교문학의 사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4.
- 김영숙, 「이청준소설의 기독교적 상상력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논문, 2009.
- 김영순, 「한국 근대초기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사상」,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1984.
- 김옥순, 「한국 현대문학의 기독교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1983.
- 김완철, 「한국 교회와 이단 발흥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박사논문, 2009.
- 김봉군, 「한국소설의 기독교의식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1995.
- 김병학, 「한국 개화기 문학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연구」, 조선대학교 박사논문, 2004.
- 김 창, 「한국 현대소설과 기독교 정신」,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1.

- 문성국, 「손창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인간관계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2012.
- 박영순, 「1930년대 세태소설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2.
- 박진화, 「한국교회 평신도의 신유인식 분석과 목회적 방안」, 성결대학교 박사논문, 2009.
- 박현철, 「한국 기독교소설의 변이 양상 연구」, 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1.
- 방윤순,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의 수용문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1985.
- 송광용, 「교회성장을 위한 성령의 은사 개발에 관한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논문, 1983.
- 송기봉, 「한국현대소설의 기독교 수용양상, 전영택, 백도기, 조성기소설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 우창호, 「조선후기 세태소설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1996.
- 유선웅, 「인간의 본질로서의 영혼에 관한 성경적 고찰: 여호와 증인의 논박하며」, 총신대학교 석사논문, 2010.
- 윤석용, 「한국 성결교회 목회자의 신유사역 인식에 대한 분석과 방안」, 성결대학교 박사논문, 2007.
- 윤혜중, 「한국 기독교소설의 죄와 구원의 양상-〈종각〉,〈움직이는 성〉,〈청동의 뱀〉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4.
- 이기중, 「작가의 성화에 관한 연구. 김현승, 조성기의 경우」, 백석대학교 석사논문, 2008.
- 이길연, 「근대 기독교 문학의 전개와 변모양상」,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4.
- 이명재, 「신유의 영성」, 한영신학대학교 석사논문, 2011.
- 이승훈,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구원의식의 양상:〈사반의 십자가〉,〈사람의 아들〉,〈에리직톤의 초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5.
- 임영천, 「한국현대소설의 다성성과 기독교정신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1999.
- 임옥희,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고난의 기독교 문학적 의미」, 숭실대학

- 교 석사논문, 2005.
- 이은하, 「박완서 소설의 갈등 발생 요인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5.
- 장여옥, 「권정생 동화연구 :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08.
- 정승희, 「한국 기독교 소설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정혜정, 「1970년대 이후 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수용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2.
- 정호기,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2002.
- 조은정, 「손창섭 후기소설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2.
- 차봉준, 「한국현대소설의 성서 모티프 수용연구」,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2008.
- 차선영, 「〈오유란전〉의 세태소설적 특성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천명은, 「성서 모티프의 소설화 양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1.
- 최유정, 「박완서 세태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최은주, 「한국 기독교 소설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최재선, 「한국현대소설의 기독교 사상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9
- 최하영, 「권정생 성장소설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 최현주, 「한국현대 성장소설의 서사 시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1999.
- 황양수, 「한국기독교 문학의 형성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89.
- 황현주, 「나는 지상낙원에 살고 싶다 : 여호와의 증인 A회중 신자들의 종교적 믿음과 실천」,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12.
- 황효숙, 「한국현대 기독교 소설연구:1960~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논문, 2008.

- 강정인, 「정치·죽음·진실 : 1991년 5월 투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2002.
- 구창환, 「한국현대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사상」,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3집』, 인문과학연구학회, 1981.
- 기애도, 「기독교 소설: 가시동지 연구」, 『신학과 선교 34집』, 서울신대출판부, 2009.
- 기진오, 박배식, 김옥순 공저, 『한국 근대소설의 기독교 수용』, 성서교재간행사, 1985.
- 김경수, 「소설 내적 세계와 소설 외적 세계의 소통」, 『세계의 문학』, 1992. 가을호.
- _____, 「자성소설의 대두와 그 의미」, 『문학의 편견』, 세계사, 1995.
- 김명석, 「현대 기독교소설의 세 양상」, 『문학과 종교 제2권』, 문학과 종교학회, 1997.
- 김만수, 「조성기론」, 『현대소설』, 현대소설사, 1991 겨울호.
- 김병익, 「한국소설과 한국기독교」,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79.
- 김우규, 「한국 기독교 작가론 (상)」, 『기독교 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59, 11.
- _____, 「한국 기독교 작가론 (중)」, 『기독교 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59, 12.
- _____, 「한국 기독교 작가론 (하)」, 『기독교 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60, 1.
- 김윤식, 「고백과 형식 독백의 형식-조성기론」, 『동서문학』, 동서문학사, 1986. 12.
- _____, 「김윤식의 소설 읽기-90년대 중반에 빛난 작품들」, 『참혹한 아름다움 반란하는 딸』, 열림원, 1995.
- _____, 「기행소설과 그 수준」, 『소설과 현장비평』, 새미, 1994.
- 김주연, 「왜 기독교 문학인가」, 『기독교 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85, 10.
- 김현승 외3명, 「문학과 신학의 경계」, 『기독교 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71, 1.

- 김해연, 「소설 살리기의 한 방법」, 『부산일보 신춘문예』 부산일보, 1994.1.
- 명계웅, 「기독교 문학의 형성과정」, 『기독교 사상』, 기독교사상사, 제14권 제7호, 1970.7.
- 박배식, 「손창섭의 세태소설 분석 -〈길〉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 배덕만, 「사중복음을 통해 본 한국성결교회 신학사상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7.
- 백철, 김상선, 「한국 현대 작품에 반영된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 기독교사상사, 제3권 제5호, 1959.5.
- 백 철, 「춘원 문학과 기독교」, 『기독교 사상』, 기독교사상사, 제8권 제3호, 1964.3.
- _____, 「한국의 현대 소설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중앙대학교 논문집, 제4집』, 중앙대학교, 1959.
- 성기호, 「재림론을 중심한 심프슨의 사중복음」, 『논문집 23집』, 성결교신학대출판부, 1994.
- 신광철, 「이광수의 기독교 비평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2.8.
- 신범순, 「분단 역사의 흔적에 대한 소설적 글쓰기의 모험」, 『세계의 문학』, 세계문학사, 1990 겨울호.
- 신철하, 「신 : 초월에서 세속적 진실로」, 『푸른 대지의 희망』, 세계사, 1995.
- 양진오, 「제의와 희생양 그리고 두 이미지」, 『작가세계』, 작가세계사, 1993 가을호.
- _____, 「신과 인간 사이에서 생성된 문학세계」, 『작가세계』, 작가세계사.1996여름호.
- 오태호, 「감옥소설에 나타난 폭력적 광기의 양상 연구」, 『인문학』 인문학연구, 2011.
- 왕대일, 「성서해석 - 하나님을 위한 변론」, 『신학과 세계』, 감리교신학대학교제69호, 2010.12.
- 이광수,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 『청춘7』, 청춘, 1917.
- 이내수, 「믿음과 화해의 세계」, 『소설문학』, 소설문학사, 1983.7.

- 이동하, 「신앙인의 길, 자유인의 길」, 『작가세계』, 작가세계사, 1996 여름호.
- 이성주, 「사중복음 용어에 관한 연구」, 『성결대논문집 23집』, 성결교신학대출판부, 1994.
- _____, 「신유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현대목회』, 현대목회사, 1982, 7.
- 이재선, 「달힘과 열림의 상상력」, 『한국현대소설사』, 민음사, 1992.
- 이창연, 「분신자살(焚身自殺)의 구조와 메커니즘 연구 :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2009,
- 임영천, 「한계 상황의 극복과 개인의 인격 성장」, 『새가정』, 새가정사, 376호, 1988.1.
- 정호웅, 「80년대 현실의 탐사」, 『작가세계』, 작가세계사, 1989 가을호.
- 조신권, 「한국 근대 문학 형성기와 기독교」, 『기독교 사상』, 기독교사상사, 제8권 제3호, 1964.3.
- 전영택, 「기독교 문학론」, 『기독교 사상』, 기독교사상사, 제8권 제3호, 1964.3.
- 전영택외2명, 「기독교와 한국문화」, 『기독교 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57.8.
- 정상운, 「심프슨(A. B. Simpson)의 신유론」, 『논문집 31집』, 성결교신학대출판부, 2002.
- _____, 「사중복음과 한국 성결교회의 신학적 배경」,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와 역사연구소, 1998.3.
- 채희윤, 「금기와 위반의 변증법」, 『현대문학』 1994.9월호.
- 최현주, 「한국현대 성장소설에 드러난 ‘성장’의 함의와 문화적 양면성」, 『현대소설 연구』, 2000.
- 한영태, 「웨슬레 신학의 방법론과 사중복음의 조직신학적 이해」, 『신학과 선교 29집』, 서울신대출판부, 2004.
- _____, 「신유에 대한 웨슬리 신학적 해석」, 『신학과 선교 34집』, 서울신대출판부, 2009.
- _____, 「웨슬레의 ‘3대 교리’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서울신대출판부, 2006.
- _____, 「루터와 웨슬리의 구원관 이해-칭의와 성화를 중심으로」, 『교

- 수논총』, 서울대출판부, 2002.
- _____, 「제2 성결과 중생의 구별」, 『활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2013.
- 허명숙, 「숭실대학의 견인차, 그들의 소설적 성취」, 『한국 문학과 예술』, 숭실대학교 한국문예 연구소, 2009,3.
- 허인영, 「1980년대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식」, 『도솔어문학』, 도솔어문학회, 1997.
- 황국명, 「주양적 삶과 형식적 서투름」, 『비평과 형식의 사회학』, 지평, 1988.
- 황헌식, 「한국기독교 문학의 모색」, 『기독교사상26』 대한기독교서회, 1982,1.
- 기독교문학연구회, 『기독교 문학』, 형설출판사, 1981.
- 문학과 사상연구회, 『임화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2004.
-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회신학연구위원회, 『성결교회신학』, 기독교대한성결교회출판부, 2007.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 예수교성결교회총회, 2001.

4. 사이트 자료

<http://blog.naver.com/dfgiyo>.

naver 지식백과 / 두산백과

감사의 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몇 번이나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혼을 하였으며, 두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이 되던 해에 대학원을 향했습니다.

석사과정 첫 학기의 수업은 물론 박사과정 마지막 수업까지 얼마나 행복하였는지 이루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문의 기쁨을 주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도해주신 김수남 교수님, 김혜영 교수님, 오문석 교수님, 김형중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 계획서에서 오늘에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지도교수님이신 김형중 교수님의 노고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논문의 심사를 맡아주신 전남대학교 임환모 교수님과 광신대학교 광경숙 교수님께 진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수님들께서 세심하게 가르쳐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덕분에 제가 학위 논문을 써낼 수 있었고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원 입학 면접에서부터 다정다감하게 지도해주시며, 제 전공은 아니지만 고전부분에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신 김수중 교수님, 국어학부분의 사회 언어학에서 가르침을 주시며,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독려하신 강희숙 교수님, 마지막으로 석사논문에서 박사논문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신 김혜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와 관심으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도움을 주셨던 광주주월교회 한호 목사님, 제 인생에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게 하신 영광문화원 정형택 원장님, 저를 격려하며 지지해주신 모란춘문학회 김정태 선생님, 끝없이 사랑해주신 박현명 형부, 시간을 아껴 공부할 수 있도록 저의 가정에 식단과 건강을 책임져주신 장공님 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외에 저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주시며, 당신의 학위처럼 기뻐해 주시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준 김한중 남편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가정사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준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한없이 착하고 현숙한 큰 딸 현진이와 나의 보물인 작은 딸 흥빈이와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장 여옥